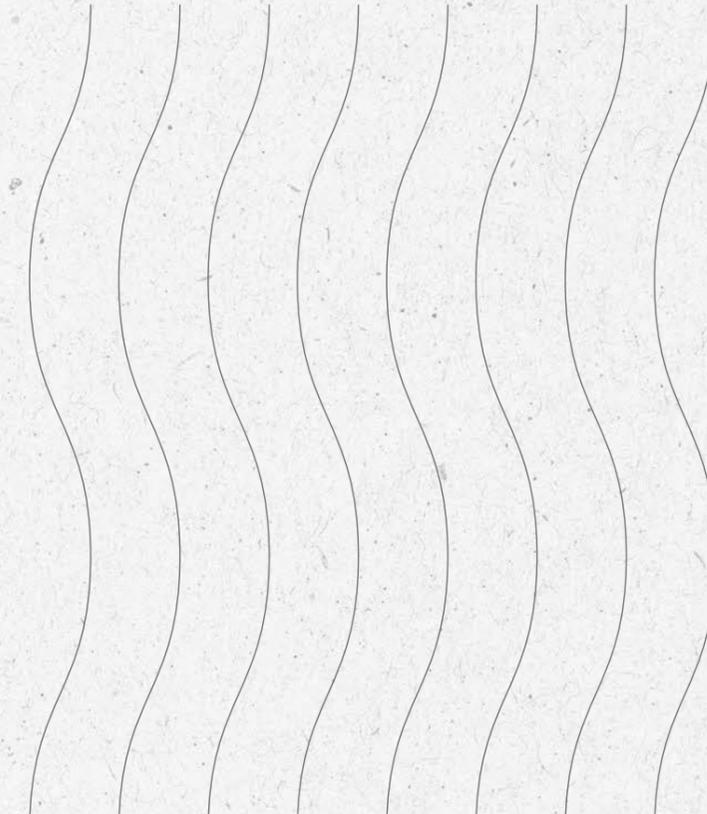


박제가와 한·중 묵연 墨緣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2022년 실학박물관 학술대회



2022.11.17.(목)
13:00~17:00
실학박물관 강당(열수홀)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2022년 실학박물관 학술대회 박제가와 한·중 묵연墨緣



실학박물관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2022년 실학박물관 학술대회

박제가와
한·중
묵연 墨緣



실학박물관



경기문화재단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2022년 실학박물관 학술대회

박제가와 한·중 묵연墨緣

2022.11.17.(목) 13:00~17:00

실학박물관 강당(열수홀)

일시	발표 내용	발표 및 토론
13:00~13:20	등록	사회자 박수밀(한양대학교)
13:20~13:30	개회사	정성희(실학박물관장)
13:30~14:00	기조발표 《호저집》의 편집 구성과 자료 가치	정민(한양대학교)
14:00~14:30	초정 박제가의 청대 문인과의 교유 양상 일면 - 《정유각집貞蕤閣集》과 《호저집》을 중심으로	박중훈(조선대학교)
14:30~14:40	휴식	
14:40~15:10	《호저집》의 편찬자 박장암의 생애와 그 편찬 의식	강진선(한양대학교)
15:10~15:40	청조문인과 나는 박제가의 편지자료 검토 - 《호저집》을 중심으로	이패선(한양대학교)
15:40~15:50	휴식	
16:00~16:50	종합토론 김영죽(성균관대학교) 김지현(광운대학교) 임영길(단국대학교)	좌장 박수밀(한양대학교)
16:50~17:00	폐회사	



목
차

-
- 8 《호저집》의 편집 구성과 자료 가치
기조발표 : 정민(한양대학교)
- 30 초정 박제가의 청대 문인과의 교유 양상 일면
박종훈(조선대학교) / 토론자 : 김영죽(성균관대학교)
- 54 《호저집》의 편찬자 박장암의 생애와 그 편찬 의식
강진선(한양대학교) / 토론자 : 김지현(광운대학교)
- 78 청조문인과 나는 박제가의 편지자료 검토
이패선(한양대학교) / 토론자 : 임영길(성균관대학교)
- 사회자 및 좌장 : 박수밀(한양대학교)
- 토론문 별도

기초발표

『호저집』의 편집 구성과 자료 가치

정민
(한양대학교)

1. 머리말
 2. 『호저집』의 유전(流傳) 경위와 소장자
 3. 편자 박장암에 대하여
 4. 『호저집』의 편집 원칙
 5. 『호저집』의 주요 내용
 6. 맺음말
- 참고문헌

『호저집』의 편집 구성과 자료 가치

정민
(한양대학교)

1. 머리말

『호저집(縞紵集)』 6권 2책은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 1750~1805)의 3남 박장암(朴長庵, 1790~1851 이후)이 부친과 중국 문인과의 교류 기록을 시기별, 인명별로 정리한 필사본 책자이다. 편찬 시기는 부친 사후 4년 뒤인 1809년 5월이다. 이 책은 한중 문화교류사에서 대단히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박제가는 전후 네 차례에 걸쳐 연행에 참여했다. 청조 지식인들과 주고받은 시문과 필담이 집안에 어지럽게 쌓여 있었는데, 기록이 흩어져 사라질 것을 염려해 진행한 편집 작업이었다.

호저(縞紵)란 말은 『좌전(左傳)』 양공(襄公) 29년 조에 나온다. 오나라의 계찰(季札)이 정나라에 갔다가 정자산(鄭子產)과 만나 오래 사귄 것처럼 가까워지자, 자신이 차고 있던 흰 명주 허리띠를 끌러 선물로 주었다. 정자산은 답례로 계찰에게 모시옷을 벗어 건넸다. 이후 이 단어는 벗 사이에 마음을 담아 서로 주고받은 물품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 깊고 두터운 우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쓴다.¹

박제가는 1778년 처음 연행에 참여한 이래 1790년과 1791년에 연이어 두 번, 그리고 1801년에 한 번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중국에 다녀왔다. 비슷한 시기 이희경(李喜經)이 다섯 차례 연행을 했지만, 박제가의 4차에 걸친 연행은 북학과 실학자 중에서도 단연 많은 횟수에 속한다. 체류 기간도 제법 길었다.

1776년 유금(柳琴)이 『한객건연집(韓客巾衍集)』을 가져가 이조원과 반정균의 서문과 평비(評批)를 받아온 일로, 1778년 첫 연행부터 박제가의 이름은 이미 연경 문원(文苑)에 꽤 알려

1 호(縞)는 백색의 생견(生絹)으로 만든 허리띠를, 저(紵)는 가는 삼베로 만든 의복을 가리킨다. 『좌전(左傳)』 양공(襄公) 29년 조에 “吳季札 聘於鄭, 見子產, 如舊相識, 與之縞帶, 子產獻紵衣焉.”라 하였다. 이 후 호저는 벗 사이의 깊은 우의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었다. 벗 사이에 죽고 받는 선물을 가리키기도 한다.

져 있었다. 이후 그는 수많은 중국 문인과 교류할 수 있었다. 연행의 역사에서 개인으로 중국 문인과 나눈 교류의 폭이 앞뒤를 통틀어 박제가를 능가하는 경우를 찾기란 쉽지 않다.² 추사 김정희가 청조 문인과 폭넓게 교류했지만 단 한 차례 연행에 그쳐 박제가와 견주기 어렵다. 김정희의 중국 인맥부터 박제가의 소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박제가는 놀라운 시문 창작 능력과 풍부한 학식, 천재적 순발력으로 청조 문인들과 시문 창작과 필담을 나누며 단번에 그들을 매료시켰다. 북경 유리창 거리에 이른바 박제가 신드롬이라 할 만한 현상까지 생겨났을 정도였다. 그와 교류를 갖기 위해 경쟁이 붙었고, 심지어는 쟁탈전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시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교류를 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귀국 후에도 청조의 많은 지식인이 인편으로 소식을 전해왔고, 이렇게 오간 수많은 편지와 시문, 제평(題評) 및 필담 자료에 이르기까지 박제가의 집에는 청조 문인들의 묵적(墨跡)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박제가는 생전에 책자로 엮을 생각으로 이 자료들을 1차 정리해두었으나, 만년의 갑작스러운 귀양과 득병으로 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말았다. 부친 사후 셋째 아들 박장암이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자료들을 편집해 『호저집』으로 종합하였다.

하지만, 만년의 박제가는 슬프고 참담했다. 1801년 4차 연행에서 귀국한 직후 그는 사돈인 윤가기(尹可基)의 옥사에 연루되어 귀양을 갔고, 4년 뒤 귀양지에서 병을 얻은 채 돌아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들 박장암은 아버지 박제가의 그 빛나는 기록들을 그대로 소장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 박제가가 손만 대고 마무리 짓지 못했던 자료의 정리를 시작했다. 그 결과 목차와 범례에 따라 172명에 달하는 청조 사인들과의 교류 기록이 정리되었다.

동아시아 연행사에서 한 개인이 접촉한 인원으로는 단연코 박제가를 넘어설 사람이 없다. 그가 만났던 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당시 중국 문단에서 쟁쟁한 지명도를 자랑하던 이들이었다. 이 중에는 중국 쪽 기록에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은 문인들도 적지 않다. 책 속에 수록된 172명과 중간 주석에 소개된 13인 등 총 185인의 인명록은 말 그대로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청조 학계와 문단의 거공명수(鉅公名手)를 망라하고 있다.

관련 기록은 해당 문인의 개별 문집에도 풍부하게 남아있다. 『호저집』의 기록과 맞춰서 살펴보면, 당시 박제가의 교류가 얼마나 국제적이고 엄청난 것이었는지 실감이 난다. 박제가의 교류 인맥은 다음 세대 추사 김정희와 신위 등에게 그대로 인계되었다. 이를 통한 자극이 조선의 북학을 추동했고, 실사구시, 이용후생 학풍 확산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 글에서는 『호저집』의 유전 경위와 박제가의 연행, 『호저집』의 편자 박장암과 편찬 경위 및 편집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 『호저집』의 주요 내용과 자료 가치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겠다.

2 안대회, 「초정 박제가의 연행과 일상속의 국제교류」, 『동방학지』 제 145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3), 37-64면 참조.

2. 『호저집』의 유전流傳 경위와 소장자

먼저 『호저집』의 유전 경위와 소장자에 대해 알아보자. 『호저집』은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에 완질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고, 이밖에 단국대학교 연민문고에 『호저집』 편집 1책이 낙질 상태로 따로 전한다. 하버드 옌칭도서관 소장 필사본 2책은 포갑에 들어있고, 박장암 친필본으로 보인다. 책 표지의 제첩은 『청조문화 동전(東傳)의 연구(淸朝文化東傳の硏究)』로 추사 김정희 연구에 큰 자취를 남긴 전 경성제국대학 교수 후지쓰카 지카시(藤塚鄰, 1879~1948)의 친필이고,³ 책 또한 그의 손때가 묻은 수택본(手澤本)이다. 책 곳곳에 붉은색 잉크로 쓴 후지쓰카의 친필 메모가 들어있다. 중간중간 본문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카드에 적어 꽂아둔 것도 여러 장이다.

한편 연민문고본 『호저집』 1책은 이가원 선생 소장본으로 그간 책의 존재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책은 첫장에 장서인 3과가 찍혀 있다. 위에는 ‘연민기념관장도서관(淵民紀念館藏圖書記)’이고, 그 아래에 ‘일사(弑史)’와 ‘윤주찬인(尹柱瓚印)’이란 장서인이 나란히 찍혀 있다. 원소장자인 윤주찬은 강진 사람으로 자가 사규(士圭), 호가 일사(一史) 또는 일사(一叢)라 쓰는데, 고종 때 주사(主事) 벼슬을 거쳐 중추원 의관을 지낸 경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⁴ 윤주찬이 이 책을 소장하게 된 경위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책은 제 1책 찬집 부분이 빠진 낙질이다.

여기서 후지쓰카가 『호저집』을 비롯해 박제가의 여러 저작을 손에 넣게 된 경위를 잠깐 살펴해보겠다. 후지쓰카는 청대 경학을 연구하다가, 북경 주재 해외 연구자 자격으로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21년부터 1923년까지 2년간 북경에 체류했다. 이때 그는 날마다 유리창 서점가를 출입하며 청대 원각본 서적 수집에 골몰했고 귀국할 때는 거의 몇 만 권의 장서를 모을 수 있었다.

1923년 북경 유리창 서점가를 순례하던 후지쓰카는 진전(陳鱣, 1753~1817)의 『간장문초(簡莊文鈔)』라는 책을 보다가, 그 첫 장에서 진전이 박제가의 문집에 서문으로 써준 「정유고략서(貞蕤藁略敘)」란 글을 발견하였다. 진전의 글을 읽은 후지쓰카는 박제가라는 인물이 몹시 궁금해졌지만, 당시 진전이 이름 대신 자(字)를 써서 ‘박수기(朴修其)’로 표기하는 바람에

3 하버드대학교 옌칭 도서관에는 후지쓰카 지카시가 소장했던 박제가 관련 자료가 여럿 소장되어 있다. 『호저집』 2책과 『정유각집(貞蕤閣集)』 5책, 건상본 『정유고략(貞蕤稿略)』 등이 그것이다. 관련 내용은 정민, 『18세기 한중지식인의 문예공화국』(문학동네, 2014), 제 29화, 「그렇까. 과연 그럴까? -후지쓰카와의 운명적 만남과 박제가의 제2차 연행」에서 상세히 살핀 바 있다.

4 안대회, 「호저집」,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집』(문예원, 2012), 843-848면 참조.

박제가의 바른 이름조차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여러 책을 뒤지다가 『예해주진(藝海珠塵)』이란 책에 수록된 『정유고략』을 찾아내 비로소 그의 본명이 박제가임을 확인했다.⁵

후지쓰카는 1926년 4월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부임해 조선으로 건너와, 다시 탐서 작업을 개시하였다. 어느 날 서울 한남서림(翰南書林)에 들렀던 그가 우연히 보게 된 『사가시(四家詩)』에서 박제가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 후 본격적으로 박제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유각시집(貞蕤閣詩集)』과 『정유각문집(貞蕤閣文集)』을 손에 넣고, 곧이어 『북학의(北學議)』와 『호저집』도 구할 수 있었다. 마침내 나빙(羅聘)이 그린 박제가의 초상화까지 구하게 되자 그는 마치 박제가의 전모를 눈앞에 펼쳐 놓은 것처럼 한눈에 살필 수 있게 되었다고 감격에 들떠 술회한 바 있다.⁶ 후지쓰카는 박제가가 그린 것으로 잘못 알려진 <연평초령의모도(延平髯齡依母圖)>를 손에 넣기도 했는데, 너무 기뻐던 나머지 자세한 전후 사정을 기록으로 남기기까지 했다.⁷

하지만 몇만 권에 달했던 후지쓰카의 서책은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군의 도쿄 공습으로 대부분 불에 타버렸다. 집의 방공호에 따로 보관한 덕에 그가 특별히 애장했던 박제가와 김정희 관련 귀중본과 필적 등은 요행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1948년 후지쓰카가 세상을 뜬 뒤, 그의 집안에서는 생계를 위해 일부 고서를 매물로 내놓았다. 『호저집』은 여기에 포함되어 1950년대 초,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으로 흘러들어왔다. 공산화 이후 중국과의 국교가 단절되자 미국에서는 중국과의 수출입이 일체 중단되었다. 연구를 위한 서적을 수입할 길이 막힌 상태에서 당시 미국의 대학 도서관들은 홍콩과 일본을 통한 중국 서적 구매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전후의 일본 경제 악화와 맞물려 희귀본 고서가 시장에 쏟아져 나왔고, 일본출판무역주식회사(日本出版貿易株式會社)라는 에이전시가 설립되어 이들 고서를 구입하여 카탈로그로 만들어 미국 도서관에 판매했다.

5 후지쓰카 지카시 지음, 윤철규 외 옮김, 『추사 김정희 연구-청조문화 동전의 연구 한글완역본』(과천문화원, 2008), 15면 「머리말」 참조.

6 위 같은 글, 16면 참조. 이밖에 후지쓰카 지카시의 아들 후지쓰카 아키나오(藤村明直)은 아버지를 회고하며 쓴 「服部宇之吉 선생과 아버지 藤塚鄰」(『후지쓰카 기증자료 목록집 II』(과천문화원, 2009), 327면에서 “경성에서는 규장각도서관, 한남서림 등이 방서(訪書)의 장소였는데 실제로는 좋은 가치 있는 것이 이 눈을 개운하게 하는 고려야(高麗野)의 평원에서 굳히 잠들어 있는 그러한 기분이었다.....청조 명언(名彦)의 수찰, 척독, 서책, 한묵, 드물게는 건릉제의 어필 등, 이렇듯 귀중한 문화재가 많게는 이전의 신진(紳縉) 명가의 쇠락한 자손들의 집에 잠들어 있고, 자손들도 선대의 가치도 모르고 있다는 양상으로 이 정제된 아시아 사회에서는 눈앞에 창공만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우리 강호(江戶)시대에 고학자들은 경쾌한 머신과 같은 존재로 청조 경학에 대해 쥐를 노리는 고양이의 집요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버지도 이 집요함을 계승해 눈을 복위 40도 이남의 산야로 하고 정력적인 비서(祕書) 탐방의 행동을 개시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부친의 탐서 활동에 대해 술회한 바 있다.

7 관련 내용은 후지쓰카 지카시, 「청선(淸鮮) 문화교류연구의 동기 및 그 과정-박제가와 나」, 『추사자료의 귀향』(과천문화원, 2008), 52-56면에 걸쳐 자세히 나온다. 한편 이 그림이 실제로는 위작이었다는 사실은 정민, 『18세기 한중지식인의 문예공화국』(앞의 책), 606-629면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준 그림-박제가가 그렸다는 <연평초령의모도>에 대하여」에서 자세히 논증하였다.

필자는 2012년 하버드 엔칭연구소에 1년간 방문학자로 체류하면서, 엔칭도서관에 소장된 후지쓰카 지카시 소장본 자료 56종 200여 권을 찾아내 정리한 바 있다. 이들 책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일본출판무역주식회사의 스티커가 붙어있다.⁸

후지쓰카는 『호저집』 곳곳에 친필 메모지를 끼워 넣거나 행간에 직접 붉은 잉크로 참고사항을 잔뜩 적어두었다. 문집과 대조하여 원본의 오자를 교정한 흔적도 적지 않다. 이밖에 구분을 위해 붉은 종이를 네모지게 자른 표지를 여기저기 붙여 놓았다. 연대 확인과 인물 소개, 참고 내용 추가, 문장 보완 및 오탈자 교감의 내용 또한 메모로 남겼다. 간지로 표기된 것은 구체적 연도로 밝혀 연대 파악이 손쉽게 하였고, 원문에 오자나 빠진 글자가 있을 경우 붉은 잉크로 수정 표시를 해 두었다.

책 상단에 인물 정보나 교감 내용 등 참고사항을 적은 내용도 상당하다. 따로 종이를 덧붙여 추가할 내용을 적어두기도 했다. 중간중간 원고지나 이면지에 쓴 메모 11장이 갈피에 끼워져 있다. 다른 자료에서 연구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추려 따로 베껴 써둔 것이다. 당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제공 받은 박제가의 편지를 원고지에 전사해둔 것도 있다. 또 『호저집』의 메모 중 다섯 군데에 ‘원적장어망한려(原蹟藏於望漢廬)’와 같은 소장 사실을 적은 메모가 남아있다. 망한려는 후지쓰카가 살았던 종로구 충신동 집의 당호이다. 『호저집』에 수록된 작품 중에 적어도 원본 진적 5편을 후지쓰카가 소장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많은 메모와 교정 및 참고사항의 추가는 후지쓰카가 이 책을 얼마나 아꼈는지 잘 보여준다. 그는 『호저집』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의 연구 주제였던 청조 문화의 동전(東傳)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8 관련 내용은 필자의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 제 38화에서 자세히 밝혔다.

3. 편자 박장암에 대하여

『호저집』의 편자인 박장암에 대해 알아보자. 『호저집』의 범례 끝에 “1809년 5월 박장암이 삼가 적다(己巳仲夏, 長菴謹識.)”라고 적은 구절이 있다. 이로 볼 때 『호저집』은 부친 서거 4년 뒤인 1809년 5월에 당시 20세 젊은 나이의 박장암이 편집한 것이다.

『한국문집총간』 해제에 수록된 박제가 연보는 어찌된 일인지 세 아들의 나이를 각각 10년씩 앞당겨 놓았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도 이것을 따르는 바람에 박장암의 생년이 1780년으로 잘못 굳어졌다. 하지만 『호저집』에 수록된 조강曹江(1781~1837)과의 필담에서 자식 몇을 두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박제가는 “늦게 본 큰애가 그대와 동갑이고, 둘째가 14살, 그 다음이 12살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⁹ 박제가가 조강과 만나 필담을 나눈 것이 1801년이고 조강은 1781년생이니 당시 맏아들 박장임(朴長稔)은 21세, 둘째 박장륜(朴長廩)은 1788년생 14세, 셋째 박장암이 1790년생 12세가 된다. 이는 『밀성박씨족보(密城朴氏族譜)』의 기록과도 일치하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

박장암은 박제가의 셋째 아들로 1790년 12월 28일에 태어났다. 자가 향숙(香叔), 호는 소유(小蕪)이다. 아버지 박제가의 호가 정유(貞蕪)여서 부친의 유업을 이었다는 뜻으로 붙인 호이다. 3남이었음에도 박장암이 부친의 적전을 이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는 사묵(師墨)이란 호도 썼다.¹⁰ 박제가는 슬하에 3남 3녀를 두었다. 맏아들 장임(長稔)은 1781년생이고 자가 이곡(爾穀)이었다. 차남 장륜(長廩)은 1788년생이고 자는 희중(饒仲)이었다. 세 딸 중 장녀는 윤겸진(尹兼鎭)에게 시집갔고, 차녀(1776~1799)는 윤후진(尹厚鎭)의 아내가 되었으나 결혼 이듬해에 일찍 죽었다. 특히 윤후진은 역모에 연루되어 사형당한 윤가기의 아들이어서 박씨 족보에서도 이름을 파내고 없다. 그리고 남근중(南謹中)에게 시집간 3녀가 있다. 박장암은 6남매 중 막내였다.¹¹

소유란 호에 걸맞게 박장암만이 부친을 이어 규장각의 검서관을 지냈다. 유득공의 『고운당필기(古芸堂筆記)』에 따르면 정조는 장남 박장임의 이름을 1795년에 대년검서(待年檢書)의 명단에 올리는 은혜를 베풀었다.¹² 당시 16세였던 박장임이 나이가 차면 검서관에 임명하겠

9 『호저집』 상책 327면.

10 김정희의 『완당전집』 권10에 수록된 「이목장의 독행소조에 제하다. 이는 바로 소유 박군에게 기증한 것이다[題李墨庄獨行小照 即寄贈小蕪朴君者也]에 “묵장(墨庄)의 호는 사죽재(師竹齋)인데 군은 또 호를 사묵(師墨)이라고 하였다.[墨庄號師竹齋, 君又號師墨.]”는 주석이 보인다. 박장암은 묵장(墨莊) 이정원을 스승으로 삼았던 의미로 자신의 서재 이름을 사묵재라 이름 짓고, 이정원에게 편액 글씨를 요청한 일이 있다.

11 『밀성박씨족보』 권지정(卷之丁) 삼편(三編), 감사공삼파(監司公三派), 장 33b 참조. 세 딸 중 윤후진에게 시집간 둘째 딸은 1799년에 사망했고, 그녀를 위해 쓴 「망녀윤씨부묘지명(亡女尹氏婦墓誌銘)」이 『정유각문집』 권 3에 수록되어 있다.

12 유득공 저, 김윤조 외 옮김, 『고운당필기』(한국고전번역원, 2020), 435면, 「대년검서(待年檢書)」에 “을묘년(1795, 정조

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또 1796년에 검서관 시취인(試取人) 신분으로 입궐한 기록도 『승정원일기』에 남아있다.¹³ 하지만 그 이후 남은 기록이 전혀 없어, 실제로 박장암은 검서관으로 재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1818년 4월 7일자 기사에, 검서관 박장암에게 종9품 부사용(副司勇)의 군직을 주어 관대(冠帶)를 하고 사진(仕進)케 하였다는 기록이 남은 것으로 보아, 박장암의 경우 29세 때에는 이미 규장각에서 검서관으로 활동하고 있었다.¹⁴ 2년 뒤에는 6품직으로 천전(遷轉)하여 1820년 12월에 장흥고주부(長興庫主簿)에 제수되었고, 1822년 6월 통례원인의(通禮院引儀), 1823년 12월 사옹원주부(司饗院主簿)를 거쳐, 1824년 1월에 흥양목장감목관(興陽牧場監牧官)에 임명되었다. 다만, 대부분 검서관의 겸직으로 실직(實職)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1827년 9월에 규장각 검서관으로 복귀하며 종6품 부사과(副司果)의 군직에 제수된다. 이후 지방의 수령으로 나가 함창현감(咸昌縣監, 1833~1836)에 이어 진위현령(振威縣令, 1836~1839)을 지내던 중 암행어사로부터 장죄(贓罪)의 혐의를 받아 봉고과직을 당한다. 이후 10년 넘게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승정원일기』 1851년 7월 10일자 기사에 전 검서관 박장암을 겸검서관(兼檢書官)에 임명하고 군직을 제수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적어도 62세까지는 그가 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후의 행적이 전하지 않아 세상을 뜬 해는 분명치 않다.

박장암은 비교적 젊은 시절에 쓴 시를 모은 시집이 있었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아들 유본학(柳本學, 1770~1842)은 자신의 『문암문고(問庵文藁)』에 쓴 「박향숙시집서(朴香叔詩集序)」에서 이렇게 썼다.

향숙은 성품이 조용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웃지 않았다. 사람과 마주해 단정히 앉아 있으면 마치 엄숙 공손하여 언행을 삼가는 사람 같았다. 문예나 회화, 청동기 등을 논함에 이르러서는 다른 사람이 제대로 알지 못해 종일 따지고 논란해 마지않는 문제도 굳이 한 마디로 갈라 분석하면 모두 그 요점을 얻었으니, 간데없이 부친 박제가가 명리(名理)를 이해함과 꼭 같았다.¹⁵

19) 10월 30일에 신 유득공의 아들 본학(本學)과 본예(本藝), 그리고 전 검서관 박제가의 아들 굴손(橘孫)....모두 대년 검서로 이름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언급이 나온다. 대년 검서관 나이가 아직 어려, 나이 차기를 기다려 검서에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굴손은 박장암의 아명인 듯 하다. 이때 그는 15세였다.
 13) 『승정원일기』 1796년 7월 22일 : “率檢書官試取人鄭柁·元有鎮·朴長稔·任得常·徐有殷·柳井均·柳本藝·柳本學·成憲會·金履疇, 偕入進伏.”
 14) 『승정원일기』 1818년 4월 7일 : “李止淵以奎章閣言啓曰: ‘檢書官朴長醜·李熙考·朴宗琰, 時無職名, 令該曹口傳付軍職, 使之冠帶常仕, 何如?’ 傳曰: ‘允.’” 이하 버슬 이력은 『승정원일기』 해당 일자의 기록에 따른다.
 15) 유본학, 「朴香叔詩集序」, 『문암문고』 乾卷 장11a: “香叔性沈靜, 不妄言笑. 對人端坐, 若修飭者. 至於論文藝及繪畫彝

그가 문예와 골동 방면에 식견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검서관에 오르고, 소유의 호까지 쓴 것에서도 가학(家學)의 그늘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시집에는 고체와 근체시가 고루 실려 있었다. 그 작품에 대해 유본학은 “모두 우뚝하여 외울 만하였고, 깃발이 날리듯 한 것은 그 태(態)이고, 정심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 말이었으니, 오로지 연마하여 옛 작가의 뜻을 따르고자 하였다. 아! 가학을 잃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만하다.”¹⁶고 평가하였다.

또 유본학은 박장암에게 보낸 편지 「여박향숙서(與朴香叔書)」를 『문암문집』에 따로 남겼다. 편지에서 유본학은 박제가가 시도(詩道)로 한 세상에 이름을 올려 중국에까지 흘러들어가 전해진 일을 말하면서 그에게 시작(詩作)에 더욱 전념하여 부친의 뜻을 이을 것을 권하였다.¹⁷ 박장암은 시작(詩作)에 상당한 재능을 지녔음에도 막상 시짓기를 즐기지는 않았던 듯하다.

신위(申緯)는 「중구절에 ... 시 7수를 얻고(重九 ... 余得詩七首)」에 “초서에 민첩한 솜씨는 규영부의 향숙이라네(敏捷抄書手, 香叔奎瀛府.)”라는 구절을 남겼다.¹⁸ 초서(抄書)는 여러 책에서 필요한 정보를 초출(抄出)에서 베껴 써내는 것을 말한다. 그가 부친을 이어 오랫동안 규장각 검서관으로 봉직하여 각종 문헌 정보에 해박했고, 손이 빨라 그 역량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박장암은 신위, 김정희, 유취관, 신명연, 한재락, 정학연, 이만용 등 당대의 문장들과 가깝게 지냈고 부친 사후 중국 사인과의 연락도 박장암을 통해 이어졌다. 성균관대 존경각에 『사죽재집(師竹齋集)』이 있다. 부친 박제가와 각별한 교분을 나누는 청나라 묵장(墨莊) 이정원(李鼎元, 1750~1815)의 시집이다. 이정원이 옹방강의 아들 옹수곤(翁樹崑, 1786~1815)을 통해 인편에 전달한 책자가 1814년 무렵 박장암에게 도착한 것이다. 이 책에는 옹수곤의 인장뿐 아니라 박장암과 유취관의 인장이 찍혀 있고, 표지에 ‘소유보장(小蕤寶藏)’이라 쓴 김정희의 글씨가 남아 있다.¹⁹ 이 시집이 박장암의 소유였다는 것과 그가 중국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왕래했음을 알려준다. 함께 왕래한 벗들의 정보도 확인된다. 당시 이정원은 자신의 초상화도 박장암에게 보냈다.

器之屬, 他人之所未真知, 終日辨難不已者, 君以一言析之, 皆得其要, 宛如貞蕤之解名理.”
 16) 유본학, 위 같은 글 : “皆楚楚可誦, 旖旎者其態, 要眇者其語, 專欲磨洗, 以追古作者之旨. 嗚呼! 可謂不失家學者也.”
 17) 유본학, 「與朴香叔書」, 『문암문고』 坤卷 장59a: “足下先公, 與僕之先君子, 俱以詩道, 名動一世, 至流傳中國, 吾輩雖不肖, 豈無繼作之心.....足下以妙才慧性, 淹貫書籍, 脫略少務, 亦似不屑詩, 而若覽僕之書, 必犁然契悟, 不以為過語也.”
 18) 신위, 『警修堂全藁』 8책, 「碧蘆舫藁」 4, 「庚辰七月至九月重九, 與命治, 命準, 柳正碧最寬, 朴小蕤 長醜.....余得詩七首, 各一韻.」(『한국문집총간』 291책-165면) 제 4수의 1,2구에 “敏捷抄書手, 香叔奎瀛府.”라 하였다.
 19) 『호저집』 편집의 이정원 관련 기록 속에 이정원이 박장암에게 부친 「答小蕤」에 박장암이 자신의 거처를 ‘師竹齋’라 하고 편액 글씨와 문집 『사죽재집』을 보내 줄 것을 청한 데 대해, 『사죽재집』이 아직 출판을 마치지 못했으니, 다음 인편에 가져 가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존경각본 『사죽재집』은 시집 출판 후에 보내온 것이다.

또 1815년 대둔사 승려 초의가 상경하여 수락산 학림암에 머물 때, 다산의 맏아들 정학연의 글씨 도움을 받아 초의의 이름으로 추사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다. 편지 끝에 공동 수신자로 김정희, 유취관, 박장암, 김훈(金堧) 등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다.²⁰ 특별히 유취관, 김정희, 신위, 정학연, 이만용 등과 긴밀한 교유를 이어 나갔음이 여러 기록을 통해 드러난다.

20 이 편지는 1815년 겨울 학림암에 머물면서 정학연의 글씨를 받아 추사에게 보낸 편지이다. 현재 친필이 예천 추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편지는 “艸衣沙門意洵謹再拜奉書于小蓬萊先生足下”로 시작되는데, 끝에 “小蓬萊閣·貞碧·迥莽·小蕤并手展”이라 적혀 있어, 네 사람에게 함께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4. 『호저집』의 편집 원칙

박장암은 어떤 편집 원칙을 세워 『호저집』을 엮었을까? 박장암의 작업 기준은 앞쪽에 실린 10조목에 걸친 「범례」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범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호저집』의 편집 구성과 정리 방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먼저 책은 6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책은 찬집(纂輯), 제2책은 편집(編輯)이다. 각 책은 박제가의 연행 시기별로 다시 3권으로 구분했다. 1778년의 1차 연행이 제1권, 1790년과 1791년의 연속 연행이 제2권, 1801년의 제4차 연행을 제3권으로 삼았다. 특별히 권1 앞에 권수(卷首)를 두었다. 이는 박제가가 자신보다 선배로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던 몇 사람을 따로 떼어 구분한 것이다.

박장암은 『호저집』에 모두 172명에 달하는 인명 정보를 수록하였다.²¹ 그 인적 구성은 박제가 한 사람의 교유 네트워크라고 믿기에는 놀라우리만치 방대하다. 박장암은 남은 친필 시문 끝의 서명이나 인장을 통해 얻은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직접 찾아 정리했다. 때로는 남은 종이조각에 적힌 알아보기 힘든 난필 메모에서 취해오기도 했다. 그것마저 없을 때는 훗날을 기약하며 이름만 남겨 두었다.²²

각 권별 인명 수록 순서는 1778년과 1801년의 경우, 부친 박제가의 메모에 바탕을 두었던 듯 나름의 근거를 갖추었으나, 1790년과 1791년의 경우는 선후가 모호하여 어림짐작으로 차례를 매겼다고 썼다.²³ 각 인물별 사적은 전기(傳記)의 예에 따라 사제와 교유 관계를 밝히고, 출처의 자취를 자세히 풀이하여, 지파와 연원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상세한 내용을 담으려 노력하였다. 여기에 박제가가 이들에게 준 증별시와 회인시, 제첩시 등의 자료를 추가했다. 필담의 답초가 남아있을 경우 앞쪽 찬집에 모두 포함시켜 기초 자료로 제공하였다.²⁴

박제가는 중국 문인과의 교유를 인물별로 정리한 「회인시」 연작을 무려 128수나 남겼다.²⁵ 이 가운데 77수를 『호저집』에 수록하였고, 「연경잡절(燕京雜絕)」 140수 연작 중에서도 중국

21 『호저집』 범례 제 2 항목과 제 5 항목에서는 ‘摠一百十人’이라고 중간에 여백을 두어 표기했다. 이는 110명이 아니라, 확인 후에 정확한 숫자를 채워 넣으려고 임시로 비워둔 것이다. 실제로는 172명이다. 이밖에 책의 간주(間註)에 나오는 인명까지 합치면 모두 185명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22 『호저집』 범례 제 1항목: “一, 戊戌爲第一篇, 庚戌辛亥爲第二篇, 辛酉爲第三篇. 凡三篇之內, 摠一百十人, 而事蹟間多闕略. 其搜于簡冊, 斑斑可考之外, 或得於篇章款識之末, 或摘於敗紙模糊之餘, 所得才十之一二. 故或只有名姓, 而并无字號者, 或俱名姓字號, 而爵里事實, 寂不可詳者多矣.”

23 『호저집』 범례 제 2항목: “一, 諸人結交次第, 戊戌辛酉則皆有所據, 庚戌辛亥則先後相連, 首尾模糊, 故姑斟酌而序列之.”

24 『호저집』 범례 제 2항목: “一, 諸人列名事蹟, 用傳記列爲之, 而於師徒友朋出處之節, 詳加註解, 明其支派淵源. 下係先君贈別擬懷題帖等詩. 并有筆談者, 各附其下.”

25 박제가의 회인시에 대한 논의는 박종훈, 「조선 후기 연작 회인시의 사적 흐름과 제 양상」, 『은지논총』 제 58권(은지학회, 2019.1), 55-85면과 박종훈, 「조정 박제가의 회인시 소고」, 『한국언어문화연구』 제 30집(한국언어문화학회, 2006)에 자세히 하다.

문인에 관한 시구는 모두 실었다. 이조원(李調元), 반정균(潘庭筠) 등 11명과 주고받은 필담 자료도 찬집에 수록, 소개하였다.

수록된 인명은 대부분 박제가가 연행 당시 직접 만난 사람이다. 이밖에 건너서 듣기만 했거나, 편지와 시문만 오가고 직접 만나지는 못한 사람 8인도 그 내용을 수록했다. 제2책 ‘편집’의 경우 시와 문을 구분한 구성을 생각했으나, 체제가 혼란스러워지자 시문과 서찰, 제평의 차례로 수록했다. 구작(舊作)을 주고받은 경우는 본문보다 한 글자 내려 썼다. 편지와 답장, 원운시와 차운시는 주고받은 모든 내용을 수록해 전후 맥락을 가늠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찬집과 편집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범례의 끝에 박장암은 유종원(柳宗元)의 「선우기(先友記)」의 뜻에 견주어 『호저집』을 엮었다고 적었다. 「선우기」는 당나라 유종원이 지은 「선군묘표비음선우기(先君墓表碑陰先友記)」를 줄인 말로, 세상을 뜬 부친의 벗 67명의 명단을 기록한 글을 말한다. 선인의 교유를 자식이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로 썼다.

제1책 ‘찬집’은 과거 급제 등수와 이름 및 호, 관직과 출신 등 개별 인물의 생애 정보를 모은 인명록에 해당한다. 그들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을 경우, 박제가의 「회인시」 연작과 「연경잡절」 연작에서 끌어와 인용했고, 박제가가 그들과 나눈 필담의 담초도 찬집 속에 포함했다. 『호저집』에는 모두 11명과 나눈 필담이 수록되었다. 이렇듯 찬집은 철저히 교유 인물 소개에 초점을 두고, 객관적 생애 정보와 박제가의 시선에 포착된 판단 정보를 엮어 각 인물 관련 사실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찬집 맨 앞에는 앞서 언급하였듯 권수(卷首)를 따로 두어, 곽집환(郭執桓), 육비(陸飛), 오영방(吳穎芳), 심초(沈初), 원매(袁枚) 등 5인을 소개했다. 이들은 범례에서 밝힌 대로 직접 만나지 못했으나 건너서 듣고 흠모했던 4인과, 편지만 오가고 실제 만나지는 못한 1인을 구분한 것이다. 또 찬집 권2 끝에 왕학호(王學浩)와 유석오(劉錫五), 그리고 찬집 권3 끝 엄익(嚴翼) 등 세 사람을 부록으로 추가했다. 이 세 사람 또한 직접 만나지 못했으나 서로를 그리워하고 시문만 왕래한 사람들이다.²⁶

제2책 ‘편집’은 박제가와 각 인물이 교유한 자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이 박제가에게 보낸 시문과 편지, 제평(題評)을 차례로 신고, 박제가의 답장이 있을 경우에는 나란히 수록하였다. 해당 인물의 작품 세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 시기의 작품을 나열해 소개하기도 했다. 그 결과, 편집에는 박제가와 교유한 172명의 중국 문인들이 교류한 시문이 빠

26 『호저집』 범례 제 5항목 : “一. 凡一百十人之內, 除親見者外, 望風溯想者四, 折簡往復而未見其人者一. 聞聲相思者二, 詩筆相通而未得證交者一. 望風溯想者, 陸篠飲·沈雲椒·吳鹵林·袁簡齋是也. 折簡往復而未見其人者, 郭東山是也. 聞聲相思者, 王椒畦·劉澄齋是也. 詩筆相通而未得證交者, 嚴有堂是也. 凡八人者, 則各以次附錄. 其餘李雨邨潘秋??鐵冶亭三人者, 則先以詩文書札相通, 而後竟面接. 故皆不附錄, 直入原纂.”

짐없이 실렸고, 이 중에는 27명과 주고받은 40편의 편지도 포함된다.

또 박장암은 『호저집』을 편집하면서, 『한객건연집』에서 『정유고략』에 나오는 중국 문인과의 교유를 모두 추려 시화의 구실과 제금집(題襟集)의 역할을 겸하게 하였다고 썼다. 제금집이란 몹시 가까운 벗들끼리 창화한 시문을 차례 지워 엮어 만든 문집을 가리킨다. 당나라 때 온정균(溫庭筠)과 단성식(段成式), 여지고(余知古) 등이 서로 간에 주고받은 창화 시를 한데 모아 『한상제금집(漢上題襟集)』이란 책을 펴낸 데서 연유한다. 중국인 엄성이 홍대용과 주고받은 시문과 편지를 모아 엮은 『일하제금집(日下題襟集)』의 선례도 있다.²⁷ 박장암이 이 같은 예에 따라 제 2책을 엮고자 한 뜻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찬집은 박장암이 부친의 메모와 관련 기록을 조사해 인적 사항과 판단 정보를 인명별로 정리한 것이고, 편집은 집에 있던 자료를 찬집의 인명 순서대로 배열하여 당사자와 박제가 사이에 오간 수창 시문과 편지를 옮겨 적은 것이다. 찬집으로 인물을 파악한 뒤, 편집에서 교유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구성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27 박현규, 「『일하제금집』 편찬과 판본」, 『한국한문학연구』 47집(한국한문학회, 2011.6), 653-677면과, 구교현, 「『일하제금집』의 내용분석」, 『중국학논총』 제 69집(한국중국문화학회, 2021), 145-165면을 참조할 것.

5. 『호저집』의 주요 내용

본절에서는 『호저집』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일별하겠다. 박장암은 범례에서 자신이 『호저집』을 엮은 이유에 대해 “선군께서 여러 사람을 사모한 것과 여러 사람들이 선군을 사모한 것을 모두 그저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다(先君之慕諸人, 與諸人之慕先君, 并不可得以終泯.)”고 적었다.²⁸ 박제가 생전에 산더미같이 쌓인 중국 사인들과의 교유의 자취를 정리해둔 것이 있었으나, 박제가 1801년 4차 사행에서 돌아온 직후 사돈인 윤가기(尹可基)의 흉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종성에 유배되었고, 4년 뒤인 1805년에 해배가 되었지만 이내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만다.²⁹

당시 20세의 막내 아들 박장암이 1809년 『호저집』 편집을 서두른 것은 박제가 세상을 뜨기 전 이 자료의 정리에 대한 당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서둘러 정리하지 않으면 한중 문화교류의 산 증거인 이 자료들이 맥락 없이 흩어져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을 근심했던 듯하다.

내용 소개에 앞서 간략히 4차에 걸친 박제가의 사행 시기와 교유 양상을 정리해보자. 『호저집』의 권별 인물 목록 중, 일부 명단의 착오를 반영하여 시점별로 실제 교유한 인물의 수를 함께 제시하겠다. 일부 명단의 1차 연행에서 박제는 1778년 3월 사은겸진주사행(謝恩兼陳奏使行)에 정사 체제공의 종사관 자격으로 참여했다. 당시 이덕무도 서장관 심염조(沈念祖, 1734~1783)의 종사관이 되어 함께했다. 전년도 동지사 편에 보낸 주문(奏文)에 불손한 구절이 있다는 질책을 받고 해명차 떠난 사절이었다.

두 사람은 첫 연행에서 이조원(李調元), 이정원(李鼎元), 반정균(潘庭筠), 축덕린, 당낙우(唐樂宇) 등과 활발히 교유하며 벅찬 시간을 보냈다. 『호저집』 권1에는 24명의 교유자 명단이 들어있다. 북경에서 이덕무와 박제는 그림자처럼 동행하며 많은 경험을 한다. 당시의 일을 이덕무는 「입연기(入燕記)」로 남겼다. 특히 박제는 이 경험을 토대로 이듬해 『북학의(北學議)』를 저술하였다. 첫 번째 사행과 청조 문인과의 접촉은 박제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었다.

2차 연행은 41세 때인 1790년에 이루어졌다. 건륭제의 만수절을 맞은 진하사절단의 일원으로 5월에 출발해 10월에 돌아왔다. 당시 정사는 황인점(黃仁黈), 부사는 서호수(徐浩修)였

28 『호저집』 범례 제 10항목 : “一, 此書, 始於巾衍集, 終於貞蕤稿畧, 橫之爲緯, 豎之爲經, 可以謂詩話, 亦可以謂題襟. 先君之慕諸人, 與諸人之慕先君, 并不可得以終泯, 故擬柳子厚先友記之意, 而爲此書, 命之曰縞紵集.”

29 윤가기 흉서 사건의 전후 배경에 대해서는 김정자, 「순조 1년(1801) ‘신유옥사’와 윤행임 사사 사건-임시발 윤가기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제 61집(한국역사민속학회, 2021), 151-191면에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고 박제가와 유득공은 종사관으로 수행하였다. 이때 그는 박지원을 이어 열하(熱河)까지 가서 닷새 동안 머물렀고 철보(鐵保), 장문도(張問陶), 웅방수(熊方受), 석은옥(石韞玉), 장상지(蔣祥墀), 나빙(羅聘), 오조(吳照) 등과 교유했다. 이들 외에도 『호저집』 권2에는 곧바로 이어진 3차 연행을 포함하여 무려 93명의 교유자 명단이 나온다. 다들 당시의 쟁쟁한 문인들이었다. 유득공은 별도로 『난양록(灤陽錄)』으로 알려진 『열하기행시주(熱河紀行詩註)』를 남겼다. 3차 연행은 1790년 2차 연행에 잇달아 성사되었다.

2차 연행에서 건륭제가 정조가 6월 18일에 원자를 본 것을 축하해 직접 지은 시를 새긴 옥여의(玉如意)와 벼루 등을 선물하였다. 정조는 이에 대한 사례로 박제를 임시로 정3품 당상관직인 군기시정(軍器寺正)에 임명해 동지사의 뒤를 따르게 함으로써 박제가의 3차 연행이 성사되었다. 뜻밖에 막 헤어지자마자 북경으로 되돌아오게 된 박제는 이 기간 동안 앞서 만난 사람 외에 팽원서(彭元瑞), 기윤(紀昀), 웅방강(翁方綱) 등 고위 관료이자 명망 높은 학자들과 새롭게 교유하며, 이들에게 크게 인정받았다. 이때의 교유는 더욱 폭넓고 알차다. 박제가 귀국 후 청조 사인들과의 만남을 회억하며 「회인시(懷人詩)」 50수 연작과 「속회인시(續懷人詩)」 18수를 지었다.

4차 연행은 52세 때인 1801년 2월에 이루어졌다. 유득공과 함께 정사 조상진(趙尙鎭), 부사 신헌(申憲), 서장관 신현(申絢)을 수행하였고 북경에 32일간 머물다가 6월에 귀국했다. 주자서(朱子書)를 구입해오라는 명을 받고 사은사를 따라 나선 연행이었다. 1791년의 3차 연행 이후 10년 만에 북경에 다시 등장한 박제는 큰 환영을 받았다.

이때 78세의 기윤과 재회하고 그를 기다리던 옛 벗들과 재회한 한편, 전대흔(錢大昕), 전동원(錢東垣), 완원(阮元), 진전(陳鱣), 황성(黃成), 황비열(黃丕烈), 조강(曹江) 등과 새로 만났다. 특히 3살 연하였던 진전과의 만남이 가장 뜻깊었다. 『호저집』 권3에는 45명의 교유자 명단이 보인다. 박제는 진전에게 자신의 시문집인 『정유고략(貞蕤稿畧)』의 서문을 청했다. 1803년 진전은 벗 오성란(吳省蘭)이 펴낸 『예해주진(藝海珠塵)』에 『정유고략』을 수록해 해서 박제가의 문집이 중국에서 출판되게 했으며, 『정유고략』만 따로 출간하기도 하였다.

귀국 직후 박제는 윤가기 옥사에 연루되어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 갔고, 1804년 풀려난 이듬해 세상을 뜨고 말았다. 격랑의 와중에 4차 연행에 관한 기록은 문집에 온전히 남지 못했다. 그나마 『호저집』과 유득공의 『연대재유록(燕臺再遊錄)』이 있어 대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박제가 이처럼 네 차례의 연행에서 청조 인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당시 청 학계의 거물이었던 웅방강과 기윤은 해마다 시와 편지로 박제가의 안부를 물었음 정도였다. 기윤은 정조에게 따로 편지를 보내 박제를 사신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일까지 있다. 양주 팔괴의 하나로 중국 회화사에서 뚜렷한 위치를 남긴 나빙은 박제가의 초상화를 그려주었고, 해

어진 뒤에도 그의 생일이 되면 자리를 만들어 함께 모여 시를 짓기까지 했다.

박제가의 활약은 추사 김정희로 이어져 중국과 조선 문인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1803년 이해응(李海應)의 『계산기정(蘊山紀程)』, 심지어 1828년 박사호(朴思浩)의 『심전고(心田稿)』에서도 박제가의 연행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³⁰

다시 책의 내용으로 돌아가자. 제1책 ‘찬집’에서 인물을 소개하는 방식은 앞서 보았듯,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간략히 적은 뒤 부친과의 인연을 기재하고, 박제가가 이들을 생각하며 쓴 회인시나 증시(贈詩)를 소개하는 순서이다. 특히 박제가가 청대 문원의 영수로 높이 평가한 원매의 경우 그의 행장과 시화 및 문집을 망라하여 그 일생을 자세히 정리하고, 중간에 관련 인물이 나올 때 간주(間註)로 해당 인물의 인적 사항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중간중간 해당 인물과 나눈 짧은 대화나 일화를 소개하거나, 부친이 남긴 메모를 ‘선군기(先君記)’란 이름으로 곳곳에 남겨 두기도 하였다. 이 선군기의 존재는 박제가가 집안에 남아 있던 각종 기록들을 인명별로 묶어두었으며, 편집을 염두에 두고 생각나는 일화를 적어 둔 기록이 상당히 많았음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박장암은 박지원 등 훗날 연행간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전문(傳聞)도 따로 기록해 두었다가 참고 자료로 함께 수록하였다.³¹

각 인물의 저술이 있을 경우, 거의 빠짐없이 적었다. 이밖에 집안에 남아있던 필담의 답초를 문답 구성으로 정리 소개하였다. 교유의 현장성을 파악하고 쌍방의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필담은 각 인물의 인적 사항 소개와 수창 시문의 수록이 끝난 뒤에 실었다. 수록된 필담은 모두 11건이다. 이정원(李鼎元)·이기원(李驥元)·반정균(潘庭筠)·기운(紀昀)·공협(龔協)·최경칭(崔景稱)·정종(程縱)·진전(陳鱣)·황성(黃成)·조강(曹江)·심강(沈剛) 등과 나눈 필담이다.

필담은 서로의 시문에 대한 소감 및 평가, 관심 가는 인물의 근황에 대한 문답, 서적 구입을 위한 서책 정보 및 신간 소식, 시문 창작 및 글과 화첩 요청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불교나 미인, 남방 비적(匪賊)의 동향, 복식이나 음식, 역사 토론 등의 내용도 보인다. 상당히 길게 이어진 것도 있고, 이기원과 필담처럼 한차례의 문답만 오간 간결한 것도 있다.

한편 최근 추사 집안에 전해진 『추사필담첩(秋史筆談帖)』이 김규선 교수의 탈초로 역주하여 간행되었는데, 흥미롭게도 이 가운데 30면에 달하는 박제가의 실물 필담 답초가 들어 있

30 이해응(李海應), 『계산기정(蘊山紀程)』, 권2, 1803년 12월 16일 기사에 우연히 만난 중국 사인이 박제가가 이번에도 오지 않았느냐고 묻는 내용이 보이고, 1804년 1월 24일 일기에는 효렴 진범천(陳範川)이 박제가의 문집을 읽은 이야기를 화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또 박사호(朴思浩)의 『심전고(心田稿)』 권3, 「난설시감(蘭雪詩龕)」에도 난설 오송량(吳嵩梁)과 박제가의 문집 간행 여부를 두고 나눈 대화가 있다.

31 『호저집』 찬집 권1, 「임고(林臯)」 항목에서 박지원이 북경에서 그를 만나자 박지원에게 대뜸 이덕무와 박제가의 안부를 물으며, 참으로 맑고 시원스러우며 고상하고 아름다운 선비라고 칭찬한 대목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음이 확인되었다.³² 1790년과 1801년, 박제가가 연행 도중 이정원, 기운, 나병 등과 직접 나눈 친필 답초의 원본이다. 이것은 본래 당연히 『호저집』에 포함되어야 할 자료인데 빠졌고, 엉뚱하게 추사의 집안으로 흘러 들어가 보존되었다. 그 연유는 이제 와서 알기가 어렵다. 『호저집』 편찬 이전에 추사 집안에서 빌려 갔다가 미처 돌려주지 않았거나, 박제가가 제자인 김정희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한편 대단히 어지러운 난필로 적혀 있는 박제가의 답초를 보면, 막상 박장암이 『호저집』에 수록한 답초의 모양도 이것과 큰 차이가 없었으리란 생각이 들어, 그 정리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별도의 논고가 필요하다.

『호저집』 제2책 ‘편집’ 부분은 내용이 대단히 풍부하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박제가의 연경 인맥과의 교류록에 해당한다. 제1책 찬집에 수록된 순서대로 각 인물들이 박제가에게 준 시문을 배열하고 당시 상황을 함께 설명했다. 박제가가 그 시에 차운한 시나 원운시가 있을 경우 한 줄을 내려 구분한 뒤 병기하여 소개했다. 시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면 간주(間註) 형식으로 시의 중간이나 끝부분에 보탰다.

한 사람과 여러 차례 만나 교유한 경우는 맨 처음 만난 권차(卷次)에 넣고, 그와 주고받은 이후의 시문도 해당 권차에 그대로 병렬해서 소개하였다. 박제가와 깊은 우정을 나눈 이정원(李鼎元)의 경우, 그가 박제가의 『춘운출협집(春雲出峽集)』과 『열상주선집(洌上周旋集)』에 제(題)한 시부터 시작해 박제가가 귀국 후 인편에 부탁한 내용을 담은 시, 박제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쓴 「곡초정(哭楚亭)」을 싣고, 시 뒤편에 시에 얽힌 자세한 전후 사정을 적어두었다. 박제가의 벗 유득공이나 이후 사행에서 박제가의 소식을 전달한 사람에게 보낸 시와 편지도 참고 자료로 함께 수록했다. 박제가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박제가에게 보낸 편지 3통을 절록해 수록한 뒤, 아들 박장암에게 보낸 3통의 편지를 함께 실어 전후 경과를 알 수 있게 했다. 그밖에 박제가가 소장했던 축덕린의 소조(小照)와 동기창(董其昌)의 「천마부권(天馬賦券)」에 쓴 발문도 수록하였다. 이정원과 박제가 사이에 오간 시문 수창의 전모를 시기별, 양식별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았다.

이조원, 반정균 등의 경우도 같다. 그들이 박제가에게 보낸 편지를 앞에 놓고, 박제가가 먼저 보낸 편지나 나중에 한 답장을 덧붙여 두 사람 간 왕래의 합을 맞춰볼 수 있게 하였다. 이 중에는 현재 전하지 않는 박제가의 『명농초고(明農草稿)』나 『초정시고(楚亭詩稿)』, 『열상주선집』 등에 대한 서문이나 관련 내용도 자세하다. 『열상주선집』의 경우 박제가와 이덕무 등이

32 김정희·박제가 편, 탈초·역주·해제 김규선, 『탈초 역주 추사필담첩 2』(추사박물관, 2022). 이 책에 박제가 답초의 원본 영인과 탈초 및 해석이 모두 들어 있다.

『한객건연집』 이후 후속으로 준비했던 회심의 선집이었으나 현재 실물이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찬집 속에 여러 사람이 쓴 『열상주선집』에 관한 서문과 발문, 평어 등이 다채롭게 수록되어 있어, 후속 논의가 요청된다. 축덕린 항목의 경우, 1790년 3월 교서관의 임무를 띠고 심양에 머물렀던 축덕린이 당시 왕복하는 길에 지은 시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박제가에게 선물한 적이 있다. 박장암은 특별히 이 시집에서 13편을 추려 전문을 수록했다.

찬집 권2에 보이는 기운(紀昀), 옹방강(翁方綱)과의 교유도 흥미롭다. 기운은 박제가와 유득공을 만나본 며칠 뒤 조선 사신단이 머물렀던 옥하관(玉河館)으로 직접 찾아올 만큼 강한 호감을 보였다. 특히 박제가에 대한 애착은 각별하여, 그가 귀국한 후 조선 조정을 통해 시를 보내오기도 했다. 옹방강의 경우 1789년 1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소동파 생일잔치 모임인 수소회(壽蘇會) 또는 동파제(東坡祭)를 개최하면서 박제가를 초대한 일화가 수록되었다. 박제가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매년 이 집회를 열어 죽순 포를 올려 제를 지내고, 명사들을 초청하여 시를 지었다. 이는 뒤에 김정희, 신위, 박영보, 조면호 등으로 이어지는 모소(慕蘇) 열풍의 첫 출발이기도 한 점에서 한중 문화교류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³³

이밖에도 40통에 달하는 수록 편지에는 당시 조선의 사행과 청조 문인 간 교류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풍부하다. 서로 간에 오간 선물과 만남의 형태, 서적 교류와 시문의 왕래에 이르기까지, 그 현상이 생생히 되살아나는 느낌이다. 그들의 문예 취향과 문화 인식이 드러날 뿐 아니라, 주요 관심사는 토론의 주제로 이어졌다. 만남이 새로운 만남을 불러오고, 중흥으로 얽혀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던 이 모든 만남이 박제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청조 문인들이 시문을 통해 박제가에게 바친 헌사는 결코 의례적인 것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중과 경의를 깔고 있다. 당시 한중 문사들은 평등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교류를 이어갔다. 더욱이 이들 자료의 몇몇 부분은 중국 쪽 기록에서도 이미 사라진 것들이어서, 『호저집』의 기록은 18세기 한중 지식인들이 세운 문예공화국의 눈부신 성과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근거가 된다. 이런 면에서도 『호저집』은 18세기 한중 문화교류의 실상을 온전히 담아낸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33 수소회(壽蘇會) 또는 동파제(東坡祭)에 대한 관련 논의는 정민, 「19세기 동아시아의 모소(慕蘇) 열풍」, 『한국한문학회』 제 49집(한국한문학회, 2012), 397~430면에서 살필 수 있고, 최근 왕연이 「18~19세기 조선 지식인 수소회(壽蘇會)에 대한 수용과 전파」에서 이에 대해 본격 논의한 바 있다.

6. 맺음말

『호저집』의 자료 가치와 간행 의의에 대해 정리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하겠다.

첫째, 『호저집』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풍부한 한중 문화 교류의 생생한 증언집이다. 무려 172명에 달하는 중국 사인의 인적 사항과 관련 시문을 수록해, 내용이 호한하고 방대하면서 교류의 실상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자료의 보고이다. 이조원, 반정균, 기운, 옹방강 등 쟁쟁한 문인 외에도 중국 쪽 사료에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많은 인물들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어 건륭·가경 연간 청대 지식계의 전반적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요긴하다. 이를 통해 한중 문화 교류사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둘째, 『호저집』에는 박제가의 문집에도 누락된 자료가 많아, 복학과 연구의 빠진 퍼즐을 채울 수 있게 해준다. 책에 여러 번 등장하는 『열상주선집』은 실물이 남아 있지 않은데 『호저집』에 이조원, 반정균, 축덕린 등의 서문과 평어 실려 있다. 특히 편지와 필담 자료에는 생생한 분위기와 함께 당시 지식인들의 학적 관심사가 고스란히 담겨있어 그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호저집』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조청(朝淸) 지식인의 교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재현하고 있는 점은 무엇보다 이 자료집의 가치를 높여준다.

셋째, 당대 한중 지식인의 교류 계보와 맥락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집이라는 사실이다. 『호저집』은 흥대용에서 비롯된 전대의 만남을 잇고 김정희, 신위로 이어지는 성대한 접속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한중 문화교류상 그 가치가 대단하다. 기록 속의 만남은 당시 이들의 교류가 의례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선 지식인이 중국의 문인들에게 높은 인정을 받아 진실한 교류를 나눈 만남이었음을 진실되게 증언하고 있다. 당시 박제가가 중국 문인들에게 보여준 문화적 자신감과 그들을 압도하는 높은 식견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우리는 『호저집』을 통해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고 또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넷째, 특별히 옹방강과 완원, 조강이나 황비열 같은 학자들을 매개로 다음 세대 김정희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한 경과를 알 수 있게 해준다. 19세기 초, 김정희와 신위 등에 의해 주도된 옹방강 계열 지식인들과의 교류와 인맥은 실제로는 박제가의 인맥에서 출발한 것이 많다. 하지만 이들 중 많은 인물들의 문집이 중국에도 남아 있지 않아, 오로지 『호저집』에 남은 정보가 전부인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중국 건륭 가경 연간 지식계의 정황을 보정하는 자료로서의 구실이 있다.

다섯째, 이들 사이에 오간 시문과 예물, 서간 등을 통해 당시 한중 지식인의 문화 취향과 공통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적이거나 시문, 또는 자신이 거처하는 공간의 제액(題額)을 요청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시문집에 서문 또는 발문을 써줄 것을 요청한 내용도 많다.

도서 요청이나 금석문 탁본 등도 주요 관심 대상이었고, 그밖에 문방사우나 지역 특산품도 활발히 오갔다. 박제가는 그들에게 조선의 것과 일본도를 선물하기도 했다. 서로 간에 초상화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생일을 기억해서 행사를 갖기도 했다.

이렇듯 『호저집』에는 18세기 조청 문인의 교류 양상과 그 세부를 입체적으로 조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있다. 금번 『호저집』의 최초 완역을 계기로 박제가를 중심으로 한 한중 문화교류의 전반적 흐름과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 최근 과천 추사박물관에서 펴낸 박제가 필담 답초의 발굴 소개로, 『호저집』의 연구는 더욱 학계의 본격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박제가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추사자료의 귀향』, 과천문화원, 2008.
 『후지쓰카 기증자료 목록집 II』, 과천문화원, 2009.
 구교현, 『일하제금집』의 내용분석, 『중국학논총』 제 69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21, 145-165면.
 김정자, 『순조 1년(1801) '신유옥사'와 윤행임 사사 사건-임시발 윤가기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제 61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21, 151-191면.
 김정희·박제가 편, 탈초·역주·해제 김규선, 『탈초 역주 추사필담첩 2』, 추사박물관, 2022.
 박종훈, 『조선 후기 연작 회인시의 사적 흐름과 제 양상』, 『운지논총』 제 58권, 운지학회, 2019.1, 55-85면.
 박종훈, 『조정 박제가의 회인시 소고』, 『한국언어문화연구』 제 30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박현규, 『일하제금집』 편찬과 판본, 『한국한문학연구』 47집, 한국한학회, 2011.6, 653-677면.
 안대회, 『조정 박제가의 연행과 일상속의 국제교류』, 『동방학지』 제 14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3, 37-64면.
 안대회, 『호저집』,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집』, 문예원, 2012, 843-848면.
 왕연, 『18~19세기 조선 지식인 수소회(壽蘇會)에 대한 수용과 전파』
 유득공 저, 김윤조 외 옮김, 『고운당필기』, 한국고전번역원, 2020.
 유본학, 『문암문고』 건곤2책, 수경실 소장.
 정민, 『19세기 동아시아의 모소(慕蘇) 열풍』, 『한국한문학연구』 제 49집, 한국한학회, 2012, 397-430면.
 정민, 『18세기 한중지식인의 문예공화국』, 문학동네, 2014.
 후지쓰카 지카시 지음, 윤철규 외 옮김, 『추사 김정희 연구-청조문화 동전의 연구 한글완역본』, 과천문화원, 2008.

01

초정 박제가의 청대 문인과의 교유 양상 일면

- 《貞蕤閣集》과 《縞紵集》을 중심으로 -

박중훈
(조선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 청대 문인과의 교유 및 교류 양상 개괄
 3. 청대 문인과의 교유 양상
 4. 나가는 말
- 참고문헌

초정 박제가의 청대 문인과의 교류 양상 일면

- 《貞蕤閣集》과 《縞紵集》을 중심으로 -

박종훈
(조선대학교)

1. 들어가는 말

楚亭 朴齊家(1750~1805)는 18세기 대표적인 詩人이며 詩論家이고 청대 문인과의 교류와 교류에 있어 독보적인 자리를 점하고 있다. 柳琴(1741~1788)은 1776년 박제가를 비롯한 柳得恭(1748~1807)과 李書九(1754~1825), 李德懋(1741~1793) 등 4인의 초기 시작품을 선집한 《韓客巾衍集》을 중국 문사에게 소개한 바 있다. 이로부터 초정은 조선뿐만 아니라 淸나라에서도 명망이 자자해졌는데, 《한객건연집》에는 李調元和 潘庭筠의 序文 및 개별 작품에 대한 세세한 평이 실려 있다.³⁴

이를 계기로 초정은 중국 문인과 활발하게 교류와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초정은 총 4차례 여행 체험을 통해, 청의 문인과 깊이 있는 교분을 맺었는데, 직간접으로 교류했던 인물이 100명이 넘는다. 초정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懷人詩³⁵와 〈燕京雜絕〉³⁶ 등의 작

34 그간 《한객건연집》에 대한 연구 성과도 일정 정도 축적되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남재철, 〈薑山 李書九의 初期詩 研究 : 《韓客巾衍集》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박현규, 〈조선 四家詩 《韓客巾衍集》과 청 李調元 《雨村詩話》와의 원문 수록 관계〉, 《서지학보》 권21, 한국서지학회, 1998; 이윤숙, 〈漢詩四家の 初期詩 研究 : 《韓客巾衍集》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박종훈, 〈楚亭 朴齊家 初期 詩 考察-《韓客巾衍集》의 評語를 中心으로-〉, 《한국언어문화》 35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박종훈, 〈冷齋 柳得恭의 초기 詩 考察-《韓客巾衍集》을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연구》 23권, 한국시가문화학회, 2009; 박종훈, 〈薑山 李書九의 初期 詩 考察-《韓客巾衍集》을 중심으로-〉, 《동방학》 16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9; 박종훈, 〈炯庵 李德懋의 初期 詩 考察-《韓客巾衍集》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30권, 근역한문학회, 2010; 박종훈, 〈漢詩 “四家”의 전원시 비교 고찰-《韓客巾衍集》을 중심으로-〉, 《동방학》 18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0; 김원준, 〈《韓客巾衍集》을 통해 본 炯菴 李德懋 시의 특징-영남대학교 도남문고 소장 “蓬壺山房”본을 대상으로-〉, 《민족문화논총》 54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3; 박종훈 역, 《韓客巾衍集》, 문진, 2011.

35 초정의 회인시는 조선에서의 연작 회인시의 출발점에 있다. 〈戲做王漁洋歲暮懷人〉 60수와 〈懷人詩仿蔣心餘〉 50수, 〈續懷人詩〉 18수 등 총 128수의 회인시를 창작한 바 있다. 이 회인시는 당대 교류했던 조선의 문인뿐만 아니라, 滿洲인 7인과 回回王子를 포함하여 총 56인의 청대 문인을 대상으로 했다.

36 〈燕京雜絕〉은 《정유각집》 권4에 실려 있는 〈燕京雜絕. 贈別任恩受姊兄. 追憶信筆, 凡得一百四十首.〉라는 작품이다. 〈연경잡절〉에서도 청대 문인 21인을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다.

품에 그러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초정의 활발한 교류는 깊이나 너비에서 선배인 洪大容(1731~1783)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며, 이후 조선 문인인 金正禧(1786~1856), 李尙迪(1804~1865), 金奭準(1831~1915) 등에게도 그대로 전승되었다.³⁷ 이처럼 초정은 18세기 후반 조선과 淸의 학술 및 민간 교류의 주역으로, 유구한 한중 관계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초정의 이러한 교류와 교류에 대해선 적지 않은 선행 연구가 보고되었는데, 《貞蕤閣集》에 실린 회인시나 〈연경잡절〉이란 작품이 그 중심에 있다.³⁸ 그러나 《정유각집》에 실린 청대 문인 관련 작품은 漢詩라는 압축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각 인물이나 그 인물과의 개인적인 교류 및 작품을 지은 당대 상황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물론 각 작품 아래 짧은 부기를 통해, 어느 정도 각 인물이나 작품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부연 설명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난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 성과를 심분 활용하고 초정의 아들인 朴長醜(1790~?)이 초정이 청대 문인과 교류했던 기록을 편찬한 《縞紵集》을 통해, 《정유각집》에 수록된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고취시킴과 동시에 초정과 청대 문인의 교류와 교류 양상을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 고구해보고자 한다. 《정유각집》에 수록된 작품을 통해 다소 피상적으로 접근했던 청대 문인과의 교류와 교류 양상의 일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전면적인 검토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나, 일면 만을 살핀 것은 본고의 한계이다. 한 점의 고기로 온 술의 풍미를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

37 김정희, 이상적, 김석준의 청대 문인과의 교류 양상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후지츠키 치카시 지음/ 후지츠키 아키나오 역음/ 윤철규·이충구·김규선 옮김, 《秋史 金正禧 研究》, 과천문화원, 2009; 李春姬, 〈藕船 李尙迪과 晚淸 文人の 文學交流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박종훈, 〈19세기 朝淸 문인들의 교류 양상-藕船 李尙迪의 懷人詩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2집, 동양한문학회, 2011; 박종훈, 〈李尙迪의 <西笑編> 一考〉, 《한국시가연구》 50집, 한국시가학회, 2020; 박종훈, 〈19세기 조선 중인들의 국내외적 활동 양상-小棠 金奭準의 懷人詩를 중심으로-〉, 《동방학》 25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이상적과 김석준은 초정처럼 청대 문인을 대상으로 연작 회인시를 지은 바 있는데, 그 시발점에 바로 초정이 있었다.

38 초정의 회인시와 〈연경잡절〉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일남, 〈박제가 회인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6집, 한국한문학회, 2005; 박종훈, 〈초정 박제가의 懷人詩 小考〉, 《한국언어문화》 30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박종훈, 〈조선 후기 聯作 懷人詩의 사적 흐름과 제 양상〉, 《은지논총》 58집, 은지학회, 2019; 김병민, 〈‘연경잡절’에 반영된 초정 박제가의 문화의식〉, 《다산학보》 13집, 다산학연구원, 1992; 황인건, 〈〈燕京雜絕〉에 나타난 박제가의 중국 체험 고찰〉, 《한국시가연구》 20집, 한국시가학회, 2006; 박종훈, 〈초정 박제가의 연경잡절 일고〉, 《한문학논집》 27집, 근역한문학회, 2008. 이외에도 단편 논문을 통해 교류 양상에 대한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 청대 문인과의 교류 및 교류 양상 개괄

초정은 《한객건연집》이 청나라에 소개된 이후, 총 4차례 연경에 다녀온 바 있다. 연행의 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次數	시 기	자격·목적
1차	1778년(29세) 3월~7월	正使 蔡濟恭을 수행
2차	1790년(41세) 5월~10월	乾隆帝 萬壽節 進賀使節團의 從事官
3차	1790년(41세) 10월~1791년(42세) 3월	軍器寺正
4차	1801년(52세) 2월~6월	朱子書 구입

이를 기반으로 다채로운 청대 문인과의 교류와 교류가 이루어졌다. 《정유각집》에 수록된 청대 문인과 관련된 작품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권 수	작품명	대상인물	비고
시집 권1	題幾何室所藏雲龍山人小照	李調元	1차 연행 이전
	題洪湛軒所藏潘舍人墨蹟	潘庭筠	
	病中有懷雨村先生	潘庭筠	
	聞澹園郭氏入道山七首	郭執桓	
	和仲牧, 次蘭坵先生元夕.	潘庭筠	
	戲傲王漁洋歲暮懷人六十首	李調元·陸飛·潘庭筠·鐵保·博明·吳穎芳·沈初·袁枚	
	東潞河, 贈鮑紫卿.	鮑紫卿	1차 연행 과정
次金科豫	金科豫		
分談字贈金科豫	金科豫		
시집 권2	次韻唐員外鷺港贈別	唐樂宇	1차 연행 이후
시집 권3	嘉山詩姬六娥索詩, 走筆.	蔡炎林	2차 연행 과정
	熱河, 次鐵侍郎寄示韻.	鐵保	
	次韻潘輝益等, 代副使作.	潘輝益	
	翰林館, 同張船山熊吉士介茲石修撰琢菴蔣丹林食蟹共賦.	張問陶·熊方受·石韞玉·蔣祥墀	
	題羅兩峯聘畫梅扇面, 贈錢秀才東壁歸嘉定.	羅聘·錢東壁	
	題白菴吳石湖課耕圖卷	吳照	
	題兩峯畫竹蘭草	羅聘	
	爲兩峯內子方氏婉儀書其半格詩卷	羅聘	
	別船山吉士	張問陶	
	爲丹林庶常, 次其大人雪洞詩韻. 雪洞在湖北, 有林園之勝. 天下和之者, 千有餘人矣.	蔣祥墀	
題船山書扇見贈	張問陶		
題王椒畦畫扇見贈	王學浩		
次韻禮部尙書曉嵐紀公詩扇見贈	紀昀		

권 수	작품명	대상인물	비고
	次韻辛筠谷翰林見贈之一	辛從益	
	題羅兩峯先生鬼趣圖卷	羅聘	
	贈別熊翰林孝廉兄弟二首	熊方受·熊方訓	
	贈張船山歸泗川	張問陶	
	別後寄羅兩峯	羅聘	
	寄王萃溪秀才. 萃溪爲余未面, 而刻寄姓名. 表德二小印, 求余書扇. 後定交於兩峰畫所.	王肇嘉	
	寄李雨村	李調元	2차 연행 이후
	寄翁侍郎	翁方綱	
	寄贈江秋史	江德量	
	寄贈宋芝山	宋葆淳	
	[附]和貞齋先生	蔡炎林	3차 연행 과정
	次韻翁覃溪落葉詩帖	翁方綱	
	題曾賓谷西溪漁隱卷	曾燠	
	題船山雪中狂飲圖	張問陶	
	題崔景偁竹樓圖卷	崔景偁	
	羅兩峯人日生日	羅聘	
呈彭雲楣	彭元瑞		
和苻莊詩扇	龔協		
시집 권4	懷人詩, 仿蔣心餘.	彭元瑞·紀昀·翁方綱·鐵保·玉保·吳省欽·吳省蘭·陳崇本·李調元·祝德麟·潘庭筠·李鼎元·羅聘·孫星衍·洪亮吉·伊秉綬·龔協·汪端光·萬應馨·馮應榴·江德量·陸費墀·宋鳴珂·吳廷燮·吳照·張道渥·蔣和·葛鳴陽·孫衡·張問陶·熊方受·石韞玉·蔣祥墀·王學浩·曾燠·曹振鏞·嵇承羣·宋葆淳·王寧焯·章照·沈心醇·莊復旦·豐殷德·完顏魁倫·成榮·興瑞·回回王子·王肇嘉·錢東壁·張伯魁	3차 연행 이후
	續懷人詩十八首	彭元瑞·紀昀·翁方綱·羅聘·張道渥·鐵保·陳崇本·孫衡·龔協·伊秉綬·洪亮吉·孫星衍·潘庭筠·江德量·張問陶·蔣和·吳照·王寧焯	
	燕京雜絕. 贈別任恩受姊兄. 追憶信筆, 凡得一百四十首.	紀昀·翁方綱·羅聘·孫星衍·洪亮吉·鐵保·玉保·伊秉綬·陳崇本·龔協·汪端光·蔣和·孫衡·張問陶·張道渥·李鼎元·吳照·熊方受·潘庭筠·李調元·潘有爲·江德量·戴震·孔憲培	
	題李墨莊中翰琉球奉使圖	李鼎元	
	題言象升秀才秋江月夜垂釣小照	言朝標	
	黃蕘園祭書圖歌	黃丕烈	
	題桐江殿丞魚麥圖	章照	
시집 권5	追次曉嵐見寄詩韻. 二月六日.	紀昀	4차 연행 이후
문집 권1	序文	李調元	
	序文	陳鱣	
문집 권2	洪亮吉傳	洪亮吉	
문집 권3	陳簡莊尙友圖贊	陳鱣	
문집 권4	與郭澹園執桓 與李羹堂調元 與潘秋庵	郭執桓 李調元 潘庭筠	1773년

시집 권1에 실린 작품 중, <東潞河, 贈鮑紫卿>, <次金科豫>, <分談字贈金科豫>라는 3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1차 연행인 1778년 이전에 지은 것으로, 아직 面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시집 권1의 <戲倣王漁洋歲暮懷人六十首>에서 8인의 청대 문인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면교 이전에 지은 작품이다.³⁹ 1776년 柳琴이 《한객건연집》을 가지고 연경에 가서 李調元和 潘庭筠의 서문과 평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면교 이전에도 서로 간 편지와 시문을 교류했었다.

이후 4차례 연행을 통해 청대 문인을 작품 속에 적극적으로 담아내었다. 시집 권3에는 淸蔣士銓의 懷人詩를 본떠 지은 <懷人詩仿蔣心餘> 50수가 실려 있는데, 청대 문인 50인만을 대상으로 했다. 시집 권4에는 청대 문인 18인을 대상으로 한 <續懷人詩> 18수 있으며, <燕京雜絕>에서는 당시 연경의 풍물뿐 만 아니라, 청대 문인 21인에 대해서도 소개한 바 있다. 《정유각집》에서 언급한 청대 인물은 총 70명으로 다음과 같다.⁴⁰

葛鳴陽·江德量(3)·孔憲培·龔協(4)·郭執桓(2)·紀昀(5)·金科豫(2)·羅聘(9)·唐樂宇·戴震·李鼎元·萬應馨·博明·潘有爲·潘庭筠(8)·石韞玉(2)·成策·孫星衍(3)·孫衡(3)·宋鳴珂·宋葆淳(2)·辛從益·沈心醇·沈初·言朝標·吳省蘭·吳省欽·吳穎芳·吳廷燮·吳照(4)·玉保(2)·翁方綱(5)·完顏魁倫·王寧焯·汪端光(2)·王寧焯·王肇嘉(2)·王學浩(2)·熊方受(4)·熊方訓·袁枚·陸飛·陸費墀·伊秉綬(3)·李鼎元(9)·張道渥(3)·張問陶(8)·張伯魁·莊復旦·蔣祥墀(3)·蔣和(3)·章煦(2)·錢東璧(2)·曹振鏞·曾燠(2)·陳崇本(3)·陳鱣(2)·蔡炎林·鐵保(5)·崔景偁·祝德麟·彭元瑞(3)·鮑紫卿·豐殷德·馮應榴·嵇承羣·洪亮吉(4)·黃丕烈·回回王子·興瑞

초정의 1801년 4차 연행과 연행 이후의 기록은 《정유각집》에 담겨 있지 않다. 4차 연행에서 귀국한 후 바로 凶書사건에 연루되어 유배 길에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호저집》에는 4차 연행 때의 기록이 적지 않게 실려 있다.

《호저집》은 초정의 삼남 朴長翰이 부친인 초정이 4차례 연행하면서 청대 문인과 주고받은 기록을 집대성한 것이다. 순조 9년(1809)에 초고를 완성했고 이후로도 관련 기록을 끊임없이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초정의 4차례 연행 일정에 맞추어, 각 시기 연행 과정에서 교류한 이들에 대한 인물정보를 간략하게 때론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어 각 인물의 대표적인 작품이나 초

39 <戲倣王漁洋歲暮懷人六十首>는 46인의 조선 문인이 중심에 있었다.
40 괄호 안의 숫자는 거론된 횟수이다.

정과 연관 있는 작품 및 이들 인물과 관련된 초정의 작품을 순차적으로 기록했다. 또한 교류 정황을 상세하게 소개하기 위해 연행 당시 나누었던 필담도 기록해 두어, 교류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호저집》은 총 2책으로, 《호저집》 1책은 卷首, 권1(戊戌), 권2(庚戌, 辛亥), 권3(辛酉)으로 구성되어 있다. 2책은 권1, 권1(戊戌), 권2(庚戌, 辛亥), 권3(辛酉)으로 되어 있는데, 1책에서 각 시기마다 언급한 청대 인물과 관련된 기록을 모아두었다. 청대 문인이 초정과 관련해서 지은 작품, 초정이 청대 문인을 대상으로 지은 작품 및 초정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각 청대 문인이 지은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호저집》에 실린 작품이나 필담에 대한 상세한 접근은 차치하고 각 연행 시기에 교류했다고 언급한 인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 기	대상 인물
戊戌(1778) - 1차 연행	金科豫·金科正·金淳·李點·魏錕·郭維翰·博明·郭文煥·王如·王爾烈·宣聰·何寧·徐紹芬·林臯·胡迥恒·李鼎元·李驥元·李調元·潘庭筠·祝德麟·唐樂宇·蔡會源·沈心醇·鮑紫卿·鐵保
庚戌(1790) - 2차 연행 / 辛亥(1791) - 3차 연행	彭元瑞·紀昀·翁方綱·吳省欽·吳省蘭·陳崇本·羅聘·伊秉綬·龔協·汪端光·孫星衍·洪亮吉·萬應馨·馮應榴·江德量·陸費墀·宋鳴珂·吳廷燮·吳照·張道渥·蔣和·張問陶·熊方受·石韞玉·蔣祥墀·曾燠·曹振鏞·嵇承羣·宋葆淳·王寧焯·章煦·莊復旦·王肇嘉·錢東璧·潘有爲·孫衡·張伯魁·崔景偁·成策·興瑞·玉保·完顏魁倫·豐紳殷德·葛鳴陽·辛從益·鄒登標·王濤·蔡炎林·寧泰·湯兆祥·湯潘·鄂時·齊佩蓮·周鄂·陳希濂·曹日瑛·鄒晉涵·陳澍·劉塘·楊心鎔·楊紹恭·余國觀·余維翰·周升桓·吳明煌·吳明彥·吳鳴旒·吳焯·徐元·林瑤光·湯錫智·周有聲·王枚·李秉睿·李樞煥·章學濂·符泰交·朱文翰·張問行·程樞·顧宗泰·嚴蔚·陳淮·姚雨巖·朱爾廣額·回回王子·陶金鍾·潘輝益·武輝璠·曹銳·莊會琦·王學浩·劉錫五
辛酉(1801) - 4차 연행	錢大昕·錢東垣·阮元·陳鱣·黃成·言朝標·言可樵·夏文燾·夔夔龍·陳森·虞衡·崔琦·盛學度·黃丕烈·潘煜·裘鏞·朱鎬·毛祖勝·孫琪·曹江·彭蕙支·張燮·劉鑾之·王霽·張玉麒·劉大觀·唐晟·楊嗣沅·葉廷策·李聯輝·傅應璧·康愷·陸慶勳·周松年·王蘭·陳蒿·汪之琛·孫銓·汪彥博·沈剛·董桂敷·華楫·褚通經·沈西·吳詒穀·嚴翼·陳文述·吳衡照

《호저집》의 '凡例'에서 언급한 것처럼 총 172인이다. 《호저집》에서 언급한 청대 문인의 수는 《정유각집》에서 언급한 수보다 월등하고 그 내용 또한 상세하여, 초정의 구체적인 교류 양상을 살피는데 《호저집》은 소중한 자료이다.

《호저집》에 수록된 작품 중, 청대 문인의 작품은 《정유각집》에 실려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호저집》에 수록된 초정의 작품은 회인시나 <연경잡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유각집》에 수록되지 않은 초정의 작품으로는 <寄雨邨詩>(1책 권1), <寄秋垞詩>(1책 권1), <書于蘭垞>(1책 권1) 등 몇 작품에 불과하다.

3. 청대 문인과의 교유 양상

청대 문인과 관련된 작품에 대해 《정유각집》에서도 짧은 부기를 통해 이해도를 고취시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체적인 교유 양상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호저집》에는 필답이나 차운한 작품들이 산재하여 교유의 정황을 어느 정도 재구할 수 있다.⁴¹ 본 장에서는 《정유각집》과 《호저집》에 수록된 초정과 청대 문인의 기록 및 청대 문인의 개인문집에 수록된 기록까지 더하여, 구체적인 교유 정황을 재구해 보겠다.

1) 교유 현장에 대한 기록

鮑紫卿이 우리에게 의자를 내주더니 차를 내오라 하고 향을 피우며 필답을 나누었다. 포자경이 나에게 시를 청하므로, 나는 우리나라 부채에다가 律詩 한 수를 써서 주었다. 그중 한 聯은 이러하였다.

만 리의 생애를 春水宅에 맡겨두고	萬里生涯春水宅
하룻밤 꿈속 닳은 白鷗鄉에 맴도네.	一天魂夢白鷗鄉

포자경이 이 구절을 극찬하면서 말했다. “春水宅은 張志和의 배 이름이니 실로 안 알려진 것이 아니지만, 白鷗鄉은 바로 근래 강남땅의 배 이름인데, 공께서 대체 어디에서 이를 아셨습니까.” 내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포자경이 말했다. “돌아가면 마땅히 새겨서 기둥에 걸어야겠습니다.” 이때는 4월하고도 초열흘이 지난 때여서 바람이 맑고 햇볕이 아름다웠다. 주렴을 드리운 들창 너머로 멀리 갈매기와 구름 안개, 누대와 사람들, 그리고 백사장과 방죽, 바람맞은 돛단배가 출몰하는 것을 바라보자니 아득히 물 위에 있는 것을 잊을 지경이었다. 마치 이내 몸이 산림의 사이에 깃들여 단청 안에서 눈길을 놀리는 것만 같았다.⁴²

《호저집》 1책 권1에 실린 鮑紫卿 관련 기록의 일부분이다. 포자경의 요청에 초정이 부채에

41 《호저집》에는 교유했던 청대 문인과 관련된 초정의 작품이 부기되어 있는데, 이는 박장암이 초정의 회인시나 〈연경잡절〉에 수록된 것을 부기한 것이다.
42 《호저집》 1책 권1 “設椅命茶, 燒香筆語. 紫卿請詩. 余以東扇書贈一律, 其一聯有萬里生涯春水宅, 一天魂夢白鷗鄉之句. 紫卿極讚之曰, 春水宅是張志和船名, 諒非隱僻, 白鷗鄉即近代江南船名, 公何從知之. 余謝以偶然. 紫卿云, 歸當刻揭楹帖也. 時四月旬後, 風日清美, 簾牖之外, 遙見鷗鳥雲煙樓臺人物, 與夫沙隄風帆之出沒, 悠然忘其爲水, 若寓身山林之間, 而遊目丹青之內.”

써준 율시는 《정유각시집》 권1에 실린 〈東潞河, 贈鮑紫卿〉이란 작품으로,⁴³ 그 중 5,6구에 대한 포자경의 평이 기록되어 있다. 《정유각집》에는 작품만 수록되어 있을 뿐, 작품을 짓게 된 정황이나 작품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특히 ‘春水宅’이나 ‘白鷗鄉’에 대해서는 그 의미 파악이 쉽지 않았다. 반면, 《호저집》에는 1차 연행 당시 4월에 지은 작품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작품을 짓게 된 연유와 구절에 대해서도 상세한 언급이 이루어져, 초정의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뿐만 아니라, 교유 정황에 대한 이해도 깊이를 갖추게 되었다.

《정유각시집》 권3에는 崔景偁과 관련된 〈題崔景偁竹樓圖卷〉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다.⁴⁴ 이 작품은 초정이 최경칭의 《죽루도권》에 쓴 것인데, 작품을 쓰게 된 정황은 실려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호저집》 1책 권2에 다음과 같은 초정의 기록이 보인다.

선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芝山 宋葆醇의 처남이다. 지산이 최경칭을 위하여 《竹樓圖》를 그렸고 張問陶가 시를 지었다. 羅兩峯도 또한 그림 한 폭을 그리니 송보순의 그림과는 배치가 서로 같지 않았다. 최경칭은 나이가 젊는데도 시에 능하였으므로 翰林 洪亮吉이 그가 훗날 시로 이름나겠다고 칭찬했다.”⁴⁵

최경칭: 저에게 《죽루도》가 있는데 양봉 나빙 선생께서 손수 그린 것입니다. 삼가 그대의 시를 구합니다.

선군: 시를 그다지 잘 짓지 못하니, 시간을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최경칭: 이 그림은 반드시 대작을 얻어야만 무게를 더할 것입니다.

선군: 이 두 분은 모두 당대의 명사이니 감히 그 가운데에 참여하지 못하겠군요.

최경칭: 이처럼 큰 재주를 지니신 분이 보잘것없는 그림에 시를 쓰는 것이 걸맞지 않아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대의 아낌을 받았기에 감히 외람되지만 저를 위해 이 그림에 시를 써주십시오.

선군: 王元之가 귀양 살던 곳에 대나무 누각이 있었지요. 선생은 나이가 젊고 솜씨

43 《정유각시집》 권1 〈東潞河, 贈鮑紫卿〉 “有客乘舟到夕陽, 自言嫁娶住蘇杭. 南朝寺外鐘聲遠, 西子湖頭樹影長. 萬里生涯春水宅, 一天魂夢白鷗鄉. 三韓使者腸堪斷, 回首烟波入渺茫.” 필답의 과정에서는 5,6구만을 언급했지만, 박장암은 전체 작품을 필답 아래 다시 기록해 두었다.
44 《정유각시집》 권3 〈題崔景偁竹樓圖卷〉 “我有竹裏想, 一日千百幻. 乍願密萬个, 妻子隔呼喚. 乍願開一面, 層樓出雲半. 夏念雪難披, 晝思月凌亂. 復欲噉檉笋, 臍腑出修韃. 崔君擬竹樓, 畫圖供把玩. 芝山及兩峯, 意匠悉爛熳. 起樓各不同, 愛竹兩無間. 可人王子猷, 餘子如既灌. 將身出畫外, 所留惟几案. 復欲入其中, 屢欬卷石畔. 如登墨君堂, 笑語秋聲觀. 清風既流利, 遠烟復橫斷. 捐空氣忽奮, 將雨色先換. 髣髴聞解籜, 睡雀驚虛彈. 不學黃岡人, 綠節恣剖判. 系君竹樓詩, 風懷一蕭散.” 이 작품은 《호저집》 1책 2권에도 수록되어 있다.
45 《호저집》 1책 권2 “先君記曰, 宋芝山葆醇內弟也. 芝山爲景偁作竹樓圖, 張問陶題詩. 羅兩峯又作一圖, 與芝山圖, 位置并不同. 景偁年少能詩, 翰林洪亮吉稱其它日以詩鳴.”

가 뛰어난데도 어찌서 여기에 가탁하시는지요.

최경칭: ‘竹樓子’로 불렸기 때문에 제 뜻을 보인 것이지, 감히 높여 왕원지에게 건 준 것은 아닙니다.⁴⁶

앞 인용문은 초정이 최경칭에 대해 기록한 부분이고 뒤 인용문은 최경칭과 주고받은 필답이다. 이를 통해 최경칭은 죽루와 관련된 시를 썼고 이어 송순보와 나빙이 그림을 그렸으며, 장문도도 시를 썼다. 이후 최경칭이 초정에게 시를 요청한 정황이 필답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초정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유 정황의 상세함도 파악할 수 있다.

사신 수레는 대륙 뚫고 가는데	軒車穿大陸
성곽은 온 요동을 내리누르네.	城郭壓全遼
만 리 길에 만나 나는 정다운 대화	萬里逢佳話
하룻밤이 천금과 맞먹는구나.	千金抵一宵

1차 여행 당시 金科豫를 만나 지은 작품으로, 《정유각시집》 권1에 〈次金科豫〉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3구의 ‘佳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상세한 교유 정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⁴⁷ 그러나 《호저집》에 초정과 김과예 둘 사이에 나눈 대화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선군께서 심양을 지나가실 때 벽 위에 걸린 그림을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훌륭한 작품입니다.” 김과예가 말했다. “좋은 그림은 그림으로 값으셔야지요.” 선군께서 대답하셨다. “한유와 유종원을 읽는 사람이 모두 다 한유, 유종원과 같은 것은 아니지요.” 모두 다 크게 웃으니, “묘한 말입니다.”라고 글씨를 썼다.⁴⁸

김과예의 집에 걸린 그림을 보고 초정이 감탄하자, 김과예가 초정에게 그림을 부탁했고 이에 초정은 작가와 독자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한 대목이다. 이러한 정황이 초정의 작품 3, 4구

46 《호저집》 1책 권2 “崔: 景備有竹樓圖, 係兩峯先生手筆, 敬祈尊詩. 先君: 詩甚不工, 俟間當搆. 崔: 此圖必得大作, 乃增重爾. 先君: 此兩公皆當世名士, 不敢廁身其中. 崔: 如此大才以之題小圖, 似不稱耳. 然承雅愛, 故敢奉瀆爲我題此圖. 先君: 王元之謫居, 方有竹樓. 先生少年高步, 何以托此. 崔: 因擬號竹樓子, 以見鄙志, 非敢高擬元之也.”

47 이 작품 역시 《호저집》 1책 권1에 수록되어 있다.

48 《호저집》 1책 권1 “先君過瀋時, 見壁上畫指云, 高品. 科豫云, 好畫當畫. 先君答云, 讀韓柳者, 未必盡如韓柳. 皆大笑, 書云, 妙語.”

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佳話’는 이를 두고 한 표현이다. 초정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요한 기록이라 하겠다.

海內는 모두가 형제인지라	海內皆兄弟
天涯에서 자리 합쳐 얘기 나누네.	天涯合席談
높은 뜻에 내 자신 실로 부끄럽나니	桑蓬眞愧我
여태껏 강남조차 못 가봤다오.	不得到江南

《정유각시집》 권1에 실려 있는 〈分談字贈金科豫〉라는 작품으로, 김과예에게 준 것이다. 김과예에게 주었다는 말만 있을 뿐, 이 작품을 짓게 된 구체적인 정황은 파악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해 《호저집》에는 김과예의 〈俚句奉贈楚亭吟長, 兼誌別意.〉라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⁴⁹ 초정의 작품으로는 당시의 정황을 살필 수가 없었는데, 김과예의 작품을 통해 이별의 현장에서 지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金科正와 金淳, 李點, 魏錕, 郭維翰이 초정의 이 작품에 차운한 작품이 《호저집》에 수록되어 있다.⁵⁰ 이로 보건대, 김과예를 대상으로 한 초정의 작품은 이별의 현장에서 쓴 것이며, 그 현장에는 김과예뿐만 아니라, 김과정을 비롯한 많은 문인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호저집》에서 李鼎元을 소개하면서 초정이 이정원을 대상으로 한 작품을 소개했고 이어 둘 사이의 필답을 기록해 두었다. 그 중 이정원이 “그대의 對策文을 읽어 보니, 대답한 것이 이미 상세하고 판단 또한 노련합니다. 중간의 轉注에 대한 주장 같은 것은 수천 수백 년이 東原의 한마디 말로 깨졌으니, 그대로 이 ‘考老’의 ‘老’자에서 그대의 독서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씀이 세밀하면서도 고심한 것을 알겠더군요.”라고 했다.⁵¹ 이정원이 언급한 초정의 ‘대책문’은 《정유각문집》 권1에 실린 〈六書策〉으로, “轉注는 다른 글자가 같은 뜻을 주고받는 경우이니, 모두 ‘늙는다’는 뜻을 지닌 考와 老자가 그 보기이다.[轉注之同意相受, 考老是也.]”라고 한 구절에 대한 평이다. 또한 이 필답에는 초정이 청대 문인을 대상으로 한 〈연

49 《호저집》 2책 권1 〈俚句奉贈楚亭吟長, 兼誌別意.〉 “佳客來東國, 清宵共接談. 流泉思乍湧, 潑墨興初酣. 縞紵君情洽, 文章我輩慙. 朝天旋有日, 矚目望歸驂.”

50 《호저집》 2책 권1 金科正, 〈奉次楚亭元韻〉 “清尊聊卜夜, 抵掌發雄談. 未樹騷壇幟, 推敲望斗南.”; 金淳, 〈次楚亭元韻〉 “旅邸初逢面, 張燈坐夜談. 十年遊賞地, 久已厭江南. 【楚亭贈句, 有弗得到江南, 故云.】”; 李點, 〈次楚亭元韻〉 “味契金蘭譜, 襟開玉屑談. 五陵佳氣滿, 形勝邁江南.”; 魏錕, 〈奉次楚亭元韻〉 “萬國車書共, 相逢任接談. 香山佳句在, 曾不到東南.”; 郭維翰, 〈奉次楚亭元韻〉 “邂逅情初洽, 中宵接席談. 遠遊應有志, 同譜望江南.”

51 《호저집》 1책 권1 ‘李鼎元’ “讀尊策, 修對既詳, 斷制亦老. 中如轉注之說, 數千百年, 被東原一語道破, 依然是考老老字, 可見足下讀書矣, 而用心細且苦矣.”

경잡절》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안부를 물었다는 기록도 보인다.⁵² 이처럼 초정은 만남의 현장에서 자신의 글을 이정원에게 직접 보여주며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정원은 초정과 관련 적지 않은 작품을 지었는데, 《호저집》 2책 권1에는 이와 관련해 시 8題 12首, 편지글 8편(초정 대상 4편, 박장암 대상 4편), 발문 2편이 실려 있다. 이 중 〈題春雲出硤集〉이라는 작품이 가장 먼저 보이는데,⁵³ 이 작품 역시 초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春雲出硤集》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작품을 짓게 된 정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해 柳得恭은 〈次次修幽裏八首韻〉이란 작품을 지은 바 있다. 이 작품은 《정유각시집》 권1에 수록된 〈夜宿薑山十首〉라는 초정의 작품에 차운한 것이다. 유득공은 이 작품의 첫 번째 수에서 “德園이 次修의 시를 논하면서 ‘봄 구름이 골짜기에서 피어오르는 것처럼 그 자태가 성대하다.[德園論次修詩曰如春雲出硤, 態度藹然.]’라 했다.”라고 부기한 바 있다.⁵⁴ 이로 보면, 《춘운출협집》이 《정유고략》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어지는 〈題涑上周旋集〉이란 작품⁵⁵ 역시 1778년 초정과 이덕무가 연행 길에 지참하여 청 문인들의 비평을 받은 시집으로, 이덕무·유득공·박제가·이서구 네 사람의 시가 수록된 《涑上周旋集》과 관련된 것이다.⁵⁶

이조원과 반정균은 《한객건연집》에 평한 〈巾衍集評〉이라는 작품을 남겼고 《정유각시집》 권1에 실린 〈述懷四首〉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述懷四首評〉을 각각 남긴 바 있다.⁵⁷ 龔協은 《정유각시집》 권3의 〈姜女廟次鶴山先生韻〉이라는 작품에 차운하여 〈讀貞蕤詞丈姜女祠詩, 感作次韻〉이라는 작품을 지었고⁵⁸ 《정유각시집》 권3의 〈留龍灣次六娥見寄〉라는 작품에 차운해 〈次六娥韻即呈貞蕤居士一笑〉를 지은 바 있다.⁵⁹ 또한 〈貞蕤先生東歸, 詩以送之, 卽次其山

52 《호저집》 1책 권1 ‘李鼎元’ “今冬有安便, 便教豚兒入都, 亦猶遣勇入觀中國之意耳. 金石正三翁, 丹青羅兩峯. 清修比部衍, 鉅麗北江洪. 此余懷人作耳. 半歸黃土, 能無黃墟之感歎.”

53 《호저집》 2책 권1 〈題春雲出硤集〉 “高聳吟肩撚短鬚, 夕陽驢背一狂夫. 前身應是王摩詰, 畫出春雲出硤圖.”

54 柳得恭, 《冷齋集》 권3 〈次次修幽裏八首韻〉 첫 번째 수 “聞君此春初, 翩翩枉蓬室. 吾亦屢跡君, 歧路動相失. 今朝見君詩, 緗素紛成帙. 思君若風雨, 願爲箕與畢. 欲和春雲作, 深媿游絲筆. 豈以逢時寡, 遂謂交不密. 恨恨難俱陳, 坐對青峯一. 【德園論次修詩曰如春雲出硤, 態度藹然. 余筆荒恠多鉤連, 親知笑以爲游絲書.】”

55 《호저집》 2책 권1 〈題涑上周旋集〉 “涑水如煙凝一碧, 竹林風味無今昔. 慙慙寄語集中人, 爲我西隅添一席.”

56 《涑上周旋集》은 현전하지 않으며, 관련 기록으로 1778년 6월 8일에 쓴 祝德麟의 〈涑上周旋集序〉와 〈涑上周旋集評〉 및 이정원의 〈題涑上周旋集〉이란 글만 확인된다. 축덕린과 이정원의 글은 모두 《호저집》 2책 권1에 수록되어 있다.

57 《호저집》 2책 권1, 이조원, 〈巾衍集評〉 “明農初稿, 工於七律. 夢得香山, 其鼻祖也. 而嶽崎歷落之氣, 則似過之, 無不及焉. 劍南李調元二橋評.”; 〈述懷四首評〉 “楚亭於詩, 多學陶謝, 而於謝尤近. 此四首, 體高格古, 所謂摘藻如春華者, 俗眼幾曾見之. 五嶽山人調識.”

반정균, 〈巾衍集評〉 “楚亭詩, 脫手如彈丸, 不爲僻澁之音. 所謂文入妙來, 無過熟耳. 襟期磊落, 如見其人. 韻頑四家, 未易定王盧前後也. 西湖潘庭筠蘭垞氏跋.”; 〈述懷四首評〉 “此浣花翁所謂磊落抑塞之奇才也. 諷詠數四, 如見襟期. 吾欲彈賀若之琴, 爲作者一解之.”

58 《호저집》 2책 권1 〈讀貞蕤詞丈姜女祠詩, 感作次韻〉 “荒祠衰艸望悠悠, 哀怨秦風賦淺收. 廟貌至今同化石, 邊庭終古重防秋. 大刀破鏡千年恨, 織趾蒙霜萬里愁. 一自騷人留苦調, 征夫到此幾旋軸.” 陳鱣도 이와 관련해 〈古詩爲義州姜貞女作〉(《호저집》 2책 권3)이란 작품을 지은 바 있다.

59 《호저집》 2책 권1 “前身應是散花人, 一落塵間幾度春. 長慶橋西偕住好, 維摩禪悅摠清新.”

居三首元韻并正. 辛亥月正二十二日.)이라는 작품을 지었는데, 이는 《정유각시집》 권2의 〈過麝泉鹿隱聽琴次虞山〉·〈再次示麝泉諸子〉·〈燕岩室次前韻〉에 차운한 것이다. 이외에도 옹방강, 기운, 철보, 나병, 오정섭, 옹방수 등은 초정의 작품에 차운하거나 자신의 작품을 보내어 바로 잡아 주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한 작품이 《호저집》에 다수 실려 있다.

이처럼 교류의 현장에서 즉석으로 차운한 작품을 짓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지은 작품이 아닌 초정의 다른 작품에 대해 청대 문인이 차운한 작품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필담의 현장에서도 연행 이전에 지은 초정의 시구는 자주 소환되었는데, 초정의 《정유고략》이 교류했던 청대 문인을 중심으로 애독되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로 보면, 초정의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초정과 청대 문인 간의 교류가 시작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초정은 청대 문인과 교류하며 정표로 많은 선물을 주고받았다. 沈心醇은 초정에게 《石鼓文》과 古鏡의 탐본을, 陳崇本은 黃器를 선물한 바 있고 장문도는 초정이 준 日本刀와 관련해 〈朝鮮使贈日本刀, 爲作歌〉와 〈日本刀歌, 贈陳瀚. 【刀爲朴楚亭贈物.】〉이라는 작품을 지은 바 있다. 초정 역시 孫衡에게 비단을 주는 등 자신의 시나 글씨를 수많은 청대 문인에게 준 바 있다. 그러한 교류의 정황이 《호저집》에 여실히 담겨 있다.

2) 교류의 여파에 대한 기록

4차례 연행과 연행 이후의 교류 정황은 《호저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청대 문인과 관련된 초정의 작품으로 《호저집》에 부기된 작품은 초정의 회인시나 〈연경잡절〉이 그 중심에 있다. 초정에게 있어 현장 교류의 여파가 바로 이들 작품인 셈이다.

龔苻莊의 시문은 연원 있으니	苻莊詩有自
외가가 王漁洋의 집안이라네.	母家爲漁洋
天壇 옆서 나에게 술잔 권할 제	觴我天壇側
등촉은 붉은 불을 토해냈었지.	蠟燭吐紅芒
집안 내력 서로 주며 通交를 하고	各贈通家譜
절대로 잊지 말자 맹세했다네.	信誓無相忘

《정유각시집》 권3에 실린 〈懷人詩, 仿蔣心餘〉 중 ‘龔協’을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호저집》 1책 권2에도 수록되어 있다. 《정유각시집》에는 5언 6구의 작품만이 수록되어 있고 작품과 관련된 부기는 부재하다. 그러나 《호저집》 1책 2권에 수록된 공협과의 필담 등의 기록을 통해 보면, 1구는 공협이 부친인 龔廉의 시문을 이었다는 것이고 2구는 공협의 모친이 王士

禎의 증손녀였기에 한 말이다.⁶⁰ 3,4구는 공협과 필담을 나누던 정황을 소개한 것이며, 5,6구는 그 자리에서 서로 간 집안의 내력을 주고받자고 하여, 종이 한 장에 써서 주고받았던 일을 詩化한 것이다.⁶¹ 《호저집》에 실린 초정의 기록을 통해 작품의 구절구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졌고 교유 양상 또한 선명해졌다. 이밖에도 공협을 대상으로 한 〈和苻莊詩扇〉(《정유각시집》 권3), 〈續懷人詩·龔苻莊〉(《정유각시집》 권4), 〈燕京雜絕·龔協〉(《정유각시집》 권4)의 작품 역시 《호저집》의 필담 등의 기록을 통해 그 세세한 이해가 가능해졌다.

人日에 동쪽 보며 친구를 곡하노니	人日東望哭故人
이로조차 하늘가엔 소식마저 끊어지리.	天涯從此斷鴻鱗
童鳥가 요절한 뒤 《太玄》을 뉘 논할까	童鳥夭後玄誰與
아, 子桑戶여 이미 참됨 꿈꾸었네.	桑戶嗟來夢已眞
귀신조차 울고 갈 기이한 글만 남아	空有奇文神鬼泣
청렴한 관리 자손 가난함이 불쌍쿠나.	最憐廉吏子孫貧
程門의 高弟가 家法을 이었으니	程門高弟傳家法
또 三生の 끝없는 인연을 맺었구려.	又結三生未了因

위 작품 역시 《호저집》 2책 권1에 수록된 이정원의 〈哭楚亭〉이란 작품이다. 이 작품을 짓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1811년 人日에 지어, 당시 연경에 왔던 조선 사신 柳最寬에게 주어 초정의 아들 박장암에게 전해주기를 부탁한 바 있다.⁶² 李驥元도 초정이 죽은 이후, 〈題貞齋書屋三絕, 應楚亭故人之囑.〉이라는 작품을 보내온 바 있다.⁶³

초정 생전에 교유의 현장에서 주고받은 시문이나 연행에서 돌아온 후에 서신을 통해 주고 받은 글을 《호저집》에서 살피는 것은 어렵지 않다. 뿐만 아니라, 초정 사후에도 아들인 박장암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다.⁶⁴ 활발하게 교유하고 교류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호저집》에 담긴 셈이다.

60 《호저집》 1책 권2 “父廉, 乾隆壬戌進士, 官禮部員外郎·刑部郎中·河南河南府知府. 母王氏, 大司寇謚文簡阮亭會孫女.”
 61 《호저집》 1책 권2 “苻莊嘗書其年甲世派子女名字, 以示先君, 周詳纖悉, 無有間隔, 其風流尚友之感如此.”, “可將履歷三代籍貫閱閱各書一紙, 交藏之. 妻何氏, 子何名, 兄弟幾人, 住何地, 生日.”
 62 《호저집》 2책 권1 〈哭楚亭〉附記 “於覃溪前輩宅, 晤東人穎山, 知楚亭已作古人, 歸直人日, 爲位而哭之. 仍將書付穎山, 寄去焚於楚亭之墓. 尚恨詩拙, 不能道意中之痛楚耳. 時辛未人日, 鼎元草并識. 此客歲人日初稿也, 是否寫付穎山. 已不能寄, 痛承書來, 即仍將底稿寄去. 文字都不佳, 重其意焉, 可也. 希貞碧轉致小菴查收.”
 63 《호저집》 2책 권1 〈題貞齋書屋三絕, 應楚亭故人之囑.〉 “樹歷千年古, 蒼鱗欲化龍. 相依君子宅, 不羨大夫封.” “古井何時鑿, 人間第一泉. 不風知浪淨, 沈月訝珠圓.” “認作淵明宅, 松風日夜吹. 不須還學圃, 霖雨澤邊陲.”
 64 이정원이 박장암에 보낸 편지인 〈答小菴〉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손사인은 자태가 순아하여서	舍人醇雅姿
도무지 재상 집안 같지 않았지.	都無相門氣
아내 잃은 나의 슬픔 어이 알아서	知我叩盆情
만 리 길에 시를 보내 위로하누나.	緘詩萬里慰

舍人 孫衡은 자가 雲麓이니, 總督 孫士毅 아들이다. 내가 喪妻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시를 부쳐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안인 반악(潘岳)이 〈도망시(悼亡詩)〉에 능했고, 지금은 봉천 순찬(荀粲)이 몰래 마음 아파한다오.[自昔安仁工製誄, 如今奉倩暗傷神.]”

〈연경잡절〉에서 ‘孫衡’을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호저집》 1책 권2에도 실려 있다. 3,4구에 서 초정이 상처하자, 위로의 시를 보내주었다고 하면서 손형의 작품 일부만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호저집》 2책 권2에는 손형이 보낸 만사의 전문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삼가 차수 선생의 부인 李 淑人이 임자년(1792) 9월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거칠게 위로의 말을 부치며 바로잡아주시기를 청함 / 恭聞次修先生元配李淑人, 於壬子九月辭世, 燕言寄慰, 卽請改正.

명문의 덕스런 배필 손님처럼 공경터니	名門德配敬如賓
신선 수레 뜬금없이 하늘로 돌아갔네.	仙馭無端返上旻

【《宋史》〈樂志〉에서 “신선 수레 정돈하여 하늘 위로 돌아갔네.”라 하였다.】
 【宋史樂志, 將整仙馭, 言還上旻.】

옛날에 潘岳은 誄文을 잘 지었지만	自昔安仁工製誄
오늘의 荀粲은 남몰래 맘 상했지.	如今奉倩黯傷神
빈 경대에 반진고리 차마 열지 못하고	奩空未忍開針篋
찬 이불에 언제나 대자리의 먼지 터네.	衾冷長爲拂簞塵
한마디 말 부쳐 보내 전달되길 기약하니	一語寄君期作達
섬돌 앞엔 蘭玉 같은 자식들 끝끝하리.	階前蘭玉已振振

〈연경잡절〉에서는 위로하는 시를 보내주었다는 언급에 그쳤지만, 《호저집》의 기록을 통해 실제 손형이 부쳐온 만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정의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뿐만 아니

라, 연경에서 돌아온 후에도 조선 사신 편에 서로 간의 소식과 시문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된다.

폐백 들고 지금껏 구주를 편답하니	執贄由來遍九州
계림 땅의 제자가 또한 그의 학생일세.	鷄林弟子亦蒙求
세모의 회인시에 도리어 놀라노니	翻驚歲暮懷人作
옥정과 주천에 만곡의 물 흐르누나.	玉井珠泉萬斛流

《정유각시집》 권4에 실린 〈續懷人詩十八首〉 중 紀昀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다. 이 작품 역시 《호저집》 1책 권2에 수록되어 있다. 2구의 ‘鷄林弟子’는 초정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며, 4구의 ‘玉井珠泉’은 기운이 보내 준 벼루와 관련된 언급이다.⁶⁵ 3구의 ‘歲暮懷人作’은 기운이 초정을 대상으로 쓴 작품을 말한다. 《호저집》 1책 권3에는 기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우연히 서로 만나 곧바로 친해지니	偶然相見即相親
헤어진 뒤 안타깝게 몇 해 봄을 보냈던가.	別後恩慙又幾春
거꾸로 신 신고서 천하 선비 맞았더니	倒屣常迎天下士
시 읊을 쯤 해동 사람 가장 많이 생각나네.	吟詩最憶海東人
관하 너머 두 곳에서 서찰 왕래 아예 없어	關河兩地無書札
여러 해를 사신에게 그대 이름 물었다오.	名姓頻年間使臣
나를 그려 지은 새 시 있는가 없는가	可有新篇懷我未
이 늙은이 두 살쩍은 은빛으로 변해가네.	老夫雙鬢漸如銀

이것은 宗伯 曉嵐 기운이 부쳐 보낸 작품이다. 종이는 색을 입힌 비단 폭을 썼는데, 글자가 손바닥만 하게 컸다. 내가 대궐에서 숙직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내로부터 내려왔다. 나는 외교의 의리가 없는지라 감히 화답하여 보내지는 못하였다. 나중에 신유년(1801)에 사신의 명을 받들어갔을 때 만나보고서 이에 대해 사죄하였

65 徐浩修의 《燕行紀》 3권 경술년(1790) 8월 14일 기사에 기운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자, 기운이 端溪硯 1개와 墨竹 1軸을 답례로 보내왔다. 단계연에는 ‘玉井’ 2자가 새겨져 있었고, 뒷면의 自撰銘에 “蘇東坡의 글은 珠泉이 萬斛이지만, 나는 나의 우물을 파니 논이랑에 물을 대기에 또한 넉넉하네.[坡老之文珠泉萬斛, 我浚我井灌畦亦足].”라는 글귀가 있었다고 한다.

다. 기운은 그때까지도 건강하였고, 나이는 이미 80여 세였다.⁶⁶

기운의 위 작품은 《정유각시집》 권5에 실린 초정의 〈追次曉嵐見寄詩韻. 二月六日.〉이란 작품⁶⁷ 아래 기운의 작품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초정의 이 작품은 鍾城 유배 시절인 1803년 2월 6일에 지은 것으로, 기운의 작품에 대해서는 그 제명을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기운의 문집인 《紀文達公遺集》 권11에는 〈懷朴齊家〉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호저집》 2책 권2에는 〈寄懷而后先生〉이란 제명으로 실려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위 기운의 시작품이 초정이 자신의 시작품 3구에서 언급한 ‘歲暮懷人作’임이 확인된다. 초정의 기록과 기운의 개인문집에 실린 작품을 통합하면, 그 교류 정황이 더욱 선명해진다.⁶⁸

일련의 회인시나 〈연경잡절〉은 연행의 여파 속에 지은 작품으로, 이들 작품에 대한 세세한 접근이 《호저집》의 기록을 통해 가능해졌다. 또한 연행 이후, 초정 아내의 죽음이나 초정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이 《호저집》에 수록되어 있어, 일회적인 교류에 머물지 않고 대면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대 문인의 또 다른 기록

《호저집》 2책 권2의 ‘張問陶’ 관련 자료를 기록한 곳에서, 초정과 孫星衍의 교류 정황을 살필 수 있는 시작품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問字堂圖》에 淵如 孫星衍 선배를 위해 쓰다

【조선의 초정 박제가가 題額을 쓰고 양봉산인 나빙이 그림을 그렸다.】

호기라고 웃겠지만 미친 것은 아니니	好奇應笑不狂狂
해객이 문자당에 친히 제액 써 주었네.	海客親題問字堂
배움 청함 다시금 소영사를 만남이오	請學重逢蕭穎士

66 《호저집》 1책 권3 “先君記曰, 偶然相見即相親, 別後恩慙又幾春. 倒屣常迎天下士, 吟詩最憶海東人. 關河兩地無書札, 名姓頻年間使臣. 可有新篇懷我未, 老夫雙鬢漸如銀. 此曉嵐紀宗伯見寄之作. 紙用加色絹幅, 字大如手. 余在禁直, 忽自大內下傳. 余以無外交之義, 不敢和送. 後於辛酉奉使時, 面謝之. 紀公尙康旺, 年已八旬有餘矣.”

67 《정유각시집》 권5 〈追次曉嵐見寄詩韻. 二月六日.〉 “白鷗何意絕還親, 慣遣秋笳集裏春. 佳句自無霜後傑, 好音偏向日邊人. 雲山萬斛新螺子, 滄海千秋古鷹臣. 忽夢頽然觀奕叟, 牀前月色爛如銀.”

68 또한 《호저집》 2책 권2에 실린 기운의 〈送而后檢理歸國〉 작품이 《紀文達公遺集》 권10에는 〈送朝鮮使臣朴齊家歸國〉이라는 제명으로 실려 있다. 또한 권10 바로 뒤에 〈送朝鮮使臣柳得恭歸國〉 “古有鷄林相, 能知白傅詩. 俗原嫺賦詠, 汝更富文辭. 序謝一都賦, 才慚一字師. 唯應期再至, 時說小姑祠.”라는 유득공과 관련된 작품도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冷齋集》 권4의 〈和贈紀曉嵐尙書〉라는 작품 아래 원운으로 부기되어 있다. 이를 통해 유득공이 작품을 지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정신 전함 마치도 맹양양을 그린 듯해.	傳神如畫孟襄陽
문장의 호탕함은 안과 밖의 구분 없고	文章浩蕩無中外
碑版은 드물어서 漢唐을 꼽는다네.	碑版零星數漢唐
鷄林 땅 종잇값이 높아지게 놓아두고	一任鷄林高紙價
문 닫고 다시금 저서에 바쁘겠네.	閉門還爲著書忙

‘問字堂’은 孫星衍의 서재로, 당대 청 문단 名士들의 雅集 장소였다. 그런데 이곳의 제액을 초정이 썼고 나빙이 그림으로 그렸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정황을 시작품 1~4구에 담아내었다. 손성연이 초정에게 《唐刻古經》을 주자, 초정이 “오천 권의 책을 읽지 않은 자는 이 서실에 들어올 수 없다.[不讀五千卷書者, 毋得入此室.]”라는 글을 써 주었는데, 《정유각시집》 권3에 실린 〈懷人詩, 仿蔣心餘〉 ‘孫星衍’ 5구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⁶⁹ 장문도의 이 작품은 장문도의 문집인 《船山詩草》에도 〈問字堂圖, 爲淵如前輩題。【朝鮮朴齊家書額, 羅兩峯作圖。】〉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본래 2수의 작품 중 첫 번째 수만을 소개한 것이다.⁷⁰

손성연의 ‘문자당’과 관련된 초정과의 일화에 대해서는 《정유각집》이나 《호저집》에 다른 기록은 없다. 반면 손성연의 《孫淵如詩文集》에는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問字堂에 우거하고 있었다. ‘문자당’은 조선의 사신 박제가가 내가 古文의 기이한 글자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제액을 써 준 것이다. 都下의 이름난 公卿과 海內的 옛 것을 좋아하는 선비들이 늘 문자당에 와서 서적을 빌리고 술자리를 마련하여 즐기곤 했다. 호사가 중 어떤 이는 이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다.⁷¹

내가 처음에는 琉璃廠에 우거하고 있었는데, 다리 서쪽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어 海內的 선비들 중 기이함을 즐기고 의심난 것을 변석하는 자들이 모두 내 거처를 알았다. 이후에 거처를 옮겨 孫公園에서 지내면서 조금 집을 넓혀, 여러 명사들의 雅集 장소로 삼았다. 해마다 조선에서 사신이 오면 반드시 방문하여 명함을 내밀었

다. 그러던 중 박제가가 나를 위해 ‘문자당’이라는 제액을 써 주었고 또한 큰 글씨로 隋나라 崔儼의 ‘오천 권의 책을 읽지 않은 자는 이 서실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글귀를 써 주었다.⁷²

손성연의 거처에 ‘문자당’이라고 제액을 써 주었고 더불어 ‘不讀五千卷書者, 毋得入此室.’라는 글귀를 써 준 정황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초정과 청대 문인 간의 교류와 교류를 입체적으로 재구하기 위해서는 교류했던 청대 문인의 개인문집도 꼼꼼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陳鱣은 《정유각집》에 序文을 쓴 인물이다. 서문에서, 초정이 조선중이, 접부채, 샷갓, 청심환을 선물로 주었고 자신은 4수의 작품을 지어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자신의 《論語古訓》을 답례로 주자 초정이 다시 《貞蕤藁略》을 보여주었다고 했다.⁷³

이와 관련해 진전의 《陳鱣簡莊文鈔》〈擬傳〉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嘉慶 辛酉年(1801)에 會試에 응시하려고 北京의 琉璃廠 책방에 이르러, 朝鮮 使臣 檢書 朴修其를 만나 서로 붓을 잡아 필담을 나누었다. 박수기가 찬술한 《貞蕤稿略》을 仲魚 陳鱣에게 주었고 仲魚는 《論語古訓》으로 보답했다. 각기 한 때에 서로에게 마음을 기울인 것이 멋진 일화로 남았다.⁷⁴

또한 이 자리에서 초정이 4개의 선물을 주었는데, 이에 진전이 4수의 작품을 지었다고 한 바 있다. 그 4수의 작품은 《호저집》 2책 권3에 수록되어 있으며,⁷⁵ 吳衡照는 초정이 진전에 선물한 접부채를 대상으로 작품을 지은 바 있다.⁷⁶ 진전은 초정에게 받은 선물을 교류했던 문

72 孫星衍, 《孫淵如詩文集》 권7 〈書堂問字〉 “予始僦居琉璃廠, 橋之西宅前有大樹, 海內之士賞奇析疑者, 咸識其居也. 後移寓孫公園, 小拓室宇, 爲諸名士燕集之地. 每歲朝鮮使臣至, 必款門投刺. 朴卿齊家爲予書問字堂額, 又大書崔儼語云, 不讀五千卷書, 毋得入此室.” 이 부분은 서문에 해당하는 글이고 이 아래 “琉璃廠西靑廠口, 塵鬻圖書街尊卮. 十丈紅飛過客塵, 一株綠認先生柳. 高冠褒服來叩門, 登堂書字口不言. 愛才異域且同志, 豈有文譽鷄林傳. 異書海舶有時世, 不似大航留僞帙. 開成石刻贈殷勤, 要使薄海尊經術. 興來落筆蛟螭翔, 五千卷室崔儼藏. 似聞比歲朝天客, 猶訪當年問字堂.”이라는 손성연의 시 작품이 있는데, 《호저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73 《정유각문집》 서문 “越數日, 又相見, 辱贈以東紙摺扇野笠藥丸. 余即賦詩四章志謝, 副以楹聯碑帖及拙著論語古訓, 幾幾乎投縞獻紵之風焉. 有頃, 檢書手一編出示, 曰貞蕤藁略. 皆其舊作. 首列對策, 發明古學, 貫通六藝群書. 讀之, 洋洋灑灑, 如登高山臨滄海, 驟然莫測其崇深.”

74 陳鱣, 《陳鱣簡莊文鈔》〈擬傳〉 “嘉慶辛酉, 會試, 至京於琉璃廠書肆, 識朝鮮使臣朴修其檢書, 各操筆以通語言, 朴修其以所撰貞蕤稿略, 貽仲魚. 仲魚報以論語古訓, 各相傾許一時, 以爲佳話.”

75 《호저집》 2책 권3 ‘東紙’ “十幅雲箋勝百朋, 遠携東國浪千層. 騷人供給成佳話, 和墨揮毫得未曾.”; ‘摺扇’ “便便腹笥朴貞蕤, 摺扇還書佳句貽. 豈但奉揚君子德, 定教傳誦使臣詞.”; ‘野笠’ “臺笠伊糾美彼都, 何緣脫贈到吾徒. 他時戴此歸田去, 好比東坡冒雨圖.”; ‘藥丸’ “煙霞痼疾每沈吟, 燕市逢君意倍深. 愛我無如投藥石, 賞來難得是清心.”

76 《호저집》 1책 권3 ‘吳衡照’ 〈高麗臺笠吟【并引】〉 “笠質圓體輕, 以夫須爲之. 色深黝, 極細緻, 可愛. 高麗貢使朴貞蕤

사들과 공유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일을 계기로 진전이 서문을 쓰고 《정유고략》을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⁷⁷

고려의 사신 박제가는 시와 그림에 공교롭다. 사신으로 오고서는 중국의 사대부들을 사모하여 늘 한 번이라도 대면한 적이 있으면 곧바로 회인시 한 편을 지었는데, 많게는 50여 수에 이르니 好事라 할 만하다.⁷⁸

洪亮吉이 초정을 회억하며 쓴 글이다. 초정은 홍양길을 회인시와 〈연경잡절〉에서 거둬 언급한 바 있고 《정유각문집》 권2의 〈洪亮吉傳〉에서는 홍양길의 작품을 칭송한 바 있다. 《호저집》에도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여 홍양길을 소개했는데, 홍양길에 대한 초정의 시선과 관심이 그대로 묻어나는 기록이다. 다소 짧은 언급이지만, 청대 문인에 대한 초정의 관심이 그대로 홍양길에게도 전해진 듯하다.

사신이 격자 종이에 쓴 것을 채집했는데 신선 품모 넘쳐나 五銖라 걸맞구나. 문노니, 정유 노거사 【조선의 사신 박제가를 말한다.】 연래에 다시 이 사람이 있는가.	輜軒採得烏絲寫 僊骨珊瑚稱五銖 爲問貞蕤老居士 【謂朝鮮使臣朴齊家】 年來更有此人無
--	--

蕃侯의 보좌하는 정성 잘 전달하며 기러기 오가는 길에 조각구름 가벼웠네. 中朝의 인물들과 모두 알고 지내며 동국에선 시로 예전부터 명성 자자했지. 압록강 물 차갑고 가을 물은 드넓으며 용만관 근처엔 달빛도 환하게 빛나리.	能達蕃侯翊戴誠 雁程來往片雲輕 中朝人物都相識 東國聲詩舊擅名 鴨綠江寒秋水闊 龍灣館近月華明
--	--

齊家, 贈陳簡莊鱸, 簡莊歸貽季父兎牀先生鶩, 席上命作.” “使臣朴檢書, 來自朝鮮國. 臺笠相饋遺, 尋常索不得. 髻翁轉見餉, 副以紙與墨. 滄海曾經驛路通, 覆同天樣出良工. 掉頭側影輕於翫, 摩頂圓光轉似蓬. 荀皮葵葉徒誇劇, 那用青繪飾檐額. 擁棹兼携夢裏蓑, 看花定配圖中展. 屋外青山數畝田, 東菑來往幾經年. 夫須舊製今猶在, 閒倚鋤頭證鄭箋.”
77 《호저집》 1책 권2에서 陳文述을 대상으로 한 대목에 진전이 초정의 시문을 간행해 《정유고략》이라 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乾嘉之際, 屢以奉使來京師, 與中朝士大夫, 多酬唱之作. 家仲魚徵君, 刻其詩文, 爲貞蕤稿畧.”
78 洪亮吉, 《北江詩話》 권5 “高麗使臣朴齊家, 工詩及畫. 其入貢也, 慕中國士大夫, 每有一面, 輒作見懷詩一章, 多至五十餘首, 可謂好事矣.”

책 속의 宵雅를 참으로 잘도 익혀 〈四牡〉와 〈皇皇者華〉로 한평생을 보내누나.	卷中宵雅真堪肄 四牡皇華過一生
--	--------------------

【《정유고략》은 우리 집안 仲魚 徵士가 간행했다.】 【稿畧爲家仲魚徵士所刊】

첫 번째 인용문은 陳文述의 〈題朝鮮女士許蘭雪【景樊】詩集〉이라는 작품의 4번째 수이다. 다른 작품에서는 허난설헌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시작품에 대한 칭송을 마다하지 않았다.⁷⁹ 이 작품 역시 1,2구는 허난설헌의 시풍에 대한 칭송이다. 이어 3,4구는 해마다 오는 사신의 일행에 초정이 있는가 자문한 내용이다. 전체 작품의 초점이 허난설헌에 맞춰져 있는데, 마지막 구절에서 초정을 언급한 것은 초정에 대한 깊이 있는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인용문은 진문술의 〈題朝鮮使臣樸齊家貞蕤稿畧〉이라는 작품이다. 진문술이 집안사람인 仲魚 陳鱸이 간행한 초정의 《정유고략》에 쓴 시이다. 초정이 사신으로 중국을 오가면서 수많은 중국 문인들과 두루 교류했던 것을 그대로 詩化했다. 이들 작품은 《호저집》이나 《정유각집》에 실려 있지 않다.

초정과 청대 문인의 교류 양상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정의 기록뿐만 아니라 청대 문인의 기록에도 접근해야 한다. 청대 문인의 작품 속에도 교류했던 현장에 대한 언급과 교류 양상이 기록되어 있기에, 초정의 기록과 함께 살펴본다면 그 교류의 정황이 더 선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문이나 선물을 주고받은 현장의 정황뿐만 아니라, 초정이 준 시문이나 선물이 청대 문인 사이에서 어떤 파급 효과를 낳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도 청대 문인의 개인문집에 대한 접근은 필요하다.

79 陳文述, 《頤道堂詩外集》〈題朝鮮女士許蘭雪【景樊】詩集〉 “中華傳唱艷傾城, 東國聲詩最擅名. 王母侍兒都絕世, 步虛祇有許飛瓊”; “麗才不數月君婷, 閒倚青鸞聽紫雲. 應與純狐爲眷屬, 廣寒曾上梁文. 【女士八歲曾作廣寒宮上梁文】”; “鍊峽龍歸霸業荒, 攀髯人去海雲涼. 穆陵秋老斜陽暮, 獨上高臺弔國殤. 【適進士金成立, 成立殉國女士以節著.】”; “金釵首飾長相憶, 更學崔家五字詩. 菊秀蘭衰秋八月, 寒泉應薦女郎祠.”

4. 나가는 말

초정은 총 4차례의 여행을 통해 수많은 청대 문인과 교류했다. 그러한 정황이 《정유각집》에 단편적으로 실려 있다. 《정유각집》의 기록만으로는 교류 현장이나 이후 교류 정황을 상세하게 재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초정의 삼남인 박장암이 1809년 아버지 초정의 각 시기 여행과 관련된 인물 및 그들과 주고받은 작품, 그리고 교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호저집》을 편찬했다. 이 《호저집》에는 4차례의 여행 과정에서 교류했던 인물 관련 정보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초정과 청대 문인의 교류 정황을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 재구할 수 있다.

《호저집》에 수록된 초정의 언급이나 청대 문인의 기록 및 그들과 나눈 필담의 기록을 통해, 교류 현장을 재구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초정의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고취시킬 수 있었다. 연경에서의 교류 현장뿐만 아니라, 이후 주고받은 시문도 《호저집》에는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박장암이 《호저집》에 부기한 아버지 초정의 기록은 초정의 회인시와 <연경잡절>이 대부분이다. 초정에게 여행이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가늠하게 해 주는 일련의 작품으로, 그 여파를 확인하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초정 사후에도 삼남인 박장암과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음도 확인된다. 활발하게 진행된 교류는 이후 조선의 사신인 김정희나 이상적, 김석준 등에 의해 지속되었다. 그러하기에 청대 문인과의 활발한 교류의 출발점에 초정이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청대 문인의 기록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전개된 교류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교류 현장에서 차운한 작품이나 이후 초정의 개별 작품에 차운한 작품도 산견되었고 청대 문인이 자신의 작품을 초정에게 보내 평을 바라기도 했다. 초정의 초기 시집인 《정유고략》이 진전에 의해 간행되었고 동일 집단에 의해 애독되었음도 확인된다. 이밖에도 청대 문인의 개인 문집에 수록된 작품을 통해서도 교류 정황의 한 모퉁이를 재구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초정의 청대 문인과의 교류 일면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정유각집》과 《호저집》의 자료를 한 자리에서 입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했다. 그러나 방대한 분량을 소화하기에는 논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그 일면에만 접근한 한계가 있음을 거듭 밝힌다.

참고문헌

朴齊家, 『貞蕤閣集』, 한국문집총간 261.

朴長醜, 『縞紵集』, 하버드대학교 연칭도서관 소장

박중훈 역, 『韓客巾衍集』, 문진, 2011.

정민외 역, 『정유각집』 상·중·하, 돌베개, 2010.

후지츠카 치카시 지음/ 후지츠카 아키나오 역음/ 윤철규·이충구·김규선 옮김, 『秋史 金正禧 研究』, 과천문화원, 2009.

김병민, 『연경잡절』에 반영된 초정 박제가의 문화의식, 『다산학보』 13집, 다산학연구원, 1992.

김원준, 『《韓客巾衍集》을 통해 본 炯庵 李德懋 시의 특징-영남대학교 도남문고 소장 “蓬壺山房”본을 대상으로-』, 『민족문화논총』 54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3.

남재철, 『薑山 李書九의 初期詩 研究 : 《韓客巾衍集》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박중훈, 『초정 박제가의 懷人詩 小考』, 『한국언어문화』 30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박중훈, 『초정 박제가의 연경잡절 일고』, 『한문학논집』 27집, 근역한문학회, 2008.

박중훈, 『楚亭 朴齊家 初期詩 考察-《韓客巾衍集》의 評語를 中心으로-』, 『한국언어문화』 35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박중훈, 『薑山 李書九의 初期詩 考察-《韓客巾衍集》을 중심으로-』, 『동방학』 16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9.

박중훈, 『冷齋 柳得恭의 초기詩 考察-《韓客巾衍集》을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연구』 23권, 한국시가문화학회, 2009.

박중훈, 『炯庵 李德懋의 初期詩 考察-《韓客巾衍集》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30권, 근역한문학회, 2010.

박중훈, 『漢詩 “四家”의 전원시 비교 고찰-《韓客巾衍集》을 중심으로-』, 『동방학』 18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0.

박중훈, 『19세기 朝淸 문인들의 교류 양상-藕船 李尙迪의 懷人詩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회』 32집, 동양한문학회, 2011.

박중훈, 『19세기 조선 중인들의 국내외적 활동 양상-小棠 金奭準의 懷人詩를 중심으로-』, 『동방학』 25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박중훈, 『조선 후기 聯作 懷人詩의 사적 흐름과 제 양상』, 『은지논총』 58집, 은지학회, 2019.

박중훈, 『李尙迪의 <西笑編> 一考』, 『한국시가연구』 50집, 한국시가학회, 2020.

박현규, 『조선 四家詩 《韓客巾衍集》과 청 李調元 《雨村詩話》와의 원문 수록 관계』, 『서지학보』 권21, 한국서지학회, 1998.

이윤숙, 『漢詩四家の 初期詩 研究 : 《韓客巾衍集》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李春姬, 『藕船 李尙迪과 晚淸 文人의 文學交流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정일남, 『박제가 회인시 연구』, 『한국한문학회』 36집, 한국한문학회, 2005.

황인건, 『《燕京雜絕》에 나타난 박제가의 중국 체험 고찰』, 『한국시가연구』 20집, 한국시가학회, 2006.

Chinese Text Project(<https://ctext.org/library.pl?if=en&res=97114>)

『縞紵集』의 編纂者 朴長菴의
생애와 그 편찬 의식

강진선
(한양대학교)

1. 서론
 2. 생애와 관력
 3. 교유 관계
 4. 『호저집』 편찬의 지향
 5. 결론
- 참고문헌

『縞紵集』의 編纂者 朴長菴의 생애와 그 편찬 의식

강진선
(한양대학교)

1. 서론

小菴 朴長菴(1790~1851 이후)은 朴齊家(1750~1805)의 삼남으로 박제가의 4차례에 걸친 燕行에서의 한중 교류 내용을 집성한 『縞紵集』⁸⁰의 편찬자이다. 그 「凡例」에 따르면 “爲卷二, 爲篇三” 곧 앞뒤로 纂輯과 編輯의 두 책으로 되어 있으며, 각 책은 다시 박제가의 연행 연도순으로 戊戌(1778)·庚戌辛亥(1790·1791)·辛酉(1801)의 세 권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연행 이전에 神交를 나누었거나 직접 교류하지는 않았으나 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따로 卷首로 삼아 각 찬집과 편집 첫머리에 두었다.

이 책에는 172명⁸¹에 달하는 淸朝 문인의 인명이 실려 있어, 그야말로 박제가의 폭넓은 교류의 폭을 여실히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제1책인 纂輯은 충실한 인명록으로 검하여 필담 자료와 박제가의 懷人詩를 실었다. 제2책인 編輯은 박제가와 청 문인이 주고받은 한시 및 청 문인의 舊作, 오고간 편지를 실었다.

그 수록된 자료의 풍부함에 비해 선행 연구에서는 『호저집』만을 단독으로 다루기보다는 한중 교류 관련 문헌이나 연행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연구되어 온 편이다.⁸² 그 편찬자 박

80 이 논문에서는 하버드 예칭도서관 소장 필사본 『호저집』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본 『호저집』은 纂輯과 編輯의 총2책 6권을 온전히 갖추어 完帙로서는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다. 해당 본은 1992년 碧史 李佑成 선생의 栖碧外史海外蒐佚本叢書로서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본을 간행한 바 있다. 이외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의 낙질이 있다.

81 항목 내에서 언급한 경우까지 세면 더 늘어난다. 이 172명 중 직접 대면하였거나, 대면하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서로 글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나눈 경우가 아닌 사람이 陸飛·沈初·吳穎芳·袁枚·王學浩·劉錫五·陳文述·吳衡照의 8인이다. 朴長菴, 「凡例」, 『縞紵集』. “一. 凡一百十人之內, 除親見者外, 望風溯想者四, 折簡往復而未見其人者一, 聞聲相思者二, 詩筆相通而未得證交者一. 望風溯想者, 陸篠飲·沈雲椒·吳西林·袁簡齋是也. 折簡往復而未見其人者, 郭東山是也. 聞聲相思者, 王椒畦·劉澄齋是也. 詩筆相通而未得證交者, 嚴有堂是也. 凡八人者, 則各以次附錄. 其餘李雨邨潘秋??鐵冶亭三人者, 則先以詩文書札相通, 而後竟面接. 故皆不附錄, 直入原纂.”

82 오수경, 「解題(縞紵集)」, 『楚亭全書(栖碧外史海外蒐佚本)』(이우성 편) 下, 아세아문화사, 1992; 장백위, 「韓國歷代詩學文獻綜述」, 동방한문학회, 『東方漢文學』 16, 1999; 황인건, 「<燕京雜絕>에 나타난 박제가의 중국 체험 고찰」, 『한국시가연구』 20, 한국시가학회, 2006., 143~164면; 안대회, 「楚亭 朴齊家의 燕行과 일상속의 국제교류」, 『동방학지』 145, 연

장암에 대해서도 몇몇 선행 연구 성과를 통해 그 생애와 교류 등이 언급된 바 있었으나⁸³ 전체적인 연구의 수는 또한 소략하다. 이는 무엇보다 박장암의 문집이 남아 있지 않으며 관련 기록이 그나마도 다른 문인들의 기록에 산재되어 있어 연구자들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호저집』의 편찬자로서 박장암을 단독으로 다룬 지면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다.

그러므로 이 발표문에서는 일차적으로 박장암의 生平과 교류 관계 등 기본 정보를 정리, 차후의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하려 한다. 여기에 더불어 『호저집』 등을 통해 새롭게 살펴본 관계 정보를 종합하여 탐색해 보겠다. 최종적으로는 『호저집』의 편찬에 있어 박장암의 삶의 궤적과 관련하여 그 의도와 지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박향란, 「燕行錄 所載 筆談의 研究 : 洪大容, 朴趾源 등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이승수, 「박제가 삶의 마음속 出路, 燕京의 友情」, 『동아시아문화연구』 50,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187~214면; 김윤조, 「18세기 후반 韓中 文人 交遊와 李調元」, 『한국학논집』, 2013; 이홍식, 「18세기 조선 문인지 식인의 시로 꿈꾼 동아시아: 한·중·일,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한국문화와 예술』, 2018; 촉가문, 「朴齊家의 中國文人 交流 樣相과 特徵」,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22.

83 김영진, 「朝·淸 文士의 書籍 受贈과 出版文化에 끼친 영향: 19 세기를 중심으로 -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2015; 박철상, 「정벽 유취관의 연행과 교류」, 『다산과 추사, 정벽 유취관(추사박물관 학술총서 V)』, 2015; 김영진, 「西山 丁學淵의 회인시 연구 - 『秋日懷人絕句十一首』를 중심으로-」, 『韓國詩歌研究』 40, 한국시가학회, 2016 등.

2. 생애와 관력

박장암의 字는 香叔, 호는 小菴이다. 다른 호로 師墨⁸⁴이 있다. 庚戌生(1790)으로 密陽朴氏로 승지를 지낸 朴珩의 庶子 박제가와 절도사를 지낸 李觀祥의 庶女 德水李氏⁸⁵ 사이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⁸⁶ 박장암의 생년은 몇몇 지면에서 1780년으로 잘못 기재되어⁸⁷ 현재까지도 종종 이를 답습하고 있는데, 족보에 실린 1790년이 맞는 생년이다. 이는 『호저집』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호저집』 纂輯 권3, 박제가의 제4차 연행인 辛酉(1801)조에 편재된 曹江(1781~1837)과의 필담에서 박제가가 세 아들의 나이를 직접 밝히고 있다.

先君: 내 아이가 이번 겨울에 혹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그대를 찾아볼 텐데, 아직 알 수가 없군요.

曹: 그대는 자식을 몇이나 두었습니까?

先君: 또한 늦게 본 큰애가 그대와 동갑이고, 둘째는 열네 살, 그다음이 열두 살입니다. 딸은 셋인데 한 명은 시집가서 죽었습니다.

曹: 세 아들의 이름을 물어도 될지요.

先君: 長稔은 자가 爾穀인데 문필에 조금 능하고, 長廩, 長穉입니다.

曹: 그대는 아들이 셋이나 있으니 장차의 일을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까. 제가 만약 조선에 간다면, 틀림없이 그대의 집을 찾아가서 제가 가져간 술을 마시겠습니까.⁸⁸

이 필담은 1801년 박제가가 유득공과 더불어 朱子書 善本을 구해오라는 명을 받고 연경에 갔을 때 나눈 것이다. 박제가의 장남인 朴長稔은 조강과 같은 1781년생이라고 하였다. 박장암은 박제가가 서른두 살 되던 해 얻은 첫아들이었다. 해당 필담이 작성된 1801년 신유년을

84 사목의 墨은 淸 문인 墨莊 李鼎元을 뜻한다.

85 朴齊家. 「朝鮮嘉善大夫行龍驤衛副護軍兼五衛都摠府副摠管李公墓旉魂遊石銘 并序」, 『貞菴閣文集』 卷3. “配東萊鄭氏, 生女及子, 子漢柱爲兄普祥後, 更系族弟吉祥子漢棟, 女適經歷尹文淵, 側室子一漢石, 女三, 一適金致訥, 一適朴齊家, 一幼.”

86 규장각 소장 『密城朴氏族譜』 甲寅譜(1804)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密城朴氏族譜』 辛亥譜(1851), 『密城朴氏族譜』 丙寅譜(1866). 이의 안대회 교감·역주, 『(완역 정본)복학의』, 돌베개, 2013의 박제가 연보 참조.

87 오수경, 위의 글, 1992.

88 先君: “我兒今冬或入來, 必見君, 未可知.”

曹: “君有幾子?”

先君: “亦晚生長者, 與君同歲, 次十四, 次十二. 女三人, 一嫁而死.”

曹: “請問三子名.”

先君: “長稔字爾穀, 稍能文筆. 長廩·長穉.”

기준으로 하면 당시 21세였다. 그 뒤로 차남 朴長廩이 1788년생으로 이때 14세가 되었고, 삼남인 박장암은 1790년생으로 12세다. 또한 장남 박장암의 경우, 乙卯年(1795)에 10월 30일 유득공의 아들 柳本學·柳本藝 형제 및 成海應의 아들 成憲曾과 함께 正祖가 召見하고 ‘待年檢書’에 錄名한 일이 있었다. 이때 박장암은 당년 15세로 아직 성년이 안 된 나이였다.⁸⁹

또한 박제가가 조강과의 대화에서 밝혔듯이 세 딸이 있었으니, 곧 박장암에게는 누나들이다. 첫째 누이는 6남매 중 첫째로 尹兼鎭의 妻다. 시집가서 죽었다는 박제가의 딸은 6남매 중 둘째로 곧 1801년 사형당한 윤가기의 아들인 尹厚鎭의 妻다.⁹⁰ 셋째 누이는 南謹中(南建中⁹¹)에게 시집갔다.

박장암은 바로 윗 형인 朴長廩과 함께 집안의 막내로 귀여움을 받았다. 또한 이들 형제는 집안에서 염려의 대상이기도 했는데, 미처 장성하기도 전에 친모인 덕수이씨를 잃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버지 박제는 1801년 연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사돈 尹可基의 옥사에 휘말려 鍾城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이때 박장암은 겨우 12세였다.

둘 모두 갓난아이 아니건마는	象勺兩非穉
가르칠 방도 없어 부끄럽구나.	身教慚無方
어려서 어미를 잃었는지라	孩提失所慈
자랐어도 끝내는 가여운 처지.	頭角遂淒涼
아비도 먼 곳으로 유배갔으니	厥考且行遣
어린 너희 가업을 어찌 이을꼬.	爾蒙焉肯堂
성내며 밥상 위의 반찬 다투고	嗔怒爭盤飧
큰길에서 장난치며 뛰어놀겠지.	跳躍戲康莊
어이 알았으랴, 종성의 하늘가에서	詎念天一涯
국도 없이 조밥만 먹고 있을 줄.	飯粟無蔥湯
나는 절로 즐기는 여유가 있어	我自樂有餘
책 펴면 이치 더욱 자세하구나.	展卷理逾詳

89 柳得恭, 「待年檢書」, 『古芸堂筆記』 卷5. “乙卯十月三十日, 臣得恭子本學、本藝及前檢書官朴齊家子橘孫、兼檢書官成海應子會福承命詣監印所, 書進《太上感應編》, 上召見悉以待年檢書錄名.” 橘孫이 박장암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90 1776~1799. 朴齊家, 「亡女尹氏婦墓誌銘」, 『貞菴閣文集』 卷之三 참조. 현전하는 족보 중 『密城朴氏族譜』(1804, 甲寅譜) 등 시기가 이른 족보에는 세 女孀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만, 이후의 족보에는 대부분 둘째 사위가 빠지고 없다.

91 『宜寧南氏族譜』(장서각 소장)에는 이름이 ‘南建中’으로 되어 있어 박씨 족보와 차이가 있다. ‘建’자가 항렬자다. 남근중은 소론의 영수 南九萬의 서증손으로, 남구만의 측실 소생 南鶴貞의 손자다.

다만 늙음 쉬이 이름 한탄하면서	但恨耄易及
너희 위해 계책 세움 황망하여라.	成立爲汝忙
저기 저 뻐꾸기 미물이건만	感彼鳴鳩拙
새끼들 먹이면서 함께 나누나.	哺子偕翱翔 ⁹²

위 시는 종성 유배 시절 박제가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두 아들을 걱정하며 남긴 것이다. 벽지에서의 고된 생활과 憤鬱한 심사가 드러난다. 자신의 마음은 애써 공부로 다스리지만, 어미도 없이 아직 어린 두 아이가 걱정되는 마음은 어찌할 수 없다. 어린 자식들의 앞날을 염려하며 심려가 깊은 아버지의 마음이 역력하다. 실제 박제가는 1804년 유배에서 풀려난 이듬해 곧 숨을 거두었으니, 嚴父侍下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지 못한 것은 박장암에게 있어 일종의 콤플렉스라 할 수 있겠다.

이후 시간이 더 흘러, 박장암은 29세가 되던 1818년 奎章閣 檢書官에 임명되어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⁹³ 박제가의 벗인 李學逵의 시에 그가 少年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는 언급⁹⁴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아버지를 닮아 가풍을 잘 물려받은 아들로써 평판이 있었던 듯하다. 다만 본래는 큰형인 朴長稔이 아버지 박제가의 뒤를 이어 檢書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었다. 앞서 밝혔듯이 初代 檢書官의 장남으로서 1795년에 이미 대년검서로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이듬해인 1796년에는 실제 檢書官試取人으로서 鄭樵·元有鎮·任得常·徐有殷·柳井均·柳本藝·柳本學·成憲曾·金履疇 등과 함께 檢書官 시험을 치르기 위해 입궐하기도 하였다. 이때 정조가 직접 親試하였다.

다만 이때 박장암은 시취에 입격하지 못했다. 『內閣日曆』⁹⁵을 보면 이날 元有鎮이 七分을 받아 성적이 가장 앞섰다. 여기에 규장각에서 여러 해 힘써 일한 柳得恭의 노고를 보아, 정조의 특명으로 그 장남 유본학이 특별히 입격 처리가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시취 때 六分을 받았던 參奉 鄭樵까지 세 사람이 檢書官이 되었다.⁹⁶ 다만 이때 정조는 각 시취인의 楷書를 평가하며 박장암에게는 “學成大中體, 每朔書入.”이라는 말을 남기는데,⁹⁷ 이는 비록 시취에는

92 朴齊家, 「次朱子感興詩中童蒙貴養正一篇, 寄二樵」, 『貞菴閣詩集』 第五集.
 93 『승정원일기』 1818년 4월 7일 기사. “李止淵以奎章閣言啓曰: ‘檢書官朴長穽·李熙考·朴宗琰, 時無職名, 令該曹口傳付軍職, 使之冠帶常仕, 何如?’ 傳曰: ‘允.’”
 94 李學逵, 「早發咸昌縣, 留贈朴香叔長穽縣監」, 『洛下生集』 冊十八. “相逢不語只相看, 舊事貞菴噩夢殘. 繼世文名傾滿漢, 英季宦迹到辰韓. 茅柴酒入行厨供, 稊稗租將判筆刊. 隨喜古陵萍水地, 一罇重對雨聲寒.”
 95 『內閣日曆』, 1796년 7월 22일 乙丑. “日計劃榜十分, 幼學元有鎮七分, 參奉鄭樵(…) 六分, (….) 幼學柳本學五分, (….) 幼學朴長稔三分, 幼學柳井均二分, 幼學柳本藝一分半, 幼學柳煥一分. (….) 傳于政院曰: “檢書官更試取才, 既親試, 七分以上, 次次隨闕差下, 其中柳本學, 渠父積年效勞於內閣, 何論入格等第之高低乎? 特爲加差.”
 96 『承政院日記』, 1796 7월 26일 기사. “有政, 吏批, (….) 檢書官三單, 鄭樵·元有鎮·柳本學.”
 97 『內閣日曆』, 1796년 7월 22일 기사.

합격하지 못하였으나 대년검서이자 초대 檢書官의 아들로써 특별히 장래를 기대하며 더욱 정진하라는 격려를 해준 것이다.

그러나 정조 사후 박제가의 집안이 옥사에 휘말리며 분위기는 급변하였다. 박제가가 1805년 사망한 뒤 설상가상으로 1806년 큰형 박장암까지 유명을 달리하였다. 본래 박장암이 『호저집』의 서문을 쓴 것은 己巳年(1809)으로 그의 나이 갓 약관이 되었을 때다. 상식적으로 장남인 박장암이 그 편찬을 주도하며 서문 또한 그가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밀성박씨족보』 辛亥譜·丙寅譜(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등에는 박장암이 丙寅年(1806) 정월 25일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그 이후에 박장암에 대한 기록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정황상 부친의 사망에 연이어 큰형인 박장암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부친의 종성 유배와 逆黨에 연루되어 집안의 몰락을 겪으며 고군분투하다가, 부친 사후 박장암 역시 따라가듯 세상을 떠난 것이다.

박제가 사후 대략 10여 년이 지난 1818년, 박장암은 비로소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규장각 檢書官에 임명되며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⁹⁸ 이 뒤로 檢書官의 겸직으로서 長興庫主簿(1820)·通禮院引儀(1822)·司饗院主簿(1823)·興陽牧場監牧官(1824)⁹⁹ 등 관직을 거쳤다. 나중에는 지방 수령으로 나가 咸昌縣監(1833~1836)·振威縣令(1836~1839)을 지냈다. 진위현령을 지내던 중 贓罪로 封庫罷職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후 잠깐의 공백기를 가지다가 1851년 당시 다시 檢書官에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¹⁰⁰ 이후 박장암이 언제 사망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남은 자료로 추측해보건대 1851년 이후로 보아야 할 듯하다. 『日省錄』에 보이는 겸 檢書官 박장암의 마지막 입직일은 1851년 윤8월 4일이다.¹⁰¹ 이후로는 노년의 나이 탓에 젊은 檢書官들의 경우처럼 숙직 등 근무에 투입되지는 않은 것 같다.

98 『승정원일기』, 1818년 4월 7일 기사.
 99 『승정원일기』 참조.
 100 『승정원일기』, 1851년 7월 10일 기사
 101 『日省錄』 0036권, 奎12815, 0021-0026면,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3. 교유 관계

이제부터는 가족 외 박장암의 주변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재 박장암의 문집을 찾을 수 없고 남아 있는 자료 또한 많지 않으나, 『호저집』 및 기타 문헌을 참고하고, 또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경우를 총괄하여 박장암과 유의미한 사귀이 있었거나 적어도 안면이 있었을 인물들의 명단만 우선 정리해 본다.

金正喜, 申緯, 李鼎元(淸), 李學逵¹⁰², 柳本學, 丁學淵¹⁰³, 柳最寬, 金堯, 艸衣禪師¹⁰⁴, 韓在洛, 崔赫, 吳尙琬^{105 106}

이상을 통해 볼 때, 현재 남아 있는 박장암의 교유 관련 흔적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호저집』의 초고를 작성하고 그 중요 내용을 보충하기 시작하였던 1809년 직후에 집중되어 있다. 박장암이 『호저집』의 서문을 쓴 것은 1809년이지만, 『호저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문을 쓴 이후에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충한 흔적이 보인다. 예컨대 『호저집』에는 이정원과 같이 부친 박제가와 수차례 만남을 지속하며 마음을 통해 왔던 청나라 문인과 박장암의 神交 관련 자료가 실려 있는데, 이는 박장암이 막 弱冠을 넘긴 후인 1810년대에 시작하여 중국의 문사들로부터 입수하여 실은 것이다.

이와 같이 다시금 선대의 교분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시기 박장암의 순조조 조선 燕行使들과의 교유를 매개로 해서였다. 이는 박장암이 해당 시점에 북경에 가는 사신 일행

102 李學逵, 「早發咸昌縣, 留贈朴香叔長旣縣監」, 『洛下生集』 冊十八, 『洛下生藁』 上 『菊半齋集』. “相逢不語只相看, 舊事貞蕤噩夢殘. 繼世文名傾滿漢, 英季宦迹到辰韓. 茅柴酒入行廚供, 稊稗租將判筆刊. 隨喜古陵萍水地, 一罇重對雨聲寒.”

103 丁學淵, 「秋日懷人絕句十一首」, 『西山集』(개인 소장, 필사본). “興陽瘴雨濕征袍, 民社都無似馬曹. 何似奎章新脫直, 書樓欹枕聽松濤.” 김영진, 「西山 丁學淵의 회인시 연구 -『秋日懷人絕句十一首』를 중심으로-」, 『韓國詩歌研究』 40, 한국시가학회 2016, 221~222면에서 재인용.

104 柳最寬부터 艸衣禪師까지는 초의선사가 김정희에게 보낸 편지의 공동 수신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편지는 초의선사가 한양을 방문하여 김정희와 박장암 등을 만난 뒤 1815년 10월 27일에 보낸 것이다. 그 말미에 “小蓬萊閣·貞碧·迥蕤·小蕤并手展”이라고 하여 김정희 외 유취관, 김훈, 박장암에게 함께 보냄을 밝혔다. 화봉박물관, 『명선 초의전』, 2011, 18~19면(박철상 해제) 및 박철상, 「정벽 유취관의 연행과 교유」, 『다산과 추사, 정벽 유취관(추사박물관 학술총서 V)』, 2015, 210~211면.

105 吳尙琬은 丁若鏞, 『山行日記』, 『茶山詩文集』 卷22에 이름이 보인다. 『산행일기』는 정약용이 1823년 춘천 유람을 갔을 때의 기록으로, 이때 오상완을 비롯하여 韓晚植·禹正龍의 청년들이 다산을 따라 함께 노닐었다고 하였다.

106 이상 柳最寬, 韓在洛, 崔赫, 吳尙琬의 4인이 신위의 벽로방에 모여 小集을 가진 기록이 있다. 申緯, 「重九, 與命治, 命準, 柳正碧最寬, 朴小蕤長旣, 韓藕泉在洛, 崔笠園赫, 吳玉泉尙琬, 碧蘆坊小集, 以滿城風雨近重陽分韻, 余得詩七首, 各一韻」, 『警修堂全藁』 冊七, 『碧蘆坊藁』 三(庚辰四月至六月), 第4首. “敏捷抄書手, 香叔(注:小蕤字)奎瀛府. 悟徹鑿古眼, 鼎園(注:藕泉字)桑麻戶. 亦一小窳達, 捻吾亡琴補. 山甫(注:笠園字)暨玉父(注:玉泉字), 妙少能接武. 力學豈無資, 得餘冬夜雨.”

들과 교유하면서 선대가 맺었던 우정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자 노력하였던 모습을 보여 주는 흔적이다. 이하에서는 주요한 몇 인물과의 교유 사례를 들어 박장암의 주변을 탐색하여 보겠다.

1) 柳本學

유득공의 아들인 유본학·유본예 형제는 이미 부친 대부터 깊은 교분을 나누었으며 이는 박장암의 대에서도 이어졌다. 그 형인 유본학은 본래 아우 유본예와 함께 박장암의 큰형인 박장임과 교류가 있었는데, 박장암과도 世交를 이어 갔다. 또한 이들은 모두 검서관 동료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제가 일찍이 그대의 소싯적 지은 많은 佳句를 보니 하나같이 뛰어난 것이 외울 만 하였습니다. 게다가 內院에서 숙직하던 중에 지은 시는 기발한 표현이 있어 제가 더욱 기쁘게 여겼습니다. 다작하여 연마하길 권하노니, 곧 그대가 ‘시는 上乘의 재주가 아니라면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종신토록 한 편의 賦詠도 없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속으로 심히 의혹스럽습니다. 옛사람이 하필 상승의 재주를 다 얻은 뒤에야 시를 지었던 말입니까? 실로 능히 性情을 표현하고 學識을 펼쳐 보여 진부한 말을 제거하고 新意를 세운다면, 그 성취한 바가 한 시대의 시인으로서 이름이 날 것이며, 노력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비록 상승의 재주는 아닐 지라도 점차 상승의 경지로 다다름이 또한 못할 것이 없을 터. 하물며 그대의 아버님께서서는 우리 아버님과 함께 詩道로 이름이 한 시대를 뒤흔들었으며 중국에까지 흘러가 전해지기에 이르렀던 분이시니, 우리들이 비록 불초 자식이나 어찌 繼述하려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노쇠한 나이에도 오히려 「下俚」와 같은 속된 소리 내는 것을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매양 그대의 시를 볼 때마다 詩稿 가운데 근체시가 많고 고체시가 적으면 곧 별도로 고체시를 지어서 채우고, 근체시가 적을 경우에도 또한 그렇게 하니, 그대가 고심하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실로 선대의 공업을 실추시킬까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죽하의 오묘한 재주와 지혜로운 성품으로 서적에 통달하고 작은 일에는 얽매이지 않아 또한 시 짓기를 즐기지는 않겠지만, 제 편지를 보신다면 반드시 밝게 깨우쳐 지나친 말이라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름지기 風騷를 드날려 지은 작품이 날로 풍부해져야 될 것입니다. 전에 부쳐주신 古松歌 및 장편에 화운하여 드림은 비단 창수하는 아름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 또한 그대가 聲律을 다듬는 시작이니, 부디 이를 유념

위는 유본학이 박장암에게 보낸 편지 「박향숙에게 주다[與朴香叔書]」¹⁰⁸로 『問菴文藁』에 보인다. 위 글에서 유본학은 박장암과 시문을 주고받으며 박장암의 시 짓기를 독려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박장암은 박식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면서도 시를 많이 짓지는 않았는데, 이에 대해 아마도 漢詩四家로 꼽히던 아버지 박제가의 이름을 더럽힐까 걱정하여 부담을 느껴서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 박장암이 시를 지을 때 古·今體詩를 두루 지으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였다. 이에 그의 부담감을 이해해 주면서도 시를 잘 짓는 사람만이 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며 더 적극적으로 詩作에 임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유본학은 막냇동생뻘인 박장암에 대해서 도움을 주며 그의 성취를 격려하는 관계를 이루었던 것 같다.

내용을 보면 편지를 보낸 시점은 박장암이 검서관에 임명되어 벼슬살이를 시작한 다음인데, 비슷한 시기 유본학은 「朴香叔詩集序」를 지어 주며 선대의 업을 잘 이어받아 詩作에 힘쓸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

박향숙은 정유선생의 삼남이다. 정유선생은 우리 아버님의 벗이어서 나는 향숙과 더불어 세교가 있었다. 정유선생이 돌아간 뒤로 지금에 이르기까지가 십여 년인데, 서로 南北巷으로 떨어져 살면서도 자주 왕래하였다. 향숙은 성품이 차분하여 망령되이 談笑하는 일이 없었으며, 남을 대하면 단정하게 앉아 있기를 修飭하듯이 하였다. 文藝나 繪畫, 彝器 등속에 대해 논할 적이면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 종일토록 논란하여 그치지 않는 것을 켜은 한마디로 분석하여 모두 그 요체를 얻으니, 정유선생이 名理를 해석하던 모습과 꼭 같았다. 그러나 그가 시에 능한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루는 지은바 古·今體詩 약간 편을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하나같이 뛰어난 일 만하였다. 旖旎한 것은 그 詩態요, 要妙한 것은 그 詩語이니, 오롯이 같고 닦아 옛 詩作을 쫓고자 하는 뜻은, 아! 家學을 잃지 않았다고 하겠다.

107 柳本學, 「與朴香叔書」, 『問菴文藁』. “僕曾見足下少時作多佳句, 楚楚可誦. 又內院直中所題, 有警語, 僕益喜之, 勸以多作工練, 則足下以爲詩非上乘之才, 不必爲, 終年無一篇賦詠, 竊甚惑焉, 古人豈必盡有上乘之才, 然後下筆哉? 誠能陶寫性情, 展布學識, 去陳言而立新意, 其成也, 以一代詩人名爾. 又若致力不已, 雖非上乘之才, 漸至上乘, 亦不難也, 況足下先公, 與僕之先君子, 俱以詩道, 名動一世, 至流傳中國, 吾輩雖不肖, 豈無繼作之心? 故僕以衰老之年, 猶不廢下俚之音. 每閱詩稿中, 近體多而古體少, 則另賦古體以足之, 近體少, 亦如之, 苦心可知, 而誠恐墜舊業也. 足下妙才慧性, 淹貫書籍, 脫略少務, 亦似不屑詩, 而若覽僕之書, 必粲然契悟, 不以爲過語也. 從今須揚挖風騷, 所著日富, 而前寄古松歌及長篇和贈, 非但唱酬之美事, 是亦足下治聲律之權輿, 其留意焉.”

108 柳本學, 「與朴香叔書」, 『問菴文藁』(수경실 소장). 이하 수경실 소장 『問菴文藁』 소재 자료는 정민 교수님의 厚恩으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린다.

나는 참으로 노둔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능히 詩道에 있어 이론 바가 없다. 그러나 일찍이 듣건대 정유선생께서 시를 배울 적에 젊어서부터 공력을 들이기를 부지런히 하였고, 시어를 지으며 고루한 것을 새롭게 바꾸었다. 唐·宋·元·明 역대의 작품을 모두 두루 보고 그 英華함을 취하되, 어느 한 작가를 흉내 내어 구애되는 일은 절대로 피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정유선생의 시를 읽으면 천연인 듯 이루어져 어근버근 생경한 가락이 없어 중국 사람이 누차 칭찬한 바이니, 이는 실로 시인의 진정한 도이다. 전에는 정유선생께 나아가 질정하였던 것을 이제는 또한 그대에게 고하노니, 그대가 시를 배우려거든 어찌하여 다른 데서 그 힘쓸 바를 찾을 것인가? 동곽의 전원은 옛날에 그대가 살던 곳이다. 집 앞에 古松이 서려 있는 것이 심히 기이하고, 이름난 샘물이 달고도 시원하여 마실 만하니 도성의 勝景이었다. 그대의 아버님께서 일찍이 이곳에서 名理를 이야기하고 이곳에서 詞章을 지으셨으니 나도 거닐며 참여하여 들은 바이다. 알지 못하겠으나 집의 주인이 바뀐 뒤에 전원이 황폐하여 못 쓰게 된 것은 아닌가. 시간이 날 때 그대와 더불어 솔바람 소리와 흐르는 샘물 사이에서 재차 논의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 그대의 詩所를 또한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는가?¹⁰⁹

위 「박향숙시집서」는 유본학이 그 시집에 써 준 서문이다. 단락은 필자가 임의로 나누었다. 이 글은 내용으로 보아 앞서 읽었던 「여박향숙서」를 썼을 즈음에 지었다. 박제가와 유득공이 돌아간 뒤에도 두 집안은 모두 서울에 거거하며 선대의 곡진했던 교분을 이어 왔다. 또 유본학은 앞서 「여박향숙서」에서도 박장암이 시 짓기에 적극적이지 않고 혹여 선대의 공업을 실추시킬까 걱정한다고 말하였는데, 또한 여기서도 박장암의 성격이 매우 조심스러우며 언행을 지극히 삼간다고 평하였다. 이는 아버지 박제가가 어찌면 자못 불손하게 보일 정도로 자신 만만하며 마음에 있는 말을 숨기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평가되는 것과는 판이하다. 물론 유본학이 본래 박장암의 큰형 박장임의 또래로 박장암이 그 앞에서는 다소 삼가는 태도를 보일 수

109 柳本學, 「朴香叔詩集序」, 『問菴文藁』(수경실 소장). “朴香叔, 貞菴先生之第三子. 貞菴, 先君子之友, 故余與香叔有世好. 自貞菴沒後, 至于今十餘年, 相去南北巷, 而猶數過從也. 香叔性沈靜, 不妄言笑, 對人端坐若修飭者. 至於論文藝及繪畫彝器之屬, 他人之所未真知, 終日辨難不已者, 君以一言析之, 皆得其要, 宛如貞菴之解名理, 而未知其能詩也. 一日以所作古今體若干篇示余, 皆楚楚可誦. 旖旎者其態, 要眇者其語, 專欲磨洗以追古作者之旨, 嗚呼! 可謂不失家學者也. 余實魯莽, 母能有爲於詩道, 而然嘗聞貞菴學詩, 自早歲用工勤, 而造語新古, 唐宋元明歷代之作皆博閱, 取其英華, 切忌其模擬一家以至拘滯. 故讀貞菴之詩, 混然天成, 無冷僻之調, 所以中國人之亟稱者, 而此實詩家真詮也. 嘗就質於貞菴, 而今又告於子, 子欲學詩, 豈在他求其勉乎哉? 東郭田園, 昔子之居也, 宅前古松盤拏甚奇, 名泉甘冽可飲, 京都之勝, 而子之先君子, 嘗談名理於斯, 賦詞章於斯, 余所徜徉而與聞者也. 未知僦屋之後, 田園不荒穢否. 暇日與子更論於松聲泉流之間, 可矣, 而子之詩所, 亦豈他求也?”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선대의 명성에 누가 될까 매사에 지극히 조심하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혹여라도 才勝薄德하다는 평을 듣지 않도록 근신하였던 것이다.

2) 李鼎元

박장암과 청 문인 이정원과의 교류는 박제가와 이정원의 교류를 世交로서 이은 것이었다. 박장암은 이정원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였지만, 연경으로 떠나는 조선 연행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정원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적 등을 교환하고 그림과 그 필적을 얻게 된 등 교류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縞紵集』編輯 卷1(戊戌) 이정원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정원과의 교류 과정에서 당시 박장암이 접촉할 수 있었던 연행사절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박장암은 이정원과의 교류 과정에서 김정희·홍만섭·신위·유취관·심상규 등 문인들과 직접 접촉하거나 혹은 이정원의 편지를 賁緣으로 하여 이들과 접촉할 기회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박장암은 이정원으로부터 그림 <行樂小像>과 『師竹齋集』을 입수하고, 이 두 작품의 題跋을 매개로 閥閥들과 접점을 만들었다. <행락소상>은 이정원의 초상으로 그가 35세 되던 해에 그린 것인데, 그가 유취관을 통해 1812년 10월에 박장암에게 부쳤다. 이 그림은 추후 박장암이 김정희, 심상규, 신위 등에게 두루 부탁하여 題詩를 받았다.¹¹⁰ 이 그림은 <獨吟(獨行)小照>라고도 부르는데, 이정원의 自題原韻 첫 두 구절에 “홀로 읊고 다시 홀로 읊으니, 온 세상에 날 알아줄 이 누구이리오[獨吟復獨吟, 舉世誰知音]라고 한 데서 왔다.

『사죽재집』(성균관대 존경각 소장)은 14권 3책으로 이정원의 시집이다. 이정원은 이를 옹방강의 아들 翁樹崑을 통해 박장암에게 부쳤고 이는 1814~1815년 사이 조선에 도달하였다. 표지에 ‘小蕤寶藏’, ‘貞碧題簽’이라 쓴 김정희의 글씨가 있으며, 여기에 옹수곤, 박장암, 유취관의 인장이 찍혀 있어 19세기 초반 조청 간 문인 교류의 실상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박장암은 이보다 앞선 1812년 박제가의 말년 원고를 묶은 『竟信堂集』(『竟信堂夾袋』)을 이정원에게 전달하여, 박제가와 이정원의 시집을 서로 주고 받게 되었다. 『경신당집』은 박제가의 말년 시문을 모은 것으로, 유배 생활의 고통스러움과 그림에도 학문에 매진하여 자신을 가다듬으려 노력하였던 박제가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글이 많다.¹¹¹ 박제가와 긴 시간 교

110 金正喜, 「題李墨莊獨行小照, 即寄贈小蕤朴君者也」, 『阮堂全集』卷10; 沈象奎, 「題李墨莊行樂小像. 丙寅(1806)後七年(1813)重陽」 『斗室存稿』卷2; 申緯, 「朴小蕤長髯屬題李墨莊鼎元獨吟小照, 次墨莊自題原韻」, 『警修堂全藁』冊四 『菴齋續筆』(1817).

111 안대회, 「朴齊家の 竟信堂夾袋와 北關風情」, 『韓國漢詩研究』12, 한국한시학회, 2004; 박종훈, 「楚亭 朴齊家の <竟

유를 이어 왔던 이정원에게 있어, 이 문집은 죽은 벗의 말년을 짐작하여 볼 수 있는 귀중한 흔적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박장암이 이정원에게 『경신당집』을 부친 것은 전후사정을 다 아는 집안사람으로서 이정원이 아버지의 心友가 됨을 마음 깊이 허여하였던 데서 말미암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시	사행	내용	縞紵集 관련 자료
1809.10~1810.3	冬至使行 ¹¹²	이정원, 부사 金魯敬의 자제군관 金正喜와 교류.	-
1810.10~1811.3	冬至兼謝恩使行 ¹¹³	이정원, 1811년 옹방강의 집에서 穎山 洪萬燮을 만남. 홍만섭은 형제인 서장관 洪冕燮 및 洪箕燮과 동행해 연경에 올. 이때 홍만섭을 통해 박제가의 죽음을 알았다고 언급함, 인하여 人日(정월 7일)에 ‘극초정’ 시를 써서 홍만섭 편에 부침.	『縞紵集』編輯 卷1(戊戌) 이정원조 「哭楚亭」, 「附 面??將東歸, 詩以贈之, 并求指政」, 「附 別穎山秀才」
1812.7~1812.12	陳奏兼奏請使 ¹¹⁴	이정원, 서장관 신위 및 신위를 수행한 유취관과 교류 이정원, 10월 3일에 유취관으로부터 박장암이 쓴 편지와 박제가 시집 1권(경신당집)을 받음. 이정원, 10월 7일에 답장을 씀. 이때 박장암의 편지에서 언급한 ‘추사가 겨울에 부친 편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며, 옹방강의 문하생 이임송에게 부친 편지 또한 이임송이 작년 7월에 奔哭하여 고향으로 갔으므로 받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대신 답변함. <行樂小像>을 함께 부침. 또한 박장암이 편지로 요구한 『淸脾錄』 대신 『雨邨詩話』 1부를 부침. 이와 함께 지난해(1811) 지었던 「극초정」 시를 다시 유취관 편에 부치며 박장암에게 전해 달라 부탁.	『縞紵集』編輯 卷1(戊戌) 이정원조 「哭楚亭」, 「附 答小蕤」
1812.10~1813.3	冬至兼謝恩使 ¹¹⁵	이정원, 1813년 봄 정사 沈象奎와 교류.	『縞紵集』編輯 卷1(戊戌) 「附 答小蕤」
1813.2~1813.6	謝恩使 ¹¹⁶	이정원, 박장암이 보낸 편지를 1813년 5월 1일에 받아봄, 이후 5월 10일에 답장을 씀. 이정원은 이 편지에서 심상규, 김정희, 朴次山(茨山?) ¹¹⁷ , 홍만섭에게 함께 안부를 전하였으며 박장암의 부탁을 받아 ‘師墨齋’의 편액을 직접 써 보내고 ‘師竹’의 뜻을 밝힘.	『縞紵集』編輯 卷1(戊戌) 「附 答小蕤」
1813.10~1814.2	冬至使 ¹¹⁸	이정원, 1814년 정월 10일에 박장암의 편지를 받아 보고 회신함. 이때 『도덕경주』 1부를 함께 부쳤으며, 『師竹齋集』은 아직 판각이 덜 되어 다음 인편에 부치겠다고 답함. 박장암이 이전에 부탁하였던 옹방강의 ‘사목재’ 편액 글씨에 대해, 이해 겨울 인편이 있으면 오류거 서사에 맡겨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더불어 박제가의 經說 및 심상규에게 부탁했던 조선의 金石文을 보내달라고 부탁함. 공동수신자 유취관.	『縞紵集』編輯 卷1(戊戌) 「附 答小蕤」

<표 1> 이정원과 박장암 및 조선 문인들과의 교류 상세

信堂夾袋> 小考」, 『韓國漢文學研究』40, 한국한문학회, 2007.

112 상사 朴宗來, 부사 金魯敬, 서장관 李永純.

113 정사 李集斗, 부사 朴宗京, 서장관 洪冕燮.

114 정사 이시수, 부사 김선, 서장관 신위.

115 정사 沈象奎, 부사 朴宗正, 서장관 李光文.

116 시기상 정사 李相璜, 부사 任希存, 서장관 洪起燮으로 보임.

117 여기서 朴次山이라는 인물은 茨山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 자산이란 호를 쓴 사람으로 순조 때 활동한 朴善性이 있다. 李尙迪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김명호, 「李彦璜과 「虞裳傳」」, 『한국문화』7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118 시기상 상사 韓用鐸, 부사 曹允遂, 서장관 柳鼎養으로 보임.

3) 申緯

앞서 이정원과의 교류 과정에서 박장암의 김정희·신위와의 교류 정황을 살펴보았는데, 이중 신위와의 교류는 특히 『호저집』의 편찬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살펴볼 만하다.

앞서 <행락소상>의 경우와 같이 박장암과 신위와의 교류 중 예술품의 賞鑑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하나 더 있다. 현재는 행방을 알 수 없는 박제가 집안 舊藏 <蘆洲雪雁圖>를 통한 교류가 그것이다.¹¹⁹ <노주설안도>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물가 갈대밭에 모인 흰 기러기를 그린 그림인데, 수많은 기러기떼의 제각기 천연스러운 모습을 그려낸 걸작이었다고 전한다.

『호저집』編輯「羅聘」조에 수록된 「건륭 55년(1790) 8월 18일 초비당 박제가 검서가 이 軸卷을 꺼내 제시를 청하니, 인하여 절구 3수를 지어 요청에 응하였다[乾隆五十五年八月十有八日, 苜蓿堂朴檢書出此卷索題. 因成三絕句應教]」시는, 박제가가 1790년 나빙에게 받아온 이 그림의 題詩 3수다. 이 아래 박장암의 案說이 달려 있다.¹²⁰ 시기상 박장암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畫軸이 집에 있는 것을 보고 자랐을 것이며, 더불어 위 안설을 통해 박장암이 『호저집』의 초고를 완성하였을 시점인 己巳年(1809)경까지는 여전히 이 그림을 박제가 집안에서 소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즈음 박장암은 집안의 옛 墨緣을 다시 잇기 위해 북경에 가는 燕行使와 접촉하면서 추사, 자하, 정벽 등 인물과 안면을 쌓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장암이 신위에게 <노주설안도>의 跋文을 청해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신위가 <노주설안도>에 처음 발문을 남겼을 때가 壬申年(1812)¹²¹인데, 이후 신위가 이를 某人으로부터 팔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가 1822년~1823년 즈음¹²²이었다. 곧 이때 <노주설안도>는 이미 박제가 집안의 손을 떠나 세간에 나온 상태였다. 신위는 이를 소장하고자 하였으나 값이 비싸 거절하고 대신 다시금 서와 題詩를 남겼다고 하였다.¹²³

119 박제가의 <노주설안도> 구득 경위 및 이후 그림의 행방, 박제가의 연경 방문 당시 그 화축에 題한 중국 문인들의 題書詩와 관련된 교류의 상세, 그리고 이에 대한 藤塚隣의 정리에 관하여서는 정민,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 하버드 연칭도서관에서 만난 후지쓰카 컬렉션』, 문학동네, 2014, 534~550면에 자세하다. 이하에서는 박장암과 신위의 교류 정황에 한정하여 살펴보겠다.

120 박장암의 안설: 집에 <노주백안도>가 있는데, 양봉 나빙은 원나라 사람의 그림이라고 감정하였다. 아정(雅亭) 이덕무와 영재(冷齋) 유득공이 각각 시를 남겼고, 선군께서 이를 쓰셨다. 萃溪 王肇嘉가 두루마리의 첫머리에 다섯 자 큰 글씨를 썼고, 覃溪 翁方綱 또한 시를 남겼다. 선군의 시는 練水 王濤가 썼는데, 그 아래에 선군의 짧은 발문이 실려 있다[醜案: 家有蘆洲百雁圖, 兩峯鑒定爲元人筆跡. 雅亭冷齋竝各有詩, 先君寫之. 王萃溪肇嘉書卷首五大字, 翁覃溪亦有詩. 先君詩則王練水濤書之. 下有先君小跋].

121 申緯, 「題元人蘆洲雪雁圖」, 『警修堂全藁』 冊二十八 『覆瓿集』 九. “花之老衲覃溪叟, 古墨參禪雪雁洲. 我亦有題忘已久, 依稀記得壬申秋.”

122 해당 글이 수록된 『覆瓿集』 九에 “壬寅八月, 至癸卯二月.”의 부기가 있다.

123 이와 관련하여 『호저집』에 수록된 나빙의 시 「건륭 55년(1790) 8월 18일에 초비당(苜蓿堂) 박제가 검서가 이 두루마리

또 박제가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중국 문방구가 신위에게 넘어간 사례도 있었는데, 박제가가 중국에서 받아온 純羊毫筆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위의 「純羊毫」시가 남아 있다. 신위는 시 중간에 주석을 달아 얻게 된 유래를 밝혔는데, 그에 따르면 이 붓은 본래 박제가가 중국에 갔다가 燕士에게 받은 것으로, 宋告人이 만든 것을 一床 받아서 가져왔다 하였다.¹²⁴ 이 시기 조선에서는 옹방강의 서체가 유행하며 중국산 양호필이 함께 인기를 끌었다.¹²⁵ 개중에서도 이 양호필은 특히 진귀한 고급품이었던 듯하니, 박제가를 제하면 신위만이 소유한 물건이었다.

박제가의 순양호필은 박제가 사후 어떠한 경로를 통해 신위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다. <노주설안도>의 경우처럼 거간꾼을 통하였을 수도 있지만, 박장암을 통해 신위에게 증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通行本 『警修堂全藁』에 보이는 박장암의 이름은 丁丑年(1817)¹²⁶에 처음 나타난다. 신위의 순양호필 시는 己卯年(1819)에 지은 작품으로¹²⁷ 대개 시기가 같다. 19세기 藝苑의 영수였던 신위와의 교분은 박장암에게 있어 중요한 기회였을 것이다. 뛰어난 감식안의 소유자이자 수집가였던 신위와의 관계에서 청 문사에게 받은 귀한 문방구는 당대의 저명한 수집가였던 신위의 古董書畫 趣味를 충족하는, 교분의 매개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이때 박장암은 신위와의 교류를 지속하면서 추후 『호저집』의 내용을 보충할 기회 또한 얻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호저집』에 인용된 陳文述의 『畫林新詠』 박제가 조와 「朝鮮二賢을 노

를 꺼내 제시(題詩)를 청했다. 인하여 세 수의 절구를 이루어 요청에 응함[乾隆五十五年八月十有八日, 苜蓿堂朴檢書出此卷索題. 因成三絕句應教]」 총3수에는 노주설안도의 내력에 대한 박장암의 안설이 붙어 있다.

“집에 <노주백안도(蘆洲百雁圖)>가 있는데, 兩峯 羅聘은 원나라 사람의 그림이라고 감정하였다. 아정 이덕무와 영재 유득공이 각각 시를 남겼고, 선군께서 이를 쓰셨다. 萃溪 王肇嘉가 두루마리의 첫머리에 다섯 자 큰 글씨를 썼고, 覃溪 翁方綱 또한 시를 남겼다. 선군의 시는 練水 王濤가 썼는데, 그 아래에 선군의 짧은 발문이 실려 있다[醜案: 家有蘆洲百雁圖, 兩峯鑒定爲元人筆跡. 雅亭冷齋竝各有詩, 先君寫之. 王萃溪肇嘉書卷首五大字, 翁覃溪亦有詩. 先君詩則王練水濤書之. 下有先君小跋].”

124 『警修堂全藁』 冊六, 『貂錄 四』, 「純羊毫」. “朴貞蕤得來燕士所贈純羊毫, 宋告人製者一床, 其筆余篋中尚有在者, 始能用此筆者, 余與貞蕤兩人而已.” 이후 이유원의 『임하필기』 「宋吉人羊毫」에 역시 벽로당에서 한 자루를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125 金鏞, 「衆器五絕四十二首」 중 ‘羊毫筆’, 『萬蟬窩讀藁』, 『薄庭遺藁』 卷之四. “今世工書人, 酷嗜羊毫筆. 新法覃溪傳, 勁韌妙無匹.” 그 注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서예가들은 옹방강체를 본받아 즐겨 양호필을 쓴다. 김상준이 나에게 1束을 보내 주었다[近世筆家效翁方綱體, 好用羊毫, 金相楫送筆一束].”

126 申緯, 「朴小菴長髯屬題李墨莊鼎元獨吟小照, 次墨莊自題原韻」, 『警修堂全藁』 冊四 『菴齋續筆』. 『菴齋續筆』에 “丁丑(1817)七月, 至十二月.”의 부기가 달려 있다.

127 『警修堂全藁』 冊六, 『貂錄 四』, 「純羊毫」. “羊毫往歲東來始, 解者使君與操耳. (注: 朴貞蕤得來燕士所贈純羊毫, 宋告人製者一床, 其筆余篋中尚有在者, 始能用, 此筆者, 余與貞蕤兩人而已.) 近漸名噪於藝林, 嗜羊毫者滔滔是. 毫性純一森戈矛, 落地勁直含和柔. 會稽胎髮此一意, 千軍掃盡奇功收. 苟不善用骨力弱, 腕中有鬼病朶脈. 耳食奚暇計利鈍, 黃毛一切束高閣. (狼尾俗名黃毛.) 我歎書學頓衰遲, 以羊易之罪在斯. 膠柱鼓瑟可罪瑟, 王者不易民而治. 三千之徒聖門及, 身通書藝纔七十. 世降澆俗無忌憚, 斯藝通否不拘級. 彼爲弁冕視瞻尊, 傭奴被服吾亦云. 夫人可用麟館選, (羊毫刻名, 有香麟館選,) 比屋皆寫羊欣帚. 違論紙上成否字, 不知羊性焉能使. 日去嚴密就艸學, 賢愚胥溺堪一喟. 文董云乎動輒援, 汗不至此董與文. 我思書弊球有術, 硯紙狼毫漢字真. (尤梅菴高麗竹枝詞句.) 真正楷正無工拙, 馬蹠蚕頭森法律. 狼尾自盡柔毛退, 趨向從茲變有日. 度德量力是爲知, 代匠血指寧不悲. 詩成使我擲筆嘆, 篆雲靈霧起硯池.”

래한 시. 시어사 추음 장시(蔣詩)가 홍해거와 신자하 두 선생의 시문을 외는 것을 듣고 짓다 [朝鮮二賢詩. 聞秋吟侍御, 誦洪海居申紫霞兩先生詩文作] 시 1수(이하 「朝鮮二賢詩」), 그리고 吳衡照의 「高麗臺笠吟」 1수이다. 이 자료들은 모두 『縞紵集』 纂輯 권3 후반에 追記된 것이다. 곧 초고 때는 기록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나중에 입수해 보충한 부분으로, 『호저집』의 본래 형식과는 기술 방법이 동떨어져 있음이 한눈에 보인다.¹²⁸ 아래는 『호저집』에 수록된 진문술의 『화림신영』 및 「조선이현시」 전문이다.¹²⁹

『화림신영』: 진문술 저. 자 雲伯, 전당 사람.

박정유. 이하는 외역(外域)이다. 이름이 제가이고 자는 수기인데, 貞蕤居士라고 자 호하였다. 글씨를 잘 쓰고 그림에도 뛰어났다. 건륭·가경 연간에 여러 번 사신의 명을 받들어 연경에 와서 중국의 사대부들과 수창한 작품이 많았다. 우리 집안의 仲魚 진전 徵君이 그의 시문을 간행하여 『정유고략』이라 하였다.” 진운백이 지은 『화림신영』 가운데 보인다.¹³⁰

동국의 詩聲 높은 빼어난 이 인재는	東國聲詩此逸才
자주 임금 명 받들어 瀛臺를 모시었지.	屢承天語侍瀛臺
또렷한 압록강 강 머리의 달빛은	分明鴨綠江頭月
용만관을 비추며 늦도록 푸르다네.	照見龍灣晚翠來
동방엔 예로부터 군자가 많았는데	東方自古多君子
오늘날 조선에는 두 어진 이 있다네.	日朝鮮有二賢
申公이 경술에 깊은 줄은 알았지만	共識申公邃經術

128 『호저집』 찬집의 경우 각 권마다 박제가가 교유한 중국 인물의 이름을 먼저 적고, 이하에 대개 ‘자호→출신→관력→재주와 위상→박제가의 관련 시문’ 순서로 소개하였다. 반면 해당 부분은 저술 이름을 인물명보다 먼저 내세웠으며 서술이 메모 수준에 가깝다. 더불어 박정유는 중국 문인들의 시문을 수록할 때, 수신인이 박제가가 아니거나 박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작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附의 형식으로 한 칸 내려 쓰기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홍현주와 신위를 「조선이현시」 부분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곧 정돈을 거치지 않은 追記임을 알 수 있다.

129 『화림신영』의 19세기 조선 전래와 당시 조선 畫壇에서 이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세밀하게 탐구한 바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박무영, 18-19세기 중국여성예술가들의 소식과 조선의 반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2008; 이현일, 「조선 후기 경화세족의 이상적 여성상-申緯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을 참조. 신위의 진문술과의 교유와 『화림신영』에 신위와 홍현주의 그림이 실리게 된 내력, 「조선이현시」의 전래 등에 대해서는 이현일, 위의 글, 2009; 박무영, 「조선 후기 韓·中 교유와 전더담론의 변화-徐令壽閣의 중국 반출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5, 한국고전문학회, 2014; 임영길, 「자하(紫霞) 신위(申緯)와 청 문단의 교유양상 — 1812년 연행 이후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1 등을 참조.

130 “畫林新詠, 陳文述著. 字雲伯, 錢塘人. 朴貞蕤 以下外域 名(원문에는 명을 지우고 차이라고 고쳐 썼음)齊家, 字修其, 自號貞蕤居士. 工書善畫. 乾嘉之際, 屢以奉使來京師, 與中朝士大夫, 多酬唱之作. 家仲魚徵君, 刻其詩文, 爲貞蕤稿略. 見雲伯所著畫林新詠中.”

다시금 洪邁의 시편 많음 들었다네.	更聞洪邁富詩篇
성명이 中朝에서 오래도록 무거워서	姓名久爲中朝重
지은 글이 도리어 우리에게 전하누나.	文字還應我輩傳
마치 예전 정유거사 지었던 시에서	恰憶貞蕤老居士
압록강 구름 나무 먼 하늘에 맑단 말 생각나네.	綠江雲樹澹遙天

주지되다시피 진문술은 박제가의 『貞蕤稿略』을 간행한 陳鱣와 한집안 사람이다. 『화림신영』은 1827년에 탈고된 이후 1832년 조선으로 전해져 신위의 손에 들어갔다.¹³¹ 박장암이 『호저집』에 『화림신영』의 내용 및 신위와 홍현주를 노래한 「조선이현시」를 추가할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신위를 통해서 가능했을 것이다. 박장암은 신위를 통해 『화림신영』을 열람하였고, 『화림신영』의 글뿐 아니라 「조선이현시」까지 『호저집』에 추가하였다. 특히 「조선이현시」는 그 말미에 옛날 박제가가 청나라에서 문명을 떨친 일을 언급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인의 입을 통해 19세기 교류사의 시작점을 박제가로 비정한 언급이어서 박장암에게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이어서 『호저집』 내 진문술 조 바로 뒤에는 청 문인 吳衡照의 약력과 「고려대립음」 1수(并引)가 실려 있다. 오형조 역시 진문술과 마찬가지로 진전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다. 자가 子律인 오형조는 그 本籍이 절강 해녕으로 진전과 동향이며 안면이 있었다. 게다가 그의 숙부이자 拜經樓의 장서가 吳騫은 진전과 절친한 사이였다.¹³²

날렵하게 샷갓 쓴 저 멋쟁이 어여쁘네	臺笠伊糾美彼都,
어이해 쓴 것 벗어 우리에게 주시는가.	何緣脫贈到吾徒.
훗날에 이것 쓰고 전원으로 돌아가면	他時戴此歸田去,
동과 노인 비를 맞는 그림에 견주겠네.	好比東坡冒雨圖.

위 시는 진전이 박제에게 준 「삼가 정유 사장(詞丈)께서 주신 물건에 감사하며, 4수를 적어 바로잡아주시기를 구하다[奉謝貞蕤詞丈惠物四首錄, 求是正]」 4수 중 제3수 「野笠」이다.

131 申緯, 「錢塘陳雲伯文述, 有朝鮮二賢詩, 自注曰, ‘聞秋吟侍御誦申紫霞洪海居詩文而作.’ 今年, 並其所刻畫林新詠二冊, 自馬教習 光奎 所寄來, 馬教習言庚寅夏, 蔣秋吟子 鉞 遷浙鄉時, 留書曰敝同里人陳雲伯先生, 寄紫霞, 海居兩先生信件, 乞轉致之, 此書留於丁舍人 泰, 舍人又歿, 今春, 始自馬教習寄來, 遠信浮沉, 屢經存歿, 三年然後竟能入手, 亦四海奇緣也, 卽次原韻.」 『警修堂全藁』 冊十八 『養硯山房藁』 二(壬辰(1832)六月至七月).

132 陳鱣, 『簡莊文鈔』 卷1, 「吳衡照海昌詩淑」. “陳鱣字仲漁, 號簡莊, 嘉慶丙辰舉孝廉方正, 旋中戊午舉人案. 簡莊先生, 余同年友, 素與余叔 兔牀先生, 敦道義交.(下略)”

『호저집』編輯 권3(辛酉)에 실려 있다.

진전은 1801년 박제가와 유득공을 연경 오류거 서점에서 처음 만나 교분을 맺었다. 작별하기 전 박제가는 진전에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선물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조선의 갓이었다. 위 시의 첫 구에는 이국의 희한한 모자를 본 소감을 『시경』의 구절을 끌어와 멋들어진 모습이라며 묘사했다. 이어서 예고 없이 박제가에게 선물을 받았던 놀라움과 기쁨을 나타내고, 조선의 갓이 가진 멋을 〈東坡笠屐圖〉속 소동파의 소박하고도 운치 있는 샷갓과 나막신 차림에 견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진전이 받아들인 갓은 이후 오건에게 증명되었다. 이때 오형조가 함께 있었고 그는 숙부의 지시로 즉석에서 「고려대립음」 1수를 지었다.¹³³ 아래 전문을 보인다. 구절마다 갓에 관련한 고사 전거를 한껏 끌어다가 사용하여, 선물받은 갓을 두고 고풍스러우며 은자의 한가로운 생활에 어울리는 옛 모자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신으로 건너온 박제가 검서	使臣朴檢書
조선국으로부터 찾아왔다네.	來自朝鮮國
臺笠을 선물로 보내왔는데	臺笠相饋遺
보통은 찾아도 구할 수 없지.	尋常索不得
髻翁이 가져와 보여주면서	髻翁轉見餉
종이와 먹을 주며 시 짓게 했네.	副以紙與墨
푸른 바다 일찍이 역로 거쳐 통하니	滄海曾經驛路通
앞어두면 하늘 같아 좋은 장인 솜씨일세.	覆同天樣出良工
고개 젓는 옆 그림자 대궐길보다 가볍고	掉頭側影輕於籊
정수리의 둥근 빛은 도리어 쭈대 같네.	摩頂圓光轉似蓬
筍皮와 葵葉으로 잔뜩 멋을 부렸으니	筍皮葵葉徒誇劇
어찌 푸른 비단 써서 머리를 꾸미겠나.	那用青繒飾檐額
노를 안고 꿈속의 도롱이를 가져가니	擁棹兼携夢裏蓑
꽃 볼 때 그림 속의 나막신과 딱 맞구나.	看花定配圖中屐
집 밖의 푸른 산엔 몇 이랑의 밭 있어도	屋外青山數畝田
동쪽 밭 오간 지가 몇 년이나 되었던고.	東菑來往幾經年

133 吳衡照, 「高麗臺笠吟 并引」, 『縞紵集』纂輯 卷3 辛酉. “笠質圓體輕, 以夫須爲之. 色深黝, 極細緻, 可愛. 高麗貢使朴貞蕤齊家, 贈陳簡莊鱸, 簡莊歸貽季父兪牀先生鶩, 席上命作.”

예전 만든 夫須 모자 지금껏 남았으니 夫須舊製今猶在
한가로이 호미 기대 鄭箋을 고증하리. 閒倚鋤頭證鄭箋

이상을 통해 볼 때, 박장암과 신위의 교유는 박장암 청년기의 일시적인 교유가 아니었고, 시간이 더 흘러 박장암이 40대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까지 이어졌다. 신위와 김정희 등과의 교유를 매개로 한 박장암과 이정원과의 교유 내용이 고스란히 『호저집』에 실린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무엇보다 이후에도 신위를 통해 『호저집』의 내용을 보강하고 청 문단의 최신 자료에 접근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그 관계는 박장암에게 의미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4. 『호저집』 편찬의 지향

지금까지 살펴본 박장암의 교유 양상은 유본학과의 경우처럼 부친 대의 世交를 이어 온 경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이정원과의 교유 과정이나 신위와의 교유를 살펴볼 때, 아버지 대의 교유를 재현하려는 목적의 실현을 위해 闕闕들과 접점을 만들고 인맥을 확장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 곧 박장암은 19세기 초반 조선 문인 사회에서 아버지 박제가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다.

특히 『호저집』의 편집 방향성은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먼저 박장암이 쓴 『호저집』 범례를 보겠다.

이 책은 『市衍集』에서 시작하여 『貞蕤稿畧』에서 마쳤다. 가로로 씨줄을 삼고, 세로로 날줄을 삼아 시화라 할 수도 있고, 또한 題襟集이라 할 수도 있다. 선군께서 여러 분들을 사모한 것과 여러 분이 선군을 사모한 것이 나란히 끝내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지라, 柳子厚가 「先友記」를 지은 뜻에 견주어 이 책을 만들고 『호저집』이라 이름 지었다. 기사년(1809) 5월에 박장암은 삼가 쓴다.¹³⁴

우선 박장암은 『호저집』의 범례를 통해 1776년 柳琴의 연행과 『한객건연집』의 청 전래를 시작점으로 삼고, 1801년 이후 진전의 『貞蕤稿畧』 간행에 이르기까지를 『호저집』에서 다루는 교유 내용의 범위로 삼았다. 『호저집』은 한편으로 부친의 行錄 격의 저술이므로, 애초에 『한객건연집』을 최초로 내세운 것은 사실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할 것도 없이 매우 당연한 시작점의 설정이다.

그런데 『호저집』이 포괄하는 기록의 시작점은 엄밀하게는 17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各輯의 처음에는 卷首를 두고, 그 제일 첫머리에 박제가와 郭執桓과의 교유 내용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앞서 홍대용이 물꼬를 튼 교류의 내용 중 박제가의 역할만을 확대, 별도로 편집하여 『호저집』의 지면에 끌어온 것이다. 여기에 박장암은 그 저술이 「先友記」, 곧 당나라 柳宗元の 「先君墓表碑陰先友記」를 본받은 것임을 언급하였다. 「선우기」는 작고한 부친의 벗 67명에 대한 기록으로, 부친을 그리는 뜻과 함께 선대가 이룩한 文苑의 盛事를 과시하고 선양하기 위해 쓰인 작품이다.

134 朴長旆, 「凡例」, 『縞紵集』. “此書始於市衍集, 終於貞蕤稿畧, 橫之爲緯, 豎之爲經, 可以謂詩話, 亦可以謂題襟. 先君之慕諸人, 與諸人之慕先君, 并不可得以終泯, 故擬柳子厚先友記之意, 而爲此書, 命之曰縞紵集. 己巳仲夏, 長旆謹識.”

이상을 통해 박장암은 18~19세기 한중교류사의 필두를 아버지 박제가로 하겠다는 지향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호저집』에는 박제가 외에 尹仁泰·洪萬燮·南陟老 등 문인들이 청 문인들로부터 받은 시문 또한 수록하고 있는데, 이때 박제가의 제자이거나 박제가의 소개를 통하여 후발 주자로 왔다는 뉘앙스의 언급이 들어간 시를 선별하였다.¹³⁵

나아가 박장암은 『호저집』을 통해 과거 그 집안이 누렸던 영광이 퇴색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아버지 박제가에 대한 세간의 오해와 비난에 대해 항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예컨대 과거 박제가가 청나라를 방문해 尙書 紀昀과 교유하고 돌아온 뒤, 기운은 正祖에게 「박제가 이후 선생을 그리며 부침[寄懷而后先生]」 한 수¹³⁶와 편지를 보내 박제가의 중국 방문을 직접 요청하였다. 세간에서는 이 일을 정조가 탐탁지 않게 여겼으며, 결과적으로는 박제가의 행동이 경망스러웠던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박장암은 『호저집』의 안설을 통해 그 내막을 제대로 밝히고자 했다.

隴案: 기운 상서가 이 시를 짓고 아버님을 사신으로 보내달라는 뜻의 편지로 우리 선대 정조대왕께 청하였다. 임금께서 즉시 아버님에게 입시하라 명하시고는 면대하여 이 시를 내리셨는데 天顏이 온화하셨다. 시종신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본다면, 박제가는 나라를 빛낸 인재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셨으니, 대개 특별한 예우였다. 하지만 논하는 자들은 혹 도리어 허물하신 것으로 여겼다 하니, 어찌 개연히 울음을 삼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¹³⁷

『호저집』 編輯 권2 「기운」조 「寄懷而后先生」 뒤에 붙은 안설이다. 박장암은 이를 통해 세간의 설을 부정하고 있다. 곧 정조의 안색이 “和霽”하여 전혀 문책을 듣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부친이 정조로부터 칭찬을 들은 영예로운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럼에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평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언급이다. 지금은 한중교류사에 있어 박제가가 갖는 위상에 대해서는 이미 학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박장암이 『호저집』을 집필할 당시에는 박제가에 대한 혹평이 그 공로를 가리는 일이 있었던 듯싶다. 심지어 얼마 전에 가문이 한번 역모에 휘말려 몰락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으므로, 박장암은 『호저집』을 통해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일을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35 예컨대 編輯 卷3 曹江 조의 「附 題坡公像贈穎山」, 「附 贈愚齋南陟老」 등이다.

136 紀昀, 「寄懷而后先生」, 『縞紵集』 編輯 卷2(庚戌辛亥) 「紀昀」조. “偶然相見即相親, 別後恩惠又幾春. 倒屣常迎天下士, 吟詩最憶海東人. 關河兩地無書札, 名姓頻年問使臣. 可有新篇懷我未, 老夫雙鬢漸如銀.”

137 『縞紵集』 編輯 卷2(庚戌辛亥) 「紀昀」조. “長旆案: 尙書作此詩, 以送致先公之意書, 請于我先大王. 上即命先公入侍, 面賜此詩, 天顏和霽. 顧諭侍臣曰: ‘以此觀之, 朴齊家, 非華國之才歟!’ 蓋異數也. 而論者或反以爲咎云, 寧不慨然飲泣者乎!”

5. 결론

지금까지 『호저집』 및 관계 자료를 통해 박장암의 생애와 교유 양상, 그리고 박장암의 『호저집』 편찬 의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박장암은 과거 조청 문인교류의 盛事를 아버지 박제가를 위시한 순서와 의미로 재구성하여 그 지면을 통해 한중교류사의 측면에서 박제가의 위상을 제고하려 하였다. 결론적으로 『호저집』은 박제가의 그야말로 방대한 규모의 한중 교유 성과를 그 아들 박장암의 꼼꼼한 자료 수집과 정돈된 편재를 통해 집성해 놓은 인명록이다. 나아가 그 편찬자 박장암의 의도를 위주로 읽어볼 때는, 「선우기」의 문법을 표방하여 스스로 박제가의 嫡統임을 내세우고, 선대의 공업을 계승하고자 한 그의 노력을 유추할 수 있다. 곧 『호저집』은 19세기 한중 문단에 그 가문과 나아가 스스로의 존재감을 적극 표명하고자 하였던 박장암의 지향이 여실히 드러난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朴長醜, 『縞紵集』(하버드 연칭도서관 소장)

申緯, 『警修堂全藁』

李裕元, 『林下筆記』

陳鱣, 『簡莊文鈔』

『密城朴氏族譜』甲寅譜(규장각 소장)

『密城朴氏族譜』辛亥譜(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密城朴氏族譜』丙寅譜(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宜寧南氏族譜』(장서각 소장)

이우성 편, 『楚亭全書(栖碧外史海外蒐佚本)』下, 아세아문화사, 1992;

안대회 교감·역주, 『(안역 정본)북학의』, 돌베개, 2013.

정민 외 역, 『정유각집』 상·중·하, 돌베개, 2010.

『承政院日記』

『內閣日曆』(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김영진, 「朝·淸 文士의 書籍 受贈과 出版文化에 끼친 영향: 19세기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2015.

——, 「西山 丁學淵의 회인시 연구: 『秋日懷人絕句十一首』를 중심으로」, 『韓國詩歌研究』 40, 한국시가학회, 2016.

김윤조, 「18세기 후반 韓中 文人 交遊와 李調元」, 『한국학논집』 51, 2013.

박무영, 「18-19세기 중국여성예술가들의 소식과 조선의 반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2008.

——, 「조선후기 韓·中 교유와 젠더담론의 변화: 徐令壽閣의 중국 반출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5, 한국고전문학회, 2014.

박철상, 「정벽 유취관의 연행과 교유」, 『다산과 추사, 정벽 유취관(추사박물관 학술총서 V)』, 2015.

박향란, 「燕行錄 所載 筆談의 研究: 洪大容, 朴趾源 등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0.

안대회, 「楚亭 朴齊家의 燕行과 일상속의 국제교류」, 『동방학지』 14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이승수, 「박제가 삶의 마음속 出路, 燕京의 友情」, 『동아시아문화연구』 50,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이현일,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이상적 여성상 申緯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이흥식, 「18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의 시로 꿈꾼 동아시아: 한·중·일,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한국문학과 예술』, 2018.

임영길, 「紫霞 申緯와 청 문단의 교유 양상: 1812년 연행 이후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1.

정민,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 하버드 연칭도서관에서 만난 후지쓰카 컬렉션」, 문학동네, 2014.

축가문, 「朴齊家의 中國文人 交流 樣相과 特徵」,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22.

황인건, 「<燕京雜絕>에 나타난 박제가의 중국 체험 고찰」, 『한국시가연구』 20, 한국시가학회, 2006.

清朝文인과 나는
朴齊家の 편지 자료 검토

-『縞紵集』을 중심으로-

이패선

(李珮瑄, 리페이쉬안, 한양대학교)

1. 머리말
 2. 『縞紵集』 수록 편지 자료 개관
 3. 편지 분석을 통해 본 朴齊家와 청조문인 간의 교류
 4. 맺음말 - 『縞紵集』 수록 편지의 자료 가치
- 참고문헌

清朝文인과 나는 朴齊家の 편지 자료 검토

- 『縞紵集』을 중심으로 -

이패션
(李珮瑄, 리페이쉬안, 한양대학교)

1. 머리말

본 논문은 『縞紵集』에 실린 朴齊家와 청조문인들의 편지 자료를 다룬다. 朴齊家は 1778년 처음 燕行한 이래 1790년에 연이어 2회, 그리고 1801년에 1회까지 총 네 차례 중국에 다녀왔고 청조문인들과 폭넓게 교류했다. 『縞紵集』은 그 교류의 기록으로, 172명에 달하는 청조문인들의 인적사항과 함께, 朴齊家가 이들과 주고받은 편지 및 시문이 오롯이 남아있다. 이중 편지는 그 시기가 燕行 이전부터 귀국 후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18세기 한중 문화교류 연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들 사이에 오갔던 예물이나 진지한 논의는 편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당시 문화의 구체적인 일면으로, 해당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縞紵集』의 모든 기록은 교류 인물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인물의 수록 순서는 처음 만난 시기를 따랐다. 이렇다 보니 여러 차례 만나서 교류한 인물의 글일 경우 『縞紵集』의 수록 순서만으로 그 시기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편지는 대면 시점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朴齊家와 청조문인 사이에서 편지는 1차 燕行 이전부터 오가기 시작하여 朴齊家 사후에 도착한 것도 있다. 교류 시기가 가장 긴 기록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본고는 『縞紵集』의 편지를 작성 시기에 따라 나누어 살피고 朴齊家와 청조문인의 교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시기의 교류 특징을 살핌으로써 이들의 교류가 어떠한 식으로 자리 잡아 갔는지, 朴齊家가 성취한 18세기 조·청 문인의 私적 교류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2. 『縞紵集』 수록 편지 자료 개관

『縞紵集』에서 편지 교류가 확인되는 청조문인은 27명이다. 편집에 청조문인의 편지 37통과 朴齊家の 편지 3통, 총 40통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¹³⁸ 朴齊家가 보낸 편지는 따로 찬집 인물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李調元和 潘庭筠에게 보낸 편지 2통이다.

『縞紵集』의 편지는 朴齊家の 燕行 시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燕行 전에 오간 편지다. 郭執桓(1746~1775), 李調元(1734~1803), 潘庭筠(1742~?) 세 사람과 교류하였다. 주지하듯, 朴齊家の 대청 교류는 洪大容(1731~1783)과 柳琴(1741~1788)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縞紵集』에 가장 먼저 수록된 청조문인 郭執桓은 洪大容을 통해 알게 된 인물이다. 李調元和 潘庭筠은 『韓客巾衍集』(이하 『巾衍集』)을 들고 간 柳琴의 주선으로 연이 닿았다.

두 번째는 1차에서 3차 燕行까지의 편지로, 『縞紵集』 수록 편지의 대다수가 여기에 속한다. 주로 대면이 가능한 상황에서 부차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내용 자체는 소략하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이 시기 청조의 文字獄과도 관련이 있다. 이 시기 편지부터는 연경에서 朴齊家の 명성이 높아지고 청조문인과 朴齊家の 사적인 친교가 깊어지는 흐름이 눈에 들어온다.

마지막은 4차 燕行과 그 이후의 편지다. 朴齊家の 명성이 더욱 높아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귀국한 朴齊家에게 보내온 편지는 재회가 불가능함을 인지한 상황에서 오간 만큼, 담긴 정이 깊고 서글프다. 朴齊家 사후에 朴長飴에게 보내온 편지도 있다.

편지 작성 시기를 보면, 청조문인의 편지는 당연하지만 대부분 燕行이 시작된 이후에 쓰였다. 그런데 朴齊家の 편지는 潘庭筠에게 보낸 한 통을 제외하고 모두 燕行 이전에 쓴 것이다. 燕行 도중에 용무가 있어 쓴 짧은 편지야 상대방에게 보내기만 하고 朴齊家가 따로 베껴 써두지 않아 朴長飴 편에 남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귀국 후 청조문인들에게 보낸 편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은 뜻밖이다. 어떤 의도가 있어 남기지 않았거나 자료를 일실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즉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기의 편지는 朴齊家の 원서나 답서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방향 자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청조문인의 편지만 살핌으로써 그들 눈에 비친 朴齊家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한 가지 의의라고 본다.

138 같은 인물의 편지가 여러 통 들어간 경우, 시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편지는 따로 나누어 세었다. 앞뒤가 불분명하거나 따로 썼어도 朴齊家에게 한 번에 보낸 듯한 편지는 나누지 않고 한 통으로 뒀다.

3. 편지 분석을 통해 본 朴齊家와 청조문인 간의 교류

1) 神交의 신청

여기서는 朴齊家와 청조문인이 燕行 이전에 주고받은 편지를 살핀다. 이때 서로에 대한 친교 의사는 무엇보다도 상대가 외국의 문인이라는 점에서 기인했다. 다만 한쪽은 청나라라는 대국, 한쪽은 사대의 예를 행하는 조선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친교 의사가 동등한 정도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발신자	수신자	작성년도
2권(편집) 권수	朴齊家	郭執桓	1773.8.2
2권(편집) 권수	郭執桓	朴齊家	1774
2권(편집) 권1	朴齊家	潘庭筠	1777 전후
2권(편집) 권1	潘庭筠	朴齊家	1777.7
1권(찬집) 권1	朴齊家	李調元	1777
2권(편집) 권1	李調元	朴齊家	1777.9
2권(편집) 권1	朴齊家	李調元	1778

<표 1> 燕行 전 오간 편지

먼저 郭執桓과 주고받은 편지를 보자. 『縞紵集』 편집에 실린 郭執桓 관련 편지는 두 통이다. 하나는 1773년 8월에 朴齊家가 郭執桓에게 쓴 것이고, 다른 하나는 1774년 8월에 郭執桓이 적은 답신이다.

洪大容은 郭執桓이 보내온 문집 『繪聲園集』을 朴齊家, 李德懋 등 연암 그룹의 문인에게 보여주고 글을 요청했다. 朴齊家是 이를 통해 처음 郭執桓을 알게 되어 그의 시 「澹園八詠」에 차운시를 썼다. 그 직후 朴齊家가 郭執桓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의 사적 교류가 시작됐다.¹³⁹ 이 편지의 일부는 이렇다.

축하의 시를 얻고부터 축하께서 마음속에 답 쌓여 닳지 않는 기상을 지녀 한세상을 돌아보며 악착스런 자들과 더불어 노닐기를 즐기지 않으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한 바를 살피고 그 벗 삼은 바를 생각하느라, 하루 사이에도 정신을 백 번 씩 쏟곤 했습니다. 가만히 제 평생을 생각해 보니 중국을 옛사람만큼이나 사모했

139 朴齊家 등이 洪大容을 통해 郭執桓과 교류하게 된 일에 대해 유재형, 「연암 그룹과 담원 郭執桓의 문예교류」, 『韓國漢文學研究』, Vol.0 No.66, 2017에서 상세히 살폈다.

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산하가 만 리나 떨어져 있고 세월은 천년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매번 炯菴 이덕무 등 여러 사람과 이 일을 논할 때마다 크게 탄식하며 눈물이 옷깃을 적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아쉬움은 날이 갈수록 풀리지 않습니다.¹⁴⁰

朴齊家是 郭執桓에 대해 몹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 자신의 이런 태도를 ‘중국을 옛사람만큼이나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옛사람만큼 사모했다는 것은, 자신의 중국 벽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대면하고 얘기하지 못할 먼 사람으로만 알았다는 뜻이기도 하다.¹⁴¹ 그런데 郭執桓이 먼저 洪大容에게 글을 보내오며 신교를 요청해왔고, 그 신교의 기회에 자신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이다.¹⁴² 친교 이상의 적극적인 태도를 표하는 것이 당연했다.

멀리 神交를 의탁해 놓고 앞질러 友道의 일단을 자처하고 있으니, 이는 마치 매일 무덤 사이를 다니며 제사 음식을 얻어먹으면서도 자기 아내에게는 늘 부귀한 이들과 어울린다고 말하지만, 정작 부귀한 이들은 뭘 일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와 같습니다. 족하 또한 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니 ... 만약 족하께서 뒷날 저를 알게 되신다면 벗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 예로부터 같은 시대에도 현인들이 헤아릴 수없이 많지만, 사람들은 아득히 먼 천년 전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좋아하여 ‘벗’이라고 합니다. 벗이라 하면 벗이 되는 것이니, 만나고 안 만나고는 따지지 않아도 됨이 분명합니다. 아아! 저의 몸과 마음을 점검해 보면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지만, 벗 사귀에 있어서만큼은 유독 애정이 깊습니다. 간혹 친구 생각에 문득 천 리 길을 달려가고, 한마디 말로 의기투합하는 등 옛사람들이 知己를 가장 중시한 일들을 볼 때마다 감격하여 마음을 가누지 못합니다.¹⁴³

140 『縞紵集』 2권 郭執桓 조, 「附 先公原書」: “自得足下詩, 知足下胸中有磊落不磨之氣, 環顧一世, 不肯與齷齪者遊. 故觀其所語, 思其所友, 一日之內, 神精百往. 竊念生平, 慕中國如慕古人. 而山河萬里, 日月千古. 則每與炯菴諸人, 論此事, 未嘗不浩歎盈襟. 彌日而不釋也.”

141 朴齊家가 郭執桓에게 ‘尙友中原, 臥遊古人’라고 새긴 인장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데서도 이러한 뜻을 볼 수 있다. 옛사람의 글을 읽고 작가와 神交를 나눈다는 뜻의 ‘尙友’와 ‘臥遊’를 비틀어 ‘올라가 중원 사람과 벗하고 누워서 옛사람과 노닐다’고 표현한 것이다. 모두 神交의 의미다.

142 鄧師閔, 『燕杭詩牘』, 「答湛軒書」其二: “吾兄詩章書札, 渠常玩閱, 極爲賞心嚮慕, 因將所著詩稿捐去, 祈聞中細加批評, 作一長序. 更求令叔, 亦作一序. 來年附貢使, 捐回一部, 以便續刻, 庶部列海外名流姓字, 將來作一番佳話也.”

143 『縞紵集』 2권 郭執桓 조, 「附 先公原書」: “遙托神交, 業已自處于友道之萬一者, 眞如壻間之夫, 每每稱道其顯者, 而顯者反茫然不知爲何狀. 而足下之於我也, 方且冥冥漠漠, 因想無從. 則魂夢之不接. ...使足下他日而終知有吾, 則固不可不謂之友... 夫終古賢人, 同時者何限, 而顧好其遙遙千載之上之人焉, 曰友也. 友也則友之, 不可論於面與不面也審矣. 嗟乎! 僕點檢身心, 無一善之可指, 而至於友朋一節, 鍾情獨深. 見古人之最重知己, 或千里命駕, 片言相合者,

뜻밖에 찾아온 기회에, 朴齊家は 마음이 가는 대로 쓰다 보니 말에 조리가 없다고 하면서도¹⁴⁴ 이미 그를 벗으로 여기고 있다며 神交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郭執桓이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말하였다. 상대를 이미 친구로 여겼다고 한 말뜻의 이면에는 그쪽도 나를 벗으로 여겨 달라는, 즉 자신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다.

朴齊家は 원래 郭執桓의 문집에 서문을 쓸 작정이었으나 집안에 일이 많아 서문을 쓸 겨를이 없었고, 차운시만 겨우 남길 수 있었다. 洪大容의 교유에서 영감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손에 잡힌 신교의 기회를 간단히 보내버릴 수는 없었다. 朴齊家の 편지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과잉과 조급함은 郭執桓 자체와는 크게 상관없이, 朴齊家만의 상황에서 온 셈이다.

한편, 편지에서 보이는 적극적인 호응과 신교의 의지는 달리 보아 朴齊家が 청조문인과 대면하거나 직접 시문을 보낼 가능성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당시 그는 자신에게 燕行의 기회가 올 줄 몰랐고, 자신의 글을 생면부지의 청조문인에게 보낸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듯하다. 즉, 이 편지는 그를 포함한 사가시인이 『市衍集』이나 『望蜀聯集』¹⁴⁵ 등의 시도를 떠올리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사가시인이 직접 자신들의 시문을 청조문인에게 보일 구상을 한 데에 郭執桓과의 교유 경험이 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郭執桓이 1774년에 보낸 회신은 이렇다.

건륭 38년(1773) 11월 초순에 저의 벗 鄧汶軒 선생을 통해 큰 가르침을 받자우고, 아울러 제 거친 동산을 노래한 훌륭한 八景詩를 받음에 대해 몹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아득히 먼 곳의 深山窮谷 가운데에서 그대와 더불어 시문을 지어 교유함을 얻으니 실로 前生の 인연이라 얼마나 다행스러운지요. 비록 있는 곳이 아득히 멀어 만남을 기약하기는 어렵겠지만, 거룩하신 天子께서 정사를 펴고 교화를 베푸시어 中外가 한집이 됨을 당하매, 이 마음의 진실한 사사로움은 다만 함께 이 중천의 해를 우리르며 寸心を 맺어 증명하니 떠나는 바가 또한 멀고 또 떨어져 있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¹⁴⁶

輒感激不能自定.”

144 『縞紵集』 2권 郭執桓 조, 「附 先公原書」: “마음이 가는 대로 쓰다 보니 말에 조리가 없습니다. 너그러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心之所觸, 筆隨而落, 語無倫次, 惟在怨諒.]”

145 1776년 柳琴이 『市衍集』을 가지고 李調元, 潘庭筠에게 보여주고 서문과 비평을 받았고 1777년 사가시인은 연합 시집인 『望蜀聯集』을 만들어 李調元에게 보냈지만 중간에 사정이 생겨 李調元에게 전해주지 못해 1778년 초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 두 책은 모두 연암 그룹은 청나라 문인들과의 사적 교유 시도의 증거이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146 『縞紵集』 2권 郭執桓 조: “於乾隆三十八年十一月上浣, 以敝友鄧汶軒先生得接大教, 并承製荒園八景佳什, 殊深感荷. 惟是弟遠處遐荒深山窮谷之中, 得與足下作詩文交, 寔前生夙緣, 幸何如之. 雖地處寫遠, 把握難期, 當聖天子敷政宣化, 中外一家, 而此心耿耿之私, 惟共瞻此中天化日, 印結寸心, 所去亦不云遠且隔也.”

朴齊家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郭執桓은 당연하게도 朴齊家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교유 의지와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다만 한갓 정신의 교유만 나누고 손을 맞잡을 길이 없다 보니, 조선의 풍토와 인물 또한 듣고 볼 길이 없군요.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바라건대 보내 볼까 합니다. 답장에 조선의 版圖를 그린 圖誌 전체와 함께 그대의 작은 초상화를 부치면서 몇 마디말을 써서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아침저녁으로 만나 보는 것처럼 절절하지는 못하더라도 또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을 테니 어떠합니까? 동산 郭執桓은 다시 절합니다. 東山居士의 小像은 장차 또한 마땅히 부쳐 드리겠습니다.¹⁴⁷

이제부터 朴齊家和 그의 나라 조선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애초 조선이라는 외국 문인에게 서문을 받고자 했을 뿐인 요청이, 조선 문인의 더 큰 신교 신청으로 돌아온 것이니 郭執桓 또한 신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朴齊家の 첫 사적 교유 시도는 잠깐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신교 의지를 가진 문인과 연이 닿았고, 朴齊家は 이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로 거머쥐었다.

안타까운 것은 郭執桓이 朴齊家の 첫 燕行을 앞둔 1775년,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¹⁴⁸ 결국 朴齊家は 郭執桓과 대면을 한 적이 없이 편지만 주고받게 되었다.¹⁴⁹ 郭執桓이 요절하지 않았다면, 둘 다 친교의 의지가 강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교유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요절로 인해 『縞紵集』 纂輯 郭執桓 조에는 그의 인적 사항과 함께 부고를 알고 쓴 朴齊家の 시만이 실리게 되었다.

이렇듯 朴齊家が 郭執桓과 주고받은 편지에서는 상대를 향한 실질적인 이해나 교제보다는 외국 문인과 사귀고 싶다는 자신의 신교 의사가 훨씬 도드라진다. 李調元, 潘庭筠과의 편지에서는 이와 비슷한 신교 의사와 함께, 한 단계 발전한 교유의 양상이 보인다. 두 사람이 『市衍集』을 통해 朴齊家を 인정한 상태에서 오간 편지이기 때문이다.

147 『縞紵集』 2권 郭執桓 조: “但徒契神交, 莫由握手, 即朝鮮風土人物, 亦無由聆觀. 憾憾! 思得一法, 庶可遣之. 祈便中寄賜朝鮮版圖圖誌全部, 併足下小照, 以便題贈數言, 却寄送還. 如此雖不若把握朝夕爲切切然, 亦可以想像於意中也, 何如何如? 東山桓再頓拜. 東山居士小像, 將來亦當寄奉.”

148 朴齊家は 1773년 8월에 겨우 郭執桓과 시작한 교유는 2년 만에 바로 끊겼다. 『중주십일가시선』은 ‘올해 정유년(1777) 4월에 등사민이 담헌에게 편지를 부쳐 말하기를, 봉규는 을미년(1775) 8월에 죽었다.’라고 서술했고 郭執桓의 죽은 소식은 1777년에 조선으로 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149 『縞紵集』 「凡例」: “편지가 오갔지만 만나 보지는 못한 사람은 東山 郭執桓이다.[折簡往復而未見其人者, 郭東山是也.]”

『巾衍集』은 조선 문인이 개인적인 동기로, 개인 비용을 들어 청조문인과의 교류를 추구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1776년 柳琴은 『巾衍集』을 가지고 중국에 가 李調元和 潘庭筠에게 靑批朱批를 받아왔다. 『巾衍集』은 李調元, 潘庭筠을 비롯한 청조문인에게 朴齊家라는 조선문인을 알린 일대 사건이었다.

이들의 비평을 계기로 朴齊家가 먼저 편지를 보냈다. 앞서 郭執桓과의 성공적인 신교를 통해 자신감이 생겼을 것이고, 두 사람이 먼저 자신의 시를 읽고 좋은 평을 남겨준 데에서 더욱 동기와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潘庭筠에 대해서는 洪大容의 기록을 통해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은 상태였다. 그러나 李調元에 대해서는 郭執桓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교를 시도하였다. 두 사람에 대해서도 朴齊家는 크게 고양된 태도로 신교 의사를 드러내었다. 이 역시 李調元·潘庭筠의 실제 됴됨이와는 크게 상관없이, 청조문인이 자신을 알아준다는 朴齊家 자신의 동기와 맥락에서 기인한 태도였다.

1777년 朴齊家가 潘庭筠에게 쓴 편지는 이렇다.

저는 담헌 洪大容과는 애초에 서로 알지 못했는데, 그가 그대 및 鐵橋 嚴誠, 篠飲 陸飛와 더불어 天涯知己를 맺고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먼저 가서 사귀어 맺었습니다. 그 필담과 창수한 시문을 모두 얻어 와 읽어 보고는 손으로 어루만지며 놓지 못했고, 그 아래에서 잠깐 것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아! 저는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눈을 감으면 그대의 모습이 보였고, 꿈에서는 그대의 마을에서 노닐곤 하였습니다. ... 저는 평소에 시 짓기를 즐기지 않는 데다, 그 재주와 품격이 『巾衍集』 가운데 여러 군자 중에 가장 아래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사모하는 고심만큼은 여러 군자가 또한 각각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소음 육비 진사는 ... 언제 북경에 계실는지요? 오늘 이후 다만 추루의 모습을 한차례 보아 내 지닌 것을 다 털어놓아, 마땅히 10년의 독서보다 낫기를 원합니다.¹⁵⁰

여기서도 朴齊家가 潘庭筠에게 신교의 갈망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다. 潘庭筠이 『巾衍集』 평과 서문을 써준 후에 생긴 자신감 등을 토대로 이후의 신교

150 『縞紵集』 2권 潘庭筠 조: “僕與洪澗軒, 初不相識, 聞與足下及鐵橋嚴公篠飲陸公, 結天涯知己而歸, 遂先往納交. 盡得其筆談唱酬詩文讀之, 摩挲不去, 寢息其下者累日. 嗟乎! 僕情人也. 闔眼則見足下之眉宇, 夢寐則遊足下之里閭. ... 僕素不喜爲詩, 且其才品取下於集中之諸君子, 而若其慕中國之苦心, 則諸君子亦各自以爲不及也. 非詩之足稱, 庶幾因此而附尾, 而得不朽於千秋. 雖死之日, 猶生之年也. 篠飲之進士見作何官, 何時在京? 從今以後, 惟願一見秋??之顏範, 傾困倒廩, 當勝讀十年書也.”

까지도 자신 있게 요청하고 있다. 洪대용의 기록에서 얻은 潘庭筠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潘庭筠 또한 편지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표했다.

선생의 인품과 덕망을 그려 볼 때 틀림없이 우뚝하고 시원스러워 보통의 부류와는 크게 다르니, 시를 읽어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의 주석 가운데 외람되이 제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고, 선생이 저를 알아주심에 감격하고, 제가 선생을 능히 알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詩卷은 아침저녁으로 가져가는 것이 급박한 나머지 서둘러 한 번 읽기만 하고, 또 울타리 안을 전부 살피지 못한 채로 겨우 20, 30수만을 베껴 써서 묶었으니 더욱 심히 부끄럽습니다. 지난번 손수 쓰신 편지를 접하니 우아한 뜻이 은근하고도 정성스러웠지만, 칭찬하고 허락하심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또 8년 전에 제게 부치려고 쓴 편지의 원고와 필담의 跋語를 읽어 보고는 감격스러워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선생께서 저를 알아주심이 오래되고 또 깊기가 이와 같은데, 저는 어리석게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를 알았다더라면 바로 천 리 길에 수레를 몰아 죽을 때까지 따르더라도 오히려 그 늦음을 한탄하였을 텐데, 하물며 모두 얻을 수가 없군요. 비록 나무와 바위, 사슴과 멧돼지와 어울려 살더라도 또한 마음을 가누기 어려울 터여서, 다만 사람으로 하여금 벗 사귀는 도리의 무거움을 느끼게 할 뿐만이 아닙니다.¹⁵¹

『巾衍集』과 이후 편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朴齊家를 평하고 자신도 신교의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번 손수 쓰신 편지를 접하니 우아한 뜻이 은근하고도 정성스러웠지만, 칭찬하고 허락하심은 너무 지나쳤습니다.”라고 하여 은연중에 부담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후 朴齊家는 1차에서 3차까지 세 번의 燕行에서 직접 潘庭筠을 만나 교류하게 된다. 이때 나는 필담과 시는 물론 『縞紵集』에 남아 있다.

다음은 1777년 朴齊家가 李調元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우연히 幾何室에 갔더니, 한마디 말도 채 나누기 전에 단지 ‘왔네!’라고만 하더군요

151 『縞紵集』 2권 潘庭筠 조: “懸擬先生品望, 必嶽崑崙, 迥異恒流, 讀詩可以知人. 又見詩註中猥及賤名, 感先生之知筠, 而愧筠之不能知先生也. 詩卷迫於朝夕持去, 匆匆一讀, 又未獲盡窺潘籟, 鈔掇僅二三十首, 益滋愧矣. 頃接手書, 雅意勲拳, 獎許逾分. 又讀八年前擬寄筠書稿及筆談跋語, 感且欲泣. 先生之知筠, 久且深如此, 而筠懵然未知. 一朝知之, 即千里命駕, 終身追隨, 猶恨其晚, 況都不可得. 雖木石鹿豕, 亦難爲懷, 不特令人感交道之重也.”

요. 온 사람은 桂叟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듯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더구나 훌륭한 말씀을 많이 받들고 좋은 벗의 友誼를 거듭 보여주시니, 방 가득히 옥 소리요, 손 닿는 곳마다 향기가 나는 듯했습니다. 적막함을 향하던 것이 바뀌어 크게 쾌활하게 되었습니다. 인정이 쉬 변하기가 이와 같더군요. ...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는 억지로 짓지 않고 문장에는 경제의 뜻을 붙여서, 개연히 鄭漁仲과 顧寧人の 학문을 사모하였습니다. 민생이 날로 곤핍해짐을 슬퍼하고 동지들이 너무도 곤궁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중국의 제도를 배워 흙집을 짓고 水車를 만들어 비용을 줄이고 혜택을 두터이 해서 온 마을에 풍속을 바꾸어, 벗들에게 어긋남이 없고 자 하는 것이 바로 밤낮으로 고심한 것입니다. 비록 그러나 보잘것없는 몸으로 크게 품은 뜻만 있었지, 밤새워 하는 근심은 없이 백 년의 은혜만을 바라 격이라 하겠습니까.¹⁵²

여기에서 朴齊家는 단순히 신교의 의사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지향점을 설명하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드러내고 있다. 앞서 郭執桓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단순히 중국을 추앙했던 조선 문인이 여기서 품위 있는 朴齊家가 되었다. 이는 『巾衍集』에 달린 李調元의 평을 십분 반영한 답변이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신교를 신청하는 대신, 편지에 자신을 담아냄으로써 자신을 더 잘 알아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李調元의 답신은 이렇다.

그대의 시문을 비록 전부 얻어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부쳐 온 시의 각종 風格은 다만 曹植, (192~232)과 劉楨(186~217)을 능가하고, 가까이로는 또한 盛唐의 위에 있으니, 참으로 무리 중의 학이요, 藝苑의 봉황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동등이질로 남을 해치면서 교만하게 나대는 자를 살핀다면, 어찌 구름과 진흙의 차이에 그치겠습니까? 저는 文詞에 있어 바탕이 그다지 깊지 못하고, 다만 성품의 가까운 바를 가지고 마치 철벌레나 계절마다 찾아오는 새들이 이따금씩 한차례 우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 炯菴 이덕무가 말하기를, 그대의 사람됨이 “키는 작아도 개성이 있고 굳세며, 뜻은 중원을 사모하고, 기특한 기운이 넘쳐흐른다”고 하였

152 『縞紵集』 1권 李調元 조: “偶到幾何室中, 未交一言, 只道來字, 來者桂全也. 如死獲生, 弗知攸措. 又況多承德音, 申之以惠好之誼, 滿室琳琅, 觸手生香. 向之至落莫者, 轉而爲大快活矣. 人情之易變如此. ... 自以爲詩不強作, 文附經濟, 慨然慕鄭漁仲顧寧人之爲學. 哀民生之日乏, 憫同志之多窘, 欲學中國之制, 築土室, 造水車, 省費而厚斂, 移風俗於一鄉, 庶朋友之無違, 此夙夕之苦心也. 雖然以眇然之身, 而有大庇之志, 無終夕之憂, 而望百年之惠.”

습니다. 대저 표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이 전해지지 않음을 근심할 뿐입니다. 그대는 나이가 이제 겨우 27세인데 얻은 바가 이미 이와 같으니, 반드시 전해질 것이 의심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중국과 외국이라고 말한단 말입니까?¹⁵³

朴齊家의 편지에 따라 李調元의 답장에서도 단순히 신교에 대한 수락이 아닌, 그가 살펴본 朴齊家에 대한 평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巾衍集』을 통해 朴齊家라는 시인을 알았고, 이후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朴齊家를 접하게 되었다. 李調元이 후에 자신의 문집 『函海』에서 朴齊家를 언급하게 되는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¹⁵⁴

한편, 朴齊家의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李調元은 『望蜀聯集』을 통해 한 번 더 朴齊家를 비롯한 사가시인의 시집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집은 청조로 보내지던 중간에 변동이 생겨 전달되지 못하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¹⁵⁵ 게다가 朴齊家 그 자신도 李調元과 끝까지 만나지 못하였다. 『縞紵集』 범례에 李調元에 대해 “먼저 시문과 서찰이 오간 뒤에 마침내 대면하였다.”¹⁵⁶라 하였지만 네 차례 燕行 때 李調元이 매번 지방에 있어 만나지 못했다.¹⁵⁷ 이 부분은 朴長蘅의 착각으로 본다.

이렇듯 燕行 전에 오간 편지를 보면, 朴齊家는 대개 상대에 알맞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드러냈다. 청조문인 세 사람에게 대해서는 신교를 받아들여줄 ‘청조문인’ 정도로 피상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그쳤다. 또한, 상대에게 조선문인 “朴齊家”라는 자아를 토로하며 자신을 허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이런 朴齊家에 대해 청조문인 세 사람도 일차적으로는 그를 신교를 요청해온 외국문인으로 인식하였다. 朴齊家의 시문을 따로 접하지 못했던 郭執桓의 경우가 특히 그러했고, 潘庭筠은 洪大容의 형상에 기대어 朴齊家를 바라보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巾衍集』을 통해 朴齊

153 『縞紵集』 2권 李調元 조: “足下之詩文, 雖未獲窺全豹, 而即所寄各種風格, 直駕曹劉, 近亦在盛唐以上, 洵人群之鶴而藝園之鳳也. 以視世之椎剽而驕揚者, 何止雲泥之別耶. 僕於文詞, 本不甚深, 特以性之所近, 如侯虫時鳥之時或一鳴耳. 不謂足下謬見推許, 豈心愛者見其好而不見其醜耶. 所恨天各一方, 未得共酒食之會, 文字之歡. 相與上下議論, 參酌乎金石鼎彝之間耳. 聞足下善草隸, 及見手書, 果名不虛附. 僕所著有金石闕文考, 惜未得與足下見之, 一訂其失也. 炯菴言足下爲人: “短小稜勁, 志慕中原, 奇氣橫絕.” 夫狗死留皮, 人患不傳耳. 足下年甫二十七, 而所得已如此, 必傳無疑, 何中外之云.”

154 『탈초·역주 秋史筆談帖 2』: “雨村 李調元이 저술한 『函海』에 자신의 詩話 4권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을 모두 언급했습니다. [李雨村調元著函海中有自家詩話四卷, 并及我輩名.]”

155 이패선, 『望蜀聯集』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참조.

156 『縞紵集』 「凡例」: “李先以詩文書札相通, 而後竟面接.”

157 「李調元年譜」에 따라 朴齊家 1차 燕行(1778) 때 李調元은 광동에서 학정의 벼슬을 지내고 있었고 4차 燕行(1801) 때 李調元은 사천에서 면주로 돌아갔다. 柳得恭의 『并世集』 “罷官日即歸, 多在成都.”에 따라 2,3차 燕行(1790-1791) 때 李調元은 사천에 있었다.

家の 시를 가장 적극적으로 평했던 李調元은 朴齊家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이해를 드러내었고, 이에 따라 朴齊家와 주고받은 편지도 그 양상이 두 사람과 다소 달라졌다.

2) 개인적 교유의 발전

여기서는 실제 燕行을 시작하고 나서 주고받은 편지, 그중에서도 3차 燕行 이후까지 오간 편지를 살핀다. 이 시기 朴齊家와 상대 청조문인은 서로를 구체적인 한 개인으로 인식하며, 국적에서 오는 위계를 떠나 동등한 입장에서 깊은 교유를 맺기도 한다.

이때의 편지는 대면이 가능한 상황에서 부차적으로 오간 것이 많은데, 대체로 내용이 소략하다. 귀국 후 주고받은 경우는 이후의 재회를 예정하고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시기에 속하는 편지 중 朴齊家가 받은 것을 아래 표로 제시한다. 이외 朴齊家가 潘庭筠에게 보낸 편지 1통이 찬집 潘庭筠조에 실려있다.

이름	제목	작성년도
紀昀	而后先生啓	-燕行중
鐵保	朴老先生台啓	-燕行중
鐵保	朴老爺	-燕行중
龔協	附 六娥仙史玉展	1791
王肇嘉	日昨造擾	1791
孫衡	朴老爺台啓	-
羅聘	朴次修先生座前	1792
伊秉綬	朴次修先生手啓	1792
龔協	次修先生手披	1792
李鼎元	石鼓文編求肆中不得	1799
李鼎元	次修先生	1799
李鼎元	楚亭道人足下	-
李驥元	楚亭先生手展	-
潘庭筠	朴楚亭先生書 (2통)	-
吳省欽	幾何之術	-燕行중
羅允纘	昨家君偶抱微恙	-燕行중
伊秉綬	朴公陞啓	-
吳廷燮	朴老爺陞	-燕行중
張問陶	與朴老爺書	-
曾燠	與朴次修先生書	-燕行중
宋葆醇	先君尙書考	-燕行중
莊復旦	朴老爺陞啓	-
吳明煌	朴大老爺啓	-
陳希濂	適纔得領教	-

<표 2> 3차 燕行 후 1799까지 받은 편지

해당 편지들의 특징을 몇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겠다. 먼저, 인물됨, 문풍, 서예 등 朴齊家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된다. 대표적으로 紀昀(1724~1805)과 孫衡(?~?)의 편지가 있다.

[1790] 어제 맑은 말씀을 나누며 전에 없던 신의를 얻었습니다. 해외에 큰 포부를 지닌 분이 있었군요.¹⁵⁸

[1792] 부쳐 주신 자책(字冊)과 시편을 받자웁고 하나하나 펼쳐서 읽노라니, 황홀하기가 마치 작년 봄에 내가 그대와 함께 깊은 밤에 등불 심지를 자르며 수염을 치켜들고 손뼉을 치면서 붉은 등불 아래 푸른 술을 마시다가 책상에 기대어 졸던 것과 같았습니다.¹⁵⁹

燕行 전의 편지에 보인 朴齊家에 대한 평가와 다른 점은 바로 직관성이다. 앞에 李調元이나 潘庭筠은 모두 시문으로 파악한 형상을 바탕으로 칭찬했으므로 “틀림없다”, “형암한테 들은 바” 등 불확실한 추정의 표현이 들어갔다. 반면 紀昀과 孫衡은 모두 朴齊家와 직접 대면하고 나서 쓴 평가라 자신의 평이라는 확신이 있고 구체적이기도 하다.

두 번째, 청조문인과 朴齊家 사이에 文房四友나 小照 등 가볍게 예물을 주고받는 교류가 확인된다. 燕行 중 朴齊家는 총 27명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蔡炎林의 편지를 제외하고 모두 선물을 주고받는 내용이 있다. 朴齊家가 청조문인들에게 보낸 선물은 불상, 日本墨, 淸心丸, 한약, 보자기 등이다.¹⁶⁰ 또한, 청조문인들에게 서예 작품, 도장, 종이¹⁶¹ 등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다.

소조는 스케치풍으로 가볍게 그린 초상화를 뜻한다. 땅이 넓은 중국의 환경이나 당시 교통 여건상 청조문인들은 서로 소조를 주고받아 그리움을 달래야 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朴齊家와 같이 외국에서 온 사신의 경우 첫 만남이 생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었다. 이들 편지에서 소조 관련 내용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¹⁶²

158 『縞紵集』 2권 紀昀 조: “昨挹清言, 得未曾有信. 海外大有人在也.”
 159 『縞紵集』 2권 孫衡 조: “承寄字冊詩篇, 一一展讀, 恍如昨春與我元長, 剪燭深宵, 掀髯鼓掌, 紅燈綠酒, 倚案頽唐也.”
 160 李鼎元: 畫佛, 圖書. 紀昀: 輿圖, 표범 가죽. 羅聘: 청심환, 일본 먹, 갓. 伊秉綬: 한약. 龔協: 좋은 먹, 청심환. 莊復旦: 청심환, 글씨, 보자기 郭執桓: 「滄園八絶」
 161 吳廷燮: 법서, 名紙. 孫衡: 인장. 言可樵: 『十三經』. 郭執桓: ‘尙友中原’과 ‘臥遊古人’이라고 새긴 인장.
 162 안대회, 「초정 朴齊家의 영행과 일상속의 국제교류」, 동방학지. 2009. 54면 참조. 朴齊家가 燕行에서 주고받은 소조에 대해서는 안대회의 이 논문과 김현권, 「조선후기 小照의 제작과 북학파의 역할」, 미술사학연구, 2011에 자세하다.

朴齊家は 燕行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소조를 주고받는 중국 특유의 문화에 대해 차츰 알아간 것으로 보인다. 조선 문인들은 17세기부터 소조로 구분되는 형식의 초상화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소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지고 그 비슷한 초상화가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¹⁶³ 朴齊家は 처음에 소조에 대한 의식이 없어 郭執桓 등에게 신교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와중에도 소조를 요구할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1774년 郭執桓의 편지에서 소조를 달라는 요청이 朴齊家가 받은 첫 소조 요청이었다. 이후 燕行을 하면서 李調元, 潘庭筠 등 여러 명과 소조를 주고받았다.

한편, 龔協(1751~?)은 이 소조와 관련하여 편지에서 짓곳은 언급을 많이 하였다.

[1791] 六娥 선사의 硯北에 글을 올립니다. 차수 詞丈의 처소에서 대작을 얻어 보니, 모두 세속을 벗어난 뜻이 있는지라 나도 모르게 정신이 향하여 내달렸습니다. 편지를 드리면서 짧은 시구 두수를 그림 부채에 써서, 애오라지 경모하는 뜻을 전합니다. 모르겠지만, 작은 초상화를 그려서 보여 주시고 아울러 좋은 소식을 제게 보내 주셔서 먼 곳의 회포를 위로해 줄 수 있으실는지요? 생각건대 고아한 회포와 운치로 혹 저를 속된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으시겠지요? 서둘러 이렇게 씁니다. 잘 지내시기를 빌며 천 번 만 번 保重하고保重하시기를 바랍니다.¹⁶⁴

[1792]: 黃室이 병으로 마른 것은 가련하지만 한 차례 종이 위에서라도 꽃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 크게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대가 나를 위해 이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속됨에 가까울 것입니다.¹⁶⁵

六娥는 朴齊家가 2차 燕行 당시 연을 맺은 평안도 가산의 기생으로 시를 잘 썼다. 龔協은 1791년 六娥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소조를 부탁했고 그 이듬해에는 朴齊家에게도 六娥의 소조를 부탁하였다. 六娥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마 朴齊家 편에 전달하려고 했던 것일 텐데 실제로 六娥에게 전달이 되었을지는 알 수 없다.¹⁶⁶ 六娥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재차 朴齊家에게 왜 소조를 안 보내냐고 편지에 적었다.

龔協이 朴齊家에게 六娥의 소조를 요청하고 한 번 거절을 당했으면서도 재차 편지를 보내

163 김현권, 위의 논문, 174면 참조.

164 『縞紵集』 2권 龔協 조: “書奉六娥仙史硯北. 從次修詞丈處, 得見大作, 竝悉有出塵之志, 不覺神爲之馳. 奉柬小句二首, 書之畫簞, 聊致傾慕之意. 未識肯寫小照見示, 并惠我好音, 以慰遠懷否? 想雅懷高致, 或不以俗子況我也? 匆匆佈此. 用候興居, 千萬珍重, 千萬珍重.”

165 『縞紵集』 2권 龔協 조: “黃室瘦病可憐, 然不得一觀紙上芳容, 大是憾事. 足下不爲我辦此, 無乃近俗.”

166 당시 조선의 풍조상 朴齊家は 이런 요구에 대해 끝까지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대회, 앞의 논문, 53면 참조.

는 것은 둘 사이의 교유가 개인사적인 것까지 공유할 정도로 깊고 스스럼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龔協의 편지에는 이외에도 가족 얘기나 다른 벗의 얘기 등 이들 사이의 친분을 보여주는 내용이 적지 않다. 회인시에 자신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2차, 3차 燕行이 연달아 길게 이어지면서 특별히 친한 청조문인도 생겨난 것이다.

세 번째, 민감한 내용에 대한 검열의 맥락이 보이는 편지들이 있다. 이 시기 편지 내용에 가장 빈번한 경우는 앞서 살핀 예물을 주고받는 내용이다. 이는 가벼운 교류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로 깊은 속내를 담거나 긴 용건을 담은 대화는 만나서 필담으로 주고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청조는 文字獄의 위협이 있었던바, 수신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에 바로 처분하기 힘든 편지에는 특히나 내용을 조심해서 적는 경향이 있었다.¹⁶⁷

이 때문에 표현만 봐서는 모든 편지가 범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朴齊家와 속내를 털어놓는 깊은 교류를 나누었던 몇몇 문인들의 편지는 그 행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李鼎元이 1799년 무렵에 보낸 편지를 들어본다.

각자 우환이야 있겠지만 감히 서로 듣지 않기로 하지요. 어제 十三 李喜經이 불쑥 방에 들어와서 근래 잘 계시는 줄을 물어서 알았습니다. 십 년이 되도록 승진하지 못했다니, 제가 대신해서 분통을 터뜨렸지요. 그러자 이희경이 그대가 겪은 일을 말해 주었는데, 절대로 빈한한 선비가 감히 잇을 바가 아니었습니다. … 형님 우촌 李調元 선생은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는 산을 나오지 않고 계십니다. 저작은 날로 풍부해지고 정신은 나날이 굳세지시니, 제가 볼 때 마침내 用修 楊慎의 후신인가 싶습니다. 이 또한 우촌에게는 큰 다행이겠지요. 높은 관직을 하는 것쯤이야 어디에다 쓰겠습니까?¹⁶⁸

최소 두 가지 민감한 문제가 언급되었다. 朴齊家의 관직 문제와 ‘겪은 일’, 그리고 李調元의 일이다. 조선 사행단 이희경을 통해 알게 된 朴齊家의 불운하고 부당한 근황과 자신의 형 李調元이 겪은 정치적 부침을, 아주 완곡하게 실루엣만 전하였다. 박제가의 관직 문제는 그가 10년이 넘도록 말단인 검사관으로 재직하며 거듭되는 숙직 속에 지쳐간 이야기, 이후 외직을

167 李鼎元이 특별히 朴齊家에게 이런 점을 경고하기도 했다. 『달초·역주 秋史筆談帖 2』: (李鼎元) “저는 본디 서찰은 의당 신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데 서신이 없으면 가슴이 답답하므로 결코 서신이 적을 수는 없습니다만,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我固言書札宜慎然. 久別無書, 中心惘惘, 故書札, 斷不可少, 只須慎耳.]”

168 『縞紵集』 2권 李鼎元 조: “昨十三闖然入室, 詢知近況佳勝, 十歲不遷, 僕方代爲扼腕, 而十三云足下所履之境, 大非寒士所敢忘. … 雨邨歸田, 不復出山, 著作日益富, 精神日以強. 看來竟是用修後身, 此亦雨邨之大幸也. 何用高官爲?”

역임하며 느낀 소회 등을 아울러 말하는 것일 테다. 이후 朴齊家가 답장을 보내왔고, 李鼎元이 다시 아래와 같이 답신을 했다.

바다 모서리와 하늘가라, 다만 정신으로 느껴 통해 자나 깨나 혹 다시 만나 이야기 할 수 있기를 생각할 뿐입니다. 문자로 왕래하는 것은 자못 자취에 구애되는군요. 봉함을 뜯어 보니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아 한갓 서글픈 마음만 더할 뿐입니다. 알리지 않으려 해도 그럴 수가 없고, 말을 많이 하려 하나 감히 그러질 못하니 어찌 한단 말입니까. 그대의 시에 본래 화답하여 올리려 하였지만, 막상 붓을 잡고 보니 마음이 상하여 능히 구절을 이룰 수가 없군요.¹⁶⁹

알리지 않으려 해도 그럴 수 없는 내용이 있건만, 편지로 전하자니 그 자취에 구애되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절절한 심정을 토해내고 있다. 朴齊家의 답장은 확인되지 않으나, 아마 그 또한 절절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었을 듯하다.

朴齊家가 2차 燕行 당시 潘庭筠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치적 검열의 정황이 드러난다.

하루는 길기가 1년 같고, 집은 가까워도 사람은 멀리 있군요. 이따금 거리 사이를 산보하면서도 또 감히 아무 때나 찾아뵙지 못합니다. 대문을 바라보며 서성이다가 돌아갈 날이 가까워짐을 생각하자니, 비록 하루에 1천 사람과 만나 이리저리 얽힌다 해도 다만 이 한 마음만은 끝내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북경으로 와서 훗날의 모임이 끝이 없다 하더라도, 앞일은 캄캄하니 누가 다시 이를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어쩔 수 없이 思慮를 다하여 눈앞의 즐거움을 도모하는 까닭입니다. 지난번 보내 주신 서둘러 쓴 편지를 보았지만, 듣고 보는 것이 마음속에 담긴 말을 방해하니 筆墨으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군요.¹⁷⁰

주변의 이목 때문에 潘庭筠을 쉽게 찾아가지도 못하고 편지로도 제 뜻을 다 표현할 수 없

169 『縞紵集』 2권 李鼎元 조: “海角天涯, 惟憶精神可以感通, 寤寐或再把晤耳. 文字往來, 頗碍形迹. 開緘欲涕, 徒增悽愴. 欲不報而不能, 欲多言而不敢. 奈何奈何! 尊作本擬和呈, 而握管心傷, 不能成句.”
170 『縞紵集』 1권 潘庭筠 조: “長日如年, 室邇人遐. 時時散步街市間, 又不敢以非時進. 謁望門屏而踟躕, 念歸期之將至, 雖日遇千人, 纏綿綢繆, 而只此一心, 終竟不能移也. 即使年年進京, 後會無窮, 而未來冥冥, 誰復知之? 此僕之所以不得不殫竭思慮, 以圖現在之樂耳. 頃見回書草草, 豈耳目有妨心肺之言, 非筆墨所可罄者耶?”

다는 말이 보인다. 潘庭筠 또한 비슷한 이유로 朴齊家와 긴 회포를 풀 수 없었고, 이들의 연은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¹⁷¹

특히 朴齊家는 성격이 호탕하고 불같은 면이 있어서, 친분이 있는 청조문인으로부터 우려 섞인 서신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⁷² 친분이 깊어져 속내를 다 털어놓게 될수록 교류를 조심하고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편지에는 朴齊家의 다음 燕行을 상정한 듯한 언급들이 보인다.

孫衡 [1792]: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후에도 계속 연경에 있을 경우 선생께서 1~2년 안에 使命을 받들어 다시 오시면 좋은 모임을 잇고자 합니다. 이것은 감히 성급하게 허락할 일은 아니겠지요.¹⁷³

伊秉綬 [1792]: 보내 주신 글을 받아 보니 문체가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사신으로 올 기약이 있음을 보여 주시니, 혹 이번 생애 다시 서로 볼 수 있겠는지요.¹⁷⁴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 龔協 등의 편지에서도 그의 4차 燕行을 근시일로 예상하는 내용이 보인다. 여러 사람에게서 거듭 언급되는 것을 보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약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朴齊家의 다음 연경 방문은 10년 뒤에 이루어졌고, 다음을 기약한 대부분의 청조문인과 재회하지 못하였다.

3) 우정의 지속

네 차례의 燕行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朴齊家의 교류 사업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 절에 살필 것은 4차 燕行과 그 이후까지의 편지이다. 10년 만에 연경을 찾은 조선 문인 朴齊家의 높은 명성이 확인된다. 朴齊家가 청조문인에게 받은 최고의 평가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나타난

171 당시 潘庭筠을 포함하여 그 주변이 정치적으로 흥흥하였기에 발생한 일이다. 1791년 박대가가 북경 도착 직후 潘庭筠을 찾아갔지만 그는 만나주지 않았다. 그 후 태화전에서 열린 건륭제의 팔순 생일 잔치에 겨우 만났는데 중간에 만주인이 와서 염탐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바로 버럭 일어나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를 청하듯 깎듯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새삼스레 성과 이름 을 묻더라는 것이었다. 潘庭筠은 잔뜩 주눅 들어 무언가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관련 정황은 정민,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 522면 참조.

172 『탈초·역주 秋史筆談帖 2』: “(朴齊家)중국의 풍습이 외국에 좀 관대하시군요.’ (李鼎元)풍습은 본디 관대합니다만, 요즘 떠도는 말을 만드는 사람이 많으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朴齊家)진송본(陳崇本)이 서신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일들을 조심하라 했습니다.’[‘中國俗差寬於外邦耳.’ ‘俗本寬. 近多一般造謠言者, 不得不慎.’ ‘陳崇本以書札見降, 抑懲此等事耳.’]”

173 『縞紵集』 2권 孫衡 조: “承詢, 及弟嗣後如長在都中, 一二年內, 先生奉使再來, 續圖良會, 此則未敢違諾.”

174 『縞紵集』 2권 伊秉綬 조: “接惠書, 文彩鉅麗, 承示來年有再使之期, 或者今生可復得相見?”

것이다. 또한, 영영 이별임을 인지하고 보내온 편지도 있다.

이 시기 편지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이름	제목	작성년도
曹江	貞蕤先生	1801
蔡炎林	朴老爺啓	1801
曹江	吳下曹玉水致書貞蕤仁兄	1805
錢東垣	家刻數種	-
黃成	上次修先生書	- 燕行중
言可樵	閣下假寐峇	- 燕行중
李鼎元	答小蕤 1	1812
李鼎元	答小蕤 2	-
李鼎元	答小蕤 3	1815

<표 3> 4차 燕行후까지 받은 편지

이 시기 특히 주목되는 교유를 주고받은 청조문인으로 曹江이 있다. 4차 燕行에서 曹江과 나는 필담을 보면, 그는 학생의 입장으로 朴齊家에게 여러 질문을 했다. 朴齊家は 자신보다 31살이나 젊은 학자에게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었다. 曹江은 필담에서 기생에 대해 얘기하자 朴齊家가 이를 농치기도 했다.¹⁷⁵ 燕行 막바지에서야 만나게 되었지만 둘은 나이 차이를 뛰어 넘어 금방 친해졌다. 아래는 曹江이 1805년에 쓴 편지를 살펴보자.

그대는 性命을 나눈 벗이니 반드시 편지로 저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아 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 그대를 그리는 마음은 모두 남백역에게 준 시구 가운데 있으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 伯擘 남척로와 오류거 서점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었는데, 예스런 모습과 유자의 풍모가 얼굴과 등에 가득하여 저로 하여금 그대의 그때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급히 근황을 묻고 각자 잘 계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아울러 들으니 벼슬을 그만두고 문을 닫아건 채 손자를 가르치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 하니, 특별히 저로 하여금 흠모함을 그치지 못하게 하시는군요. 근래에 지으신 회인시에 틀림없이 제 이야기도 들어 있겠지요.¹⁷⁶

175 『縞紵集』 1권 曹江 조: “이학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미인만 물으시니, 사람의 큰 욕심만 남았습니다그려. 그대가 사신이 되어 우리나라에 오면 관기를 불러 보시지요. [不問理學, 乃問美人? 人之大欲存焉! 君奉使東來, 要索官妓矣?]”

176 『縞紵集』 2권 曹江 조: “閣下爲性命交, 必有書來, 匡我不及, 幸幸. ... 思君之忱, 盡在贈伯擘句中, 可索觀也. ... 南伯擘相晤五柳居, 古貌儒丰, 盡于顏背, 令人還憶閣下當年光景. 急詢近況, 知各平善, 竝聞解組杜門, 課孫爲事, 殊使我

짧은 시간 만났을 뿐인 朴齊家를 벗으로 여겨 그리워하는 시구를 쓰고, 그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린다고 말하였다. 1805년의 曹江의 편지에서 1773년 郭執桓에게 편지를 보내던 朴齊家의 그림자가 보인다. 朴齊家は 대국의 문인에게 신교를 청하며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던 젊은 문인에서, 존경받는 조선 문인이 되어 신교의 대상이 된 것이다. 조강은 특히 이후 金正禧(1786~1856)가 교유하는 핵심 연경 인사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李鼎元은 朴齊家가 4차 燕行을 마친 뒤에도 편지 왕래를 이어갔고, 朴齊家 사후에는 朴長醜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그야말로 朴齊家의 天涯知己라 할 수 있다.

그대 부친의 문장은 틀림없이 동국의 대가로 추대될 것이니, 부처 주신 『竟信堂集』은 다만 그 한 부분일 뿐입니다. ... 그대의 부친께서 大壽이 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뒤 어느 때 귀양을 가게 되었는지요? 생각건대 신유년(1801) 이후의 일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재주 있는 사람이 으레 힘들고 괴로운 것은 우리 측 땅의 李太白과 蘇東坡, 승암 양신도 이미 겪었던 일입니다.¹⁷⁷

朴齊家의 문장이 동국의 대가로 추대될 거라 하였다. 『縞紵集』을 통틀어 朴齊家에 대한 가장 높은 평가라 할 수 있다. 또 그가 당한 유배를 李太白과 蘇東坡의 경험에 비유하며 朴齊家를 높이는 한편 朴長醜을 위로하였다.

이어 李鼎元은 朴長醜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소조를 선물했다.

이제 우촌 李調元和 치존 홍양길 그리고 그대의 부친이 또 그 자취를 이었으니, 훗날 그 이름이 반드시 전해질 것을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마음을 다치기가 쉽다는데, 편지가 여기에 이르자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려 하는군요. 부처 보내는 <行樂小像>은 제가 35세 되던 해에 그린 것입니다. 지금은 살쩍과 터럭이 허영지만, 神采만은 예전과 다름이 없답니다.¹⁷⁸

35세 되던 해의 소조라면, 朴齊家의 燕行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도 한창 교유했

欣羨不已. 懷人近作, 必及下走.”

177 『縞紵集』 2권 편집, 李鼎元 조: “尊翁文章, 定推東國作手, 所寄竟信堂, 特其一斑, 何時彙刻成集? ... 尊翁前爲大令, 固知之, 此後何時遭謫, 想係辛酉後事. 才人例偃蹇, 卽吾蜀太白東坡升菴, 其已事矣.”

178 『縞紵集』 2권 편집, 李鼎元 조: “今雨村及稚存竝尊翁, 又繼其軌. 其必傳於後何疑. 人老易傷, 書至此, 淚涔涔欲下矣. 附去行樂小像, 乃愚三十五歲時圖者, 今鬢髮雖霜, 神采如故.”

던 시기의 모습이다. 李調元, 홍양길 등 전에 같이 교류했던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나 예전의 교류를 함께 추억할 수 없게 되었다. 29년 전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꺼내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자신과 같이 교류했던 사람의 자식에게 부친 것이다. 朴長籬이 요청했을 수도 있고, 李鼎元이 박장음의 글을 읽고 먼저 보냈을 수도 있겠다. 다만 이 일로 두 사람이 소조를 보며 朴齊家와 그 교류를 떠올렸을 것은 분명하다.

연경에서 명성이 높았던 명가로서 朴齊家是 이 시기를 마지막으로 조청 교류의 무대에서 내려왔다. 23살 때 청조문인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시작한 교류는 40여 년 동안 이어졌다. 4번의 燕行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2번에 달하는 10년 공백을 채운 것은 앞서 연경에서 펼치고 온 朴齊家的 文才와 함께, 부지런히 조청을 오간 편지의 교류였다.

4. 맺음말 - 『縞紵集』 수록 편지의 자료 가치

朴齊家和 청나라 문인의 편지 교환은 朴齊家가 燕行을 가기 전부터 燕行 당시, 그리고 燕行 후까지 반세기 가까이 지속되며 우정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縞紵集』에 수록된 편지의 자료 가치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겠다.

첫째, 18세기 한중 문인들이 우호적으로 교류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燕行 이전 편지에서 朴齊家的 호감에 청나라 문인들은 적극적으로 호감 어린 태도로 반응했다. 燕行 중에 朴齊家是 관직과 관계없이 청나라 문인들과 편지와 선물을 주고받으며 평등하게 교류했다.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하고자 했던 당대 동아시아의 우정과 교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朴齊家和 청조문인들의 교류 자료 중 가장 장기간의 자료로, 교류의 흐름과 청조문인들이 朴齊家를 보는 시선 변화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무명의 외국문인 혹은 홍대용의 벗에서 스승 朴齊家가 되기까지의 흐름이 40여 통의 편지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된다. 편지는 한 번 보내면 다시 회수할 수 없으니, 그 안에 담긴 청조문인의 태도는 신중하고도 진실된 것이라고 본다.

셋째, 청조의 검열과 회피의 정황과 맥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민감하고 깊은 내용은 주로 대면하여 필담으로 주고받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그 자리에서 처분하여 남은 자료가 많지 않다. 편지의 경우는 애당초 민감한 내용을 담지 않으려 하였으나 朴齊家가 조선에 있는 등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피치 못하게 그러한 뉘앙스를 담아 작성한 편지가 남아 있어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된다.

넷째, 朴齊家的 원서나 답서를 추정해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朴齊家的 편지가 실리지 않은 것은 한편으로는 『縞紵集』 자료의 한계이다. 그러나 편지가 일실된 것이 아니라 시의에 저촉되는 발언이 포함되어 朴齊家나 朴長籬의 판단에 의해 실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청조문인들의 원서나 답서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朴齊家的 벼슬 상황이나 해직 이후의 상황을 알고 있는 듯한 李鼎元이나 조강 등의 편지는 실제로 이 같은 맥락을 추론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朴齊家和 깊은 교류를 나누었던 李鼎元 등의 편지는, 필담 등 기타 자료와 연계하여 더 깊은 속고를 요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전 자료

朴長旆, 『호저집』, 하버드 연칭도서관본.

朴齊家, 정민 외 역, 『貞蕤閣集』, 돌베개, 2010.

朴齊家, 『楚亭全書』, 아세아문화사, 1992.

2. 논문 및 단행본

과천문화원 편(2009), 『후지쓰카 기증자료 목록집』 2.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사업단(2012),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집』, 민속원.

『탈초·역주 秋史筆談帖 2』 김정희, 朴齊家 편(2022), 과천시 추사박물관.

정민(2014),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 문학동네.

藤塚鄰(2009), 『추사 김정희 연구』, 과천문화원 淸朝文化東傳の研究 번역본.

徐毅(2019), 『十八世紀中朝文人交流研究』, 中華書局.

楊世明(1980), 『李調元年譜稿略』, 西華師範大學學報.

정민(2007),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정민(2014),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 문학동네.

안대회(2009), 『楚亭 朴齊家の 燕行과 일상속의 국제교류』, Vol.0 No.145, 동방학지.

김현권(2011), 『조선후기 小照의 제작과 북학파의 역할』, 미술사학연구.

유재형(2017), 『연암 그룹과 담원 郭執桓의 문예교류』, 『韓國漢文學研究』, Vol.0 No.66.

이패선(2020), 『望蜀聯集』 연구,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2022년 실학박물관 학술대회

박제가와 한·중 목연墨緣

토론문

니다. 물론 청조 문인들이 박제자에게 문학적으로 특별히 감화된 영향이 크겠으나, 시야를 확장하여 당시 조선 문인들의 對淸 交流網에 끼친 영향력에 주안점을 두어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3.1절의 경우, 박제가의 제1차 연행 이전, 洪大容과 『市衍集』을 통해 청조 문인들과 교제의 물꼬를 트게 된 기반이 마련된 측면을 부각하고, 3.2절의 경우, 박제가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된 사실과 더불어 타인(다른 벗)을 언급한 대목에 주목하여 집단 간 교제의 정황까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파악하신 내용이 있다면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3.3절에서 다루고 있는 4차 연행 및 그 이후에 받은 편지들은 19세기 초 조선과 청조 문인의 교류 과정에서 박제가의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제가를 위시한 지인들의 對淸交流網이 秋史 金正喜에게까지 이어진 경로와 그 과정에 참여한 문인들을 조사하는 작업을 병행한다면 학술적으로 더욱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발표문에서도 거론하신대로 李鼎元(1749~1815)과 曹江(1781~1837)이 주목되는바, 이정원과 조강은 翁方綱 문하에 출입하며 친했던 사이이고 紀昀과도 가까웠습니다. 이정원은 1778년 이덕무·박제가와의 교제를 시작으로 洪良浩(1794) - 徐滢修(1799) - 유득공·박제가(1801) - 金善民·李義聲(1804)-金魯敬·金正喜(1809)-洪冕燮·洪萬燮·洪箕燮(1810)-柳最寬·沈象奎(1812) 등 조선 문인들과 교제를 이어갔으며, 조강은 1801년 박제가·유득공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김선민·南陟老·이익성(1804) - 南石老(1807) - 金魯敬·金正喜(1809) 등 조선 문인들과 교제를 지속했습니다.³⁾

특히 조강이 1805년 1월 28일에 쓴 편지(『호저집』 편집 권3, 「貞蕤先生」)와 남척로에게 보낸 편지(「附贈愚齋(南陟老)」)를 통해 조강이 陳鱣과 王肇嘉와 친분이 있으며 박제가를 매개로 남척로와 교제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정원이 1814년 정월 10일 박장암에게 쓴 편지(『호저집』 편집 권1, 「附答小蕤」 제3신)에는 『師竹齋集』과 관련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박제가 개인이 '우정을 지속'함으로써 김정희를 비롯하여 아들 박장암, 申緯, 유취관 등 주변인들이 청 문단과 활발히 교류한 사실도 함께 밝혀주시면 맺음말에서 정리한 4가지 특징 외에 『호저집』 수록 편지의 자료 가치'가 강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제가가 제4차 연행 이후 받은 편지들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파악하신 중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들려주시길 청합니다.

3) 참고, 「19세기 前半 燕行錄의 특성과 朝淸 文化 交流의 양상」,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8, 41~43면 참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2022 실학박물관 학술대회

박제가와 한·중 묵연墨緣

2022. 11. 17.(목) 13:00~17:00

실학박물관 강당(열수홀)

일시	발표 내용	발표 및 토론
13:00~13:20	등록	사회자 박수밀(한양대학교)
13:20~13:30	개회사	정성희(실학박물관장)
13:30~14:00	기조발표 《호저집》의 편집 구성과 자료 가치	정민(한양대학교)
14:00~14:30	초정 박제가의 청대 문인과의 교류 양상 일면 : 《정유각집貞蕤閣集》과 《호저집》을 중심으로	박종훈(조선대학교)
14:30~14:40	휴식	
14:40~15:10	《호저집》의 편찬자 박장암의 생애와 그 편찬 의식	강진선(한양대학교)
15:10~15:40	청조문인과 나눈 박제가의 편지자료 검토 : 《호저집》을 중심으로	이패선(한양대학교)
15:40~15:50	휴식	
16:00~16:50	종합토론 김영숙(성균관대학교) 김지현(광운대학교) 임영길(단국대학교)	좌장 박수밀(한양대학교)
16:50~17:00	폐회사	

임영길(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본 발표문은 朴長菴 編 『縞紵集』에 수록된 편지 자료를 중심으로 朴齊家와 淸朝 문인의 교유에 나타나는 특징을 시기별로 포착한 글입니다. 양측의 친분이 심화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기실 박제는 추사 김정희를 위시한 19세기 조선 문인들의 대청 교류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크게 부각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18~19세기 한중 문인 간 교유 양상을 추적하는 데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호저집』이 완역 출간됨에 따라 한중 교류사에서 박제가의 위상이 재조명되리라 기대합니다. 귀중한 작업을 일구어내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발표문을 읽으면서 떠오른 단상을 거칠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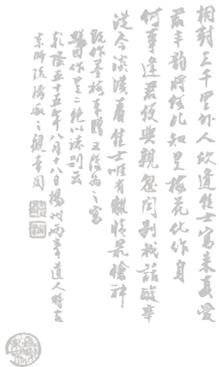
1. 편지는 교제가 성사한 이후의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의 교유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직접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편지를 통해 교분을 맺는 이른바 ‘神交’의 정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편지 자료는 개인 간의 교유뿐만 아니라 특정 문인 그룹 간 교유의 실마리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다만 편지를 논의의 중심에 놓더라도 여타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박제가의 교유 양상을 입체적으로 재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저집』內 필담 기록과 더불어 李德懋의 『入燕記』(1778), 柳得恭의 『熱河紀行詩註』(1790 2차)와 『燕臺再遊錄』(1801), 白景鉉의 『燕行錄』(1790 3차) 등에서 편지에 언급된 정황이나 편지를 작성한(또는 교유한) 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3장에서 교유의 양상을 ‘신교의 신척’, ‘개인적 교유의 발전’, ‘우정의 지속’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석하신 내용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어찌 보면 시간의 흐름상 자연스러운 친분의 변화로 볼 수도 있을 듯함

임영길(단국대학교)

이패선, 「청조문인과 나는 박제가의 편지자료 검토」

1. 머리말
 2. 『縞紵集』 수록 편지 자료 개관
 3. 편지 분석을 통해 본 朴齊家와 청조문인 간의 교류
 4. 맺음말 - 『縞紵集』 수록 편지의 자료 가치
- 참고문헌



나경麗聘이 그린 박제가朴齊家 초상

목차

좌장 박수밀(한양대학교)

8	김영죽 (성균관대학교)	박종훈, 「초정 박제가의 청대 문인과의 교유 양상 일면」
12	김지현 (광운대학교)	강진선, 「《호저집》의 편찬자 박장암의 생애와 그 편찬 의식」
16	임영길 (단국대학교)	이패선, 「청조문인과 나는 박제가의 편 지자료 검토」

작에 맞추어 춤을 춘다. 성동에는 상 춤을 춘다.(十有三年 學樂誦詩 舞勺 成童舞象) 한 데서 나왔다.’ 성동은 15세를 말한다.”라는 것에서 상(象)과 작(勺)은 각각 15세와 13세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시를 해석할 때 이 시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 박장암과 박장암의 나이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과 작(또는 15살 13살은) 둘 다 갓난아이 아니기에” 이를 살려서 번역하는 것은 어떤지요? 또한 이 시어로 본다면 이 시가 1802년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蔥湯’도 단순히 ‘국’으로만 번역하지 마시고 ‘파국’으로 적고 주자의 <덕흥현 섭원개의 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짓다(過德興縣葉元愷家偶題)>라는 시에서 전고를 사용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7. 박장암과 신위가 세교를 이어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노주설안도>를 예로 들면서 적은 주석 41번과 <노주설안도>가 1822~23년 사이 세간에 매물로 나왔을 때 신위가 다시 서문과 제시를 남겼다고 하며 적은 주석 44번이 같은 주석이었습니다. 아마 논문을 작성하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오류가 생긴 듯합니다. 이 부분은 논문을 수정하실 때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과문해서 선생님의 논문을 오독하고 드린 질문이 많습니다. 너그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01

김영죽(성균관대학교)

박종훈, 「초정 박제가의 청대 문인과의 교유 양상 일면」

1. 들어가는 말
 2. 청대 문인과의 교유 및 교류 양상 개괄
 3. 청대 문인과의 교유 양상
 4. 나가는 말
- 참고문헌



토론

박종훈, 「초정 박제가의 청대 문인과의 교유 양상 일면 : 《貞蕤閣集》과 《縞紵集》을 중심으로」

김영죽(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박종훈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18·19세기 韓中 지식인 교유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朴齊家와 李尙迪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를 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 또한 그 연장선에 있으며, 특히 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논의를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1789년 연행에 참가했던 秋齋 趙秀三도 초정의 挽詩에서 “往歲遊燕市, 達人說楚亭”(「哭朴楚亭齊家」)이라 하였으니, 18세기 양국 지식인의 교유의 정점에 박제가가 자리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회성 만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사유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진정한 교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유의 정황을 입체화시키는 과정이 한중 지식교류 연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발표는 《縞紵集》과 《貞蕤閣集》의 대조를 통해 교유 양상을 한층 구체화 시키며 그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1) 자료의 명확한 상호 대조의 필요성 2) 필담 형성 과정 추적의 필요성을 논하는 ‘연구방법론’ 제시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아울러 논지 전개상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을 제기하여 입장을 피력하신 것은 아니기에, 저역시 발표문에 큰 異見은 없습니다. 다만, 소략한 질문과 제안으로 토론자 소임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1. 교유인물의 분류 및 유형화

『정유각집』 번역 출판에 이어 이번 『호저집』 번역 출판은 18·19세기 한중 지식 교유 양상 考究에 한 획을 긋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교유 인물의 자세한 인적사항 및 교유 정황에 대한 실질적 근거자료 확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발표문에 『정유각집』, 『호저집』에 수록된 청조 지식인을 연행 시기별로 일별하여 박제가를 중심으로 한 交遊圈을 정리하셨습니다.

는 등 모습’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호저집』의 편찬 방향성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원과 신위와의 교유를 살펴볼 때, 아버지 대의 교유를 재현하려는 목적의 실현’이라는 문장에서 ‘아버지 대의 교유를 재현하려는 목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버지의 교유하던 이들과 직접적인 교유를 한다는 뜻인지요? 그럼 ‘이들과의 교유를 하기 위해 별열들과 접점을 만들고 인맥을 확장하는 모습’은 어떤 의미인지요? 신위와 교유하기 위해 별열과 접점을 만들었다는 말인 듯합니다만, 신위가 별열이지 않았는지요?

3. 교유 관계에서 김정희 그룹과 신위 그룹, 정학연 그룹으로 묶어서 서술하는 것은 어떨까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김정희와 신위를 모두 묶어주는 사람이 저는 柳最寬으로 보이는데 유취관을 교유 관계에서 다루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4. 이정원과 박장암의 세교에 대한 서술 중에서 8쪽 ‘무엇보다 박장암이 이정원에게 『경신당집』을 부친 것은 전후사정을 다 아는 집안사람으로서 이정원이 아버지의 心友가 됨을 마음 깊이 하여하였던 데서 말미암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문장을 어떤 의미로 서술했는지 궁금합니다. 서술된 문장은 ‘박장암이 『경신당집』을 이정원에게 보낸 것은, 박장암이 이정원을 아버지의 심우가 됨을 하여했기 때문’이라 읽힙니다.

5. 4쪽 중간에 보면, 박제가가 1805년 사망하고 바로 1806년 1월 25일 첫째 아들 박장임이 죽습니다. 그리고 『호저집』 서문은 1809년에 작성되고 대체로 이 무렵 『호저집』은 구상을 마치고 편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30년대까지 계속해서 수정 보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3권 뒷부분에 1827년 탈고 1832년 신위에게 전해진 진문술의 『화림신영』을 통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박장임 1806년 이미 죽었기에 『호저집』 편찬을 주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박장임은 『호저집』 편찬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닌 듯합니다. 저는 도리어 박장암보다 2살 많은 박장름이 왜 『호저집』 편찬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박장름이 아닌 셋째인 박장암이 편저자인 이유가 있는지요?

6. 3쪽 ‘둘 모두 갓난아이 아니건마는, 가르칠 방도 없어 부끄럽구나.[象勺兩非釋, 身教慚無方]’에서 “《예기》〈내칙(內則)〉에서 ‘나이가 열셋이 되면 음악을 배우고 시를 외며

토론

『『縞紵集』의 編纂者 朴長籛의 생애와 그 편찬 의식』에 대한 토론문

김지현(광운대학교)

강진선 선생님의 『『縞紵集』의 編纂者 朴長籛의 생애와 그 편찬 의식』 논문을 잘 보고 들었습니다. 조선 전기 조천록을 연구하는 학자인 저로서는 18세기 후반 19세기 연행록은 잘 알지 못하기에, 선생님 논문을 매우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 시기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처럼 현재 박제가의 셋째 아들 박장암의 문집이 전하지 않는 관계로 박장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소략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의 생애를 고구하는 작업이 무척 지난했을 것입니다. 『승정원일기』, 『내각일력』, 『밀성박씨족보』(갑인보, 1804) 및 문인들의 개인 문집 등을 꼼꼼하게 읽고 자료를 찾아 박장암의 생애와 관련, 그리고 교류관계를 밝힌 강진선 선생님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분야 전공자가 아닌 관계로 거의 문외한에 가깝지만, 토론을 맡았기에 논문을 읽고 들었던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먼저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4장 『縞紵集』의 편찬 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논문 전체 분량에서 본다면 이 부분이 너무 소략해서 주장을 펴다 만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종원이 선친의 벗 67명을 기록하면서 선친을 그리워 하는 뜻과 함께 선친이 이룩한 문원의 성사를 과시하고 선양하기 위해 작성한 「先君墓表碑陰先友記」를 본받아 『호저집』을 편찬했다는 박장암의 의견을 따라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예를 들어준다면 선생님의 논지가 더 분명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석 56번을 본문으로 가져와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논문 14쪽 박장암의 교유 양상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하나는 유본학의 경우처럼 부친 대의 世交를 이은 것과 ‘이정원과의 교류과정이나 신위와의 교류를 살펴볼 때, 아버지 대의 교류를 재현하려는 목적의 실현을 위해 闕閱들과 접점을 만들고 인맥을 확장하

향후, 청대 문인 개인 저작 및 필담 자료 등의 비교 검토를 통해 교유 인물의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정리된 인물을 어느 기준으로든 유형화, 범주화시킬 여지가 있는지요? 제시한 표에는 정치한 분류 작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로, 1790년 阮光平 책봉 문제로 入燕한 潘輝益, 武輝晉, 段阮浚 일행과 박제가의 교유 양상은 베트남 使行 문집 가운데 실려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回回王子 등은 ‘청조 지식인’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2. 자료 상호 검토의 필요성

박제가와 청조 문인의 교유 양상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기록 뿐 아니라 교유 대상의 개인 기록물에도 접근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논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는 신자료의 발굴이나 기자료의 치밀한 분석에 기반한 지속적인 작업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는 개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 협업의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최근 추사박물관에서 출간한 『추사필담첩2』(번역)과 그 해제)에 의하면 박제가 필담 가운데 1801년 작으로 추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발표문에 담긴 정보를 종합하면, 필담 시기를 1801년으로 비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정리해주신 『호저집』, 『정유각집』의 인적사항과의 대조를 통해, 『추사필담첩2』 번역, 탈초과정에서 모호하게 처리된 인명 고구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李鼎元, 紀昀 관련 필담은 『추사필담첩2』과 1801년 함께 연행한 유득공의 『열하기행시주』·『연대재유록』, 『호저집』에 모두 수록되어 있어 비교하여 논할 만합니다.²⁾ 羅聘 및 陳鱣과 의 필담은 『호저집』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유 정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규선, 「해제-연행 필담으로 살펴보는 김정희·박제가의 재발견」, 『탈초·역주 추사필담첩2』, 과천시 추사박물관, 2022.

2) 이와 관련하여서는 2022년 10월 28일에 추사박물관 주최로 진행된 『추사필담첩』 번역 출간 기념학회에서 발표 「筆談의 文化史-筆談의 形成 過程과 性格」(최식)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02 김지현(광운대학교)

강진선, 「《호저집》의 편찬자 박장암의 생애와 그 편찬 의식」

1. 서론
 2. 생애와 관력
 3. 교유 관계
 4. 『호저집』 편찬의 지향
 5. 결론
- 참고문헌

